

碩士學位論文

샹클리클 말하다

(Talking Shankly · 論文翻譯)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金 大 峻

2008年 2月

상클리를 말하다

(Talking Shankly · Tom Darby · 論文翻譯)

指導教授 金元寶

金大峻

이 論文을 通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金大峻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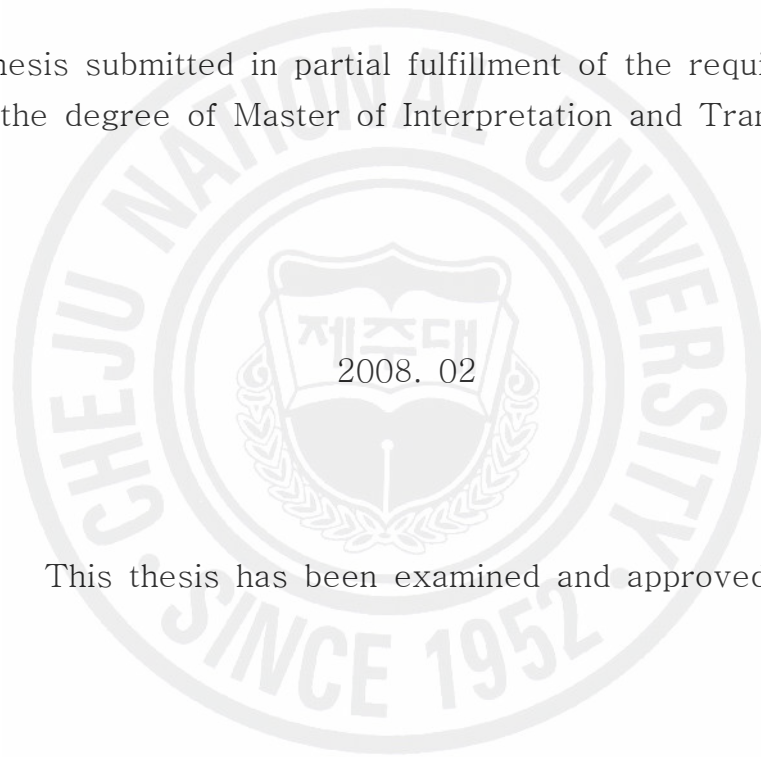
2008年 2月

Talking Shankly

Dae Jo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Won 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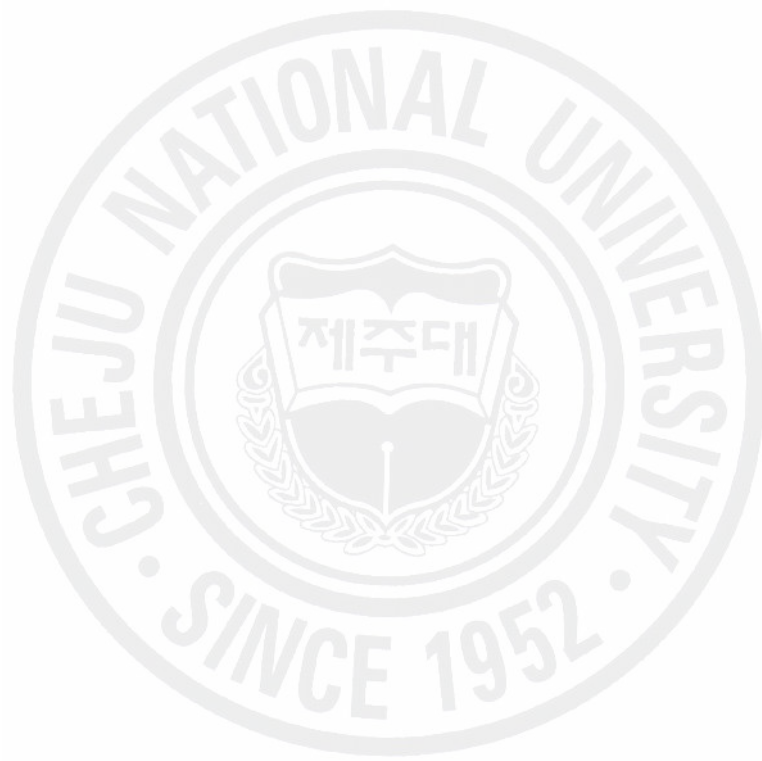
Abstract

One of the two pillars that sustains the football world is professional football leagues. Especially in England, the football league has a long history. It has always been with the people and played a key role in coordinating community spirit. Football has given people pleasures, comfort and a haven from the grindings of daily life.

This book is a dedication to a former legendary manager of Liverpool FC. Bill Shankly was a jewel in the Engl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Many retain a great respect for what he did for Liverpool FC and the football league as a whole in general. He took over the Second Division Liverpool in 1959, moved the team to the First Division and transformed it into a football powerhouse. The changes he made were nothing short of revolutionary. He adopted new coaching skills and tactics into the team. He was a man of charisma and humor. Players loved, respected and trusted him. Most of all, he was a working man's manager. He valued fans over everything else and believed they were the reason for the team's existence. To the people in Liverpool, he was a father figure, an old friend and friendly neighbor. He is a legend in Liverpool because he truly loved football and he truly loved Liverpool and its people.

The tradition of small-based professional football clubs continues to this day. However, football is now big business. Players are paid huge amounts of money weekly. Since the passing of Shankly's days, the true spirit of the game has become very hard to find. The idea - the philosophy - that a town's football club belonged to its people has passed with him.

Tom Darby, the author, reminds us of what we have lost. Perhaps we have lost not only a hero of football but also the true nature of the game.



감사의 글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신 김 원보 교수님, 김 재원 교수님, 박 경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 준 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고생한 우리 통역대학원 선후배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샹클리를 말하다

남자, 천재 그리고 전설

툼 다비 지음



좋은 사람인 토미 클레랜드, 히더, 크리스틴, 메간, 딜런, 내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내가 희망을 가슴에 품고 폭풍 속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목차

서문	5
상클리를 추억하며	6
1 글렌벙에서의 시작	9
2 프로 선수가 되다	18
3 자랑스러운 프레스턴	24
4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30
5 전쟁의 시간	34
6 보니 네스	40
7 자랑스러운 프레스턴 - 형편없는 경영진들	43
8 칼라일로 돌아오다	47
9 또 다시 떠나다	55
10 가스등 옆에서	60
11 '강점은 잊고 약점은 보완하라'	65
12 목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우다	72
13 기초를 다지다	81
14 이제 우리가 간다	87
15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해. 예, 예, 예'	93
16 웹블리와 유럽	97
17 리버풀의 전성시대	107
18 멀고도 험한 길	111
19 올해의 감독	116
20 리버풀을 떠나다	121
21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129
22 상클리는 영원하다	135

23 상클리에 대한 추억	138
24 상클리 어록들	173
25 상클리가 남긴 기록들	177
26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다: 상클리 동상	180
27 걷고 또 걷고...	
글렌벙까지 걸어난 책 모란	182
에필로그	185
감사의 말	190



서문

에멀린 휴즈

샹크스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함이 느껴진다. 운이 좋게도 나는 샹크스와 16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당당하게 그를 사랑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 샹클리 여사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샹클리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해준 것은 그동안 내가 들어 올렸던 가장 훌륭한 우승컵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재미있고 재담꾼이며 진중하고 엄격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인간적이었고 어떤 장소에서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샹크스는 장례식까지 참석했었고 나중에는 내 어머니의 집까지 와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면서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샹크스의 집 거실에 앉아 그와 그의 아내인 네스와 함께 다과를 하는 자리에서 그가 말했었다. '음, 이봐. 이제 자네한테 내가 왜 리버풀을 떠났는지 얘기해 주겠네.' 그때 그의 딸과 손자들이 거실 문을 두드렸고 결국 나는 앞으로 도 영원히 왜 그가 리버풀을 떠났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감독님, 우리 모두는 감독님을 사랑했습니다.

에멀린.

상클리를 추억하며

이 책의 서문을 위해 몇몇 위대한 인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들:

'톰 다비가 빌에 대한 새로운 책을 쓰는 것은 내 오랜 축구 동료이자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빌 상클리에 대한 과거의 많은 헌사에 새로운 것을 보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는 살아생전에 이미 영웅적인 존재였다. 그가 프로팀과 국가 대표 팀의 선수로서 또한 여러 프로 구단의 감독으로서 축구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사자 심장을 가졌던 그는 경기장 안에서건 밖에서건 물러섬을 모르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을 '서민들의 경기'와 그 경기를 사랑하는 열성 팬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 나는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가 프레스턴 노스 엔드 팀에서 발휘했던 역량과 무엇보다 사랑했던 리버풀 구단에서 이루어 내었던 성취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다.

에어셔와 스코틀랜드가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프레스턴에서도 그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상클리에 대한 전설을 얘기하는 이 책이 그가 죽고 난 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시의 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와 알고 지냈고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나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다. '

톰 핀니

'툼의 책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빌을 기억하게 해 주어서 정말 기쁘다. - 빌은 대단한 구세주였으며 리버풀 팀 팬들이 어려웠던 시기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빌은 2부 리그의 그저 그런 팀이었던 리버풀이 오늘날의 명문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나는 빌 상클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비쩍 마른 리버풀 소년이었던 나에게 '참새하고 다리를 놓고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해서 졌다.'라고 농담을 하곤 했으며 프로 축구선수가 될 수 있게 해 주었다. 빌은 나를 신뢰해 주었고 그의 지도를 받았던 나와 같은 다른 많은 선수들이 그가 그토록 열정을 다했던 대상인 축구라는 경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상클리는 '서민들의 사람'이었으며 리버풀 구단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든 인물이었다. 리버풀 구단은 '서민들의 팀'이었고 팬들과 선수들은 하나의 목표 아래 뿔뿔 뭉쳤다. - 세상을 향해 머지사이드는 살아 있고 공을 차고 있으며 하나로 뭉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형제가 일곱인 나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뱃속까지 노동자 계급이었다. 나는 사나이로서 리버풀 구단을 사랑했고 상클리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인 나의 리버풀 사람들 앞에서 구단을 위해 뿔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빌이 너무나스럽다. 하지만 이 책의 출판을 통해서나마 내게 빌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반갑고 한 때 이 세상을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 밑에서 뛰었고 그와 같이 생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낀다.

그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영원히 머지사이드와 함께 하고 있다.'

필 톰슨

'예전 내 팀의 감독이자 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빌 상클리에 대해서 쓴 톰 더비의 새 책 서문에 내가 몇 마디 언급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샹크스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서민들의 경기'와 그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동 시대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들의 사람'이었고 리버풀에 단지 위대한 축구 팀 이상의 것을 주었으며 새로운 안필드를 위한 지도 스타일과 경기 시설의 청사진도 제시해 주었다. - 그는 리버풀 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머지사이드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 길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였다.

나는 상클리의 '붉은 군대'의 일원으로서 뛰었던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의 동상 수십 개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딴 기념문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진정한 헌사는 머지사이드 사람들과 에어셔사람들 그리고 -전설이자 천재이고 진정한 남자였던-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존경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안필드 구장은 항상 '샹클리 구장'이다. - 아마도 우리는 안필드를 그렇게 명명해야 할 것이다.

케빈 키건

글렌벡에서의 시작

지금은 뮤어커크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에이셔 황무지에 여기 저기 무너져 내린 돌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 되었지만 글렌벡 마을은 언덕들이 굽이굽이 물결치듯 펼쳐져 있는 지형의 길가에 위치해 있다.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옛 광산촌이 되었고 머지않아 또 다른 노천 광산지로 변할 예정이다. 1997년, 수백 명의 리버풀 축구 구단 팬들은 글렌벡이 낳은 가장 유명한 인물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온 목적은 여기에다 검은 화강암으로 된 대좌(臺座)를 제막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은색은 이곳 에이셔 지역의 석탄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대좌에는 금색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전에 이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과 전직 프로축구 선수들 그리고 이 위대한 인물의 유족들이 상클리에 대해 헌사를 바치는 동안 팬들은 그것을 경청했다. 그들은 생전에 상클리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으며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리버풀 축구단의 단가인 '당신은 결코 혼자 걸지 않을 거예요(You'll Never Walk Alone)'을 불렀을 땐 사람들의 눈가에 하나 둘씩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날 행사의 특별 초대 손님은 크로스비 엔드벳가에서 온 67세의 리버풀 출신 잭 모란 씨였다. 그는 리버풀에 있는 성 조셉 암 요양소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안필드 구장에서 이곳까지 230마일을 걸어서 왔다.

팬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자부심을 느끼며 상클리가 리버풀 구단의 감독으로서 이룩했던 업적들을 추억했고 예전에 스코틀랜드 선수들이 런던의 웹블리구장에서 경기를 가졌을 때 했던 식으로 불도저들이 노천 광산을 만들기 위해 밀고 들어오기 전에 이곳 글렌벡의 흙을 부틀이나 윌러시, 안필드에 있는 본인들의 집 정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흙을 떴다.

그들은 스코티쉬 코울사가 예전 글렌벡 마을이 있던 자리에서는 노천 광산의 운영을 중단하고 그들이 세운 이 상클리 대좌를 그곳으로 옮겨놓을 것이며

2000년까지 그곳 황무지를 새롭게 조경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다음번에 다시 제막식을 거행할 때는 수천 명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라고 리버풀 원정 응원단 모임의 회장인 지미 플라워는 말했다. '이 스코틀랜드의 작은 땅은 우리 것이며 모든 리버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또 다른 리버풀 팬이 재치 있는 말을 했다. '리버풀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은 아마도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 맹세하건데 그들 모두가 글렌벡은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영국의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곳 글렌벡과 같은 마을은 없다.

지난 1800년대, 글렌벡 마을은 처음에는 농촌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직물업과 구리 광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남부 스코틀랜드의 주철소로 공급되는 고품질의 에이셔 석탄에 대한 수요는 컸었고 석탄 산업은 남부 에이셔 지역에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석탄 광산은 글렌벡 마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곳 사람들은 작고 끈끈한 광산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시점에 글렌벡의 인구는 약 1200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일터인 광산 근처에서 살았거나 정원과 텃밭을 갖춘 작고 아담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9세기 초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석탄과 철광석 광산에서의 노동은 이곳 마을 남자들에게는 아주 고된 것이었다. 광산주들은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광부들은 교대 근무가 끝나면 씻기 위해 집으로 와야만 했는데 갠구에 목욕 시설이 갖춰지기 수십 년 전 일이었다. 광산 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은 수시로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들이 오히려 글렌벡과 광산촌에서 동료의식을 싹틔우고 이웃과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하였다.

땅 속의 갠도에서 일하면서 광부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 실제로 광부들은 함께 일하는 형제지간이거나 아버지, 조카, 아들들이었고 - 아주 위험한 근로 조건하에서 등골이 뒹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서로를 돌봤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보험도 없고 보상금도 없었고 급여 역시 별 볼일 없던 시절에도 이웃들은 끈

경에 빠진 가족들이 있을 때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곤 했다.

케어 하디의 초기 사회주의는 이러한 고된 노동을 해나가는 친밀한 공동체들로부터 활기를 얻었으며 이들 공동체들의 힘은 그들의 연대와 단결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교회 역시 글렌벡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글렌벡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받고 삶에 대한 인도를 받았다. 1882년 마을 사람들은 이천파운드라는 큰돈을 모아서 마을 교회를 짓고 운영하였다. 글렌벡은 겨울이 길고 힘들고 고립된 광산촌이었지만 예전에 그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은 남자들은 열심히 일했고 여자들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작고 행복한 마을로 기억하고 있다.

글렌벡의 여자들은 야무지게 살림살이를 잘 했으며 자부심도 강했고 요리나 바느질, 옷 수선 등에 있어서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그들은 '훌륭한 어머니들'이었다. 로버트 번스의 겸손함과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그의 시 '아주 훌륭한 것들에 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의 형제들을 친절하게 살펴보라
더욱 따뜻한 눈길로 당신들의 자매들을 보라
비록 그들이 조금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은 사는 사람들일지니

그의 많은 작품들은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그보다 더 훌륭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들을 찬양했는데 그런 그의 작품들에 녹아있는 정신은 글렌벡 마을의 삶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앓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남을 시기하며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조차 하였다. 이러한 글렌벡 마을의 분위기는 수십 년이 지난 후 하나의 정치 철학을 낳았는데 그 철학은 차후에 글렌벡 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축구 경기장 안팎에서 영광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

이것이 1913년 9월 2일, 윌리엄 샹클리가 태어났을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다.

그는 존 상클리위 바버라 상클리부부 사이의 5남 5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 당시 글렌벡의 광부들은 그곳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해 고품질의 석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인근의 다른 광산들로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글렌벡의 인구는 약 60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마을의 남자들은 단체로 글렌벡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인근의 광산촌으로 일을 찾아 떠나던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아 에어나 킬마넉 같은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상클리를 늘 어린 윌리라고 불렀는데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글렌벡 에서는 광부들의 거리 (Miners Row) 혹은 원숭이 거리(Monkey Row)로 불리던 아우첸스틸로크의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상클리 가족들은 수가 많았기 때문에 두 채의 오두막집을 하나로 개조해서 살았다.

존과 바버라 부부에게 있어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그들 부부와 돌봐야 할 10명의 자식들로 인해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했다. 존 상클리는 재단사였다. 그는 19 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글렌벡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곳에서 집배원 일과 재단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존은 정직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에어서 지방과 스코틀랜드 남서부 지역에서는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다. 육상 선수였던 상클리 시니어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년에 빌 상클리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면서 ' 백퍼센트 정직했고' 항상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제심이 대단했고 공격적인 성격도 아니었으며 가족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주 절조 있었던 존 상클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자식들에게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었다. 상클리는 이런 삶에 대한 부친의 억누를 수 없는 정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그 역시 부친으로부터 그런 정신을 물려받았다.

존 상클리는 꽤 팬찮았던 중거리 선수였는데 1890년대에 반마일(800미터) 육상 경기에서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인 캔티 영을 이긴 적도 있었고 글렌벡에 체력 단련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튼튼한 육체의 소유자였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몸에 신경을 쓰고 운동법과 신체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받아들여서 삶을 계속해서 영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격려하였으며 동시에 그

의 재봉 기술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차려 입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우리는 능히 그의 아버지가 어린 샹클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을 거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시기에 가족들을 하나로 끌어 모은 사람은 바로 샹클리의 어머니인 바버라였다. 그녀는 글렌벙 에서는 꽤 유명한 블리스 가문의 일원이었는데 아들들에게 축구의 재능을 물려주었다. 그녀의 형제인 밥은 - 별명이 순록이었는데 빠른 스피드로 인해 붙여진 별명이었다 - 성인 축구 무대에서 글래스고나 미들즈브러, 프레스턴과 던디 같은 팀에서 선수로 뛰었으며 경력의 마지막은 포츠머스 FC에서 감독 겸 선수 그리고 이사로서 장식했다. 또 다른 형제인 윌리엄도 포츠머스와 프레스턴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나중에 칼라일 FC의 감독이자 회장이 되었다.

샹클리는 바버라를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회상했으며 말년에는 고작 재단사의 월급만으로도 생계를 잘 꾸렸으며 항상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입혔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도 또 보내곤 했었다.

존 샹클리는 음식에 있어서도 절제를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예외가 있을 때도 있었다. 매년 자식이 태어날 때에는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전통대로 선반에다 보관해 둔 위스키를 꺼내서 한 모금씩 마시기도 했다.

윌리에게 있어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말 그대로 '배우는 시기'였다. 그는 커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힘든 삶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그의 누이 다섯은 - 네타, 엘리자베스, 이소벨, 바버라 그리고 진 - 순번을 정해서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거나 마을에서 직접 손으로 빨래를 하곤 했는데 수많은 노동자 집안 처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러한 일들은 부유한 집의 가정부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바버라 샹클리의 자식들은 이러한 고단한 삶과 경제 불황으로 붙어 닦친 글렌벙 지역의 실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다.

많은 광부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여권과도 같은 것이었다. 글렌벙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축구 연

대기에 있어서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인구수의 마을에서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축구계로 진출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글렌벡까지 대중교통 수단도 없었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즐길 거리를 위해 뭔가를 만들곤 했다. 언덕 달리기, 쇠고리 던지기, 존 샹클리의 건강을 위한 수업, 황무지 걷기와 일상의 고된 노동이 결합하여 건강한 젊은 운동선수들을 만들어 냈고 TV나 라디오도 없던 시절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고 공을 차며 축구를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마을 주니어 축구팀의 이름은 '체리피커스(The Cherrypickers)'였는데 이러한 이름이 붙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글렌벡과 인근 뮤이커크의 젊은이들이 스페인 반도전쟁당시 제11연대 경기병부대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그들은 스페인의 체리 농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체리를 재배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팀의 이름이 보어 전쟁에 참전했던 글렌벡 출신 경기병 부대원들이 체리색의 붉은 총개머리를 달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팀 명칭의 유래가 어찌되었든 글렌벡 체리피커스팀은 1889년, 1890년 그리고 1891년에 에이셔 주니어 컵을 차지하는 등 많은 승리를 거뒀다. 1906년에는 에이셔 채리티 컵과 킴녹 컵 그리고 머클린 컵을 차지했다. 그들은 에이셔 채리티 컵을 1910년에 다시 차지하였으며 킴녹 컵 대회에서는 1901년, 1903년, 1904년, 1905년 그리고 1921년에 우승을 차지하였다. 팀이 활동했던 마지막 무렵인 1931년에 그들은 에이셔 주니어 컵을 다시 차지했다. 하지만 축구 역사에 있어서 글렌벡이 차지하는 제대로 된 위치는 글렌벡이 배출한 많은 유명한 축구 선수들로부터 나온다. 50명이 넘는 글렌벡 출신 선수들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미국의 성인 축구 무대에서 활약했다. 킬마넬이나 아이어 유나이티드, 하츠, 셀틱, 레인저스, 뉴캐슬 유나이티드, 블랙번 로버스, 토트넘 핫스퍼, 프레스턴 노스 앤드, 리버풀 그리고 던디 같은 팀들이 재능 있는 체리피커스 팀에서 선수들을 뽑아간 구단들이다.

적어도 7명이나 되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스코틀랜드를 대표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윌리엄 무이어 1907년 대 아일랜드 전

알렉 브라운 1902년, 1904년 대 잉글랜드 전

조지 할리 1910년 대 잉글랜드 전

존 크로스비 1920년 대 웨일즈 전; 1922년 대 잉글랜드 전

밥 상클리 1938년 대 아일랜드 전

하지만 이곳 출신 중 가장 많이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던 사람은 빌 상클리인데 그는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열세차례나 대표 선수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다섯 차례는 일반 대표 팀, 여덟 차례는 전시(戰時) 대표팀).

알렉 맥코넬은 잉글랜드와의 대표 팀 경기를 위해 스코틀랜드 대표 팀에 선발되었으나 경기 이틀 전에 에버턴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잉글랜드 클럽 팀에서 뛰는 스코틀랜드 선수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 팀 경기에 뛠 수 없었다.

몇몇 다른 채리피커스의 선수들도 주니어 레벨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바로 이러한 글렌벡의 축구 환경에서 상클리와 그의 형제들인 알렉, 제임스, 존 주니어, 밥이 그들의 축구 기반을 닦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반이 그들로 하여금 축구계에서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상클리도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 1927년 광산 회사에 입사하였다. 당시 열네 살이어서 갱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에 그에게 주어진 일은 갱구에서 석탄과 돌을 분류하는 일이었는데 '정리'작업이라고 불리는 일이었다. 6개월 동안의 적응기를 거치고 난 후 그는 지하 갱도로 들어가서 석탄 바구니를 석탄 운반차로 나르고 빈 바구니는 다시 석탄을 채우기 위해 광부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상클리는 이 시기에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탄광에서의 근무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는 자랑스러운 광부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광산업자들의 저조한 투자와 통화 혼란으로 인해 광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있을 당시에 발생했던 1920년대의 광부들의 투쟁과 1926년 5월 총파업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광산업자들의 해결책은 탄광을 폐쇄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1926년의 총파업에 이어 광부들은 7개월 동안 파업을 지속하였으나 결국은 노동당 국회의원들

에게 버림받은 채 이러한 비참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탄광들이 줄을 이어서 폐쇄되었다. 어린 샹클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았다. 광부들의 힘든 노동과 자기절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는 그가 존경하는 것들이었다. 광부들은 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당당하고 정직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을 비난했으며 믿었던 국회의 노동당 의원들은 그들을 버렸고 광산 회사의 사주들과 경영주들은 그들을 착취했다. 착취, 가진 자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노동자들이야말로 최고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의 씨가 뿌려졌다. 사회주의가 샹클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곧이어 실업이 닥쳐왔다. 광산에서의 2년간의 일을 끝으로 샹클리는 잉여 인력으로 분류되어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는데 그 시기는 글렌벙에서 마지막으로 석탄이 채취되고 있을 무렵 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직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황속에서 가게를 돕기 위해 어린 잉여 광부는 신부 배달 일을 하고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축구가 좋아지고 있었다. 비록 지역에서는 축구에 재능이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축구 선수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16살의 나이는 위대한 채리피 커스팀에서 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훈련 시즌에 그는 주전 선수가 되었지만 그가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팀이 해체돼 버리고 말았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인근의 크론베리 주니어 팀은 오른쪽 하프백 자리의 대체 선수로 그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크론베리팀의 오른쪽 하프백 자리는 곧 샹클리의 차지가 되었다.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단지 스코틀랜드의 주니어 축구계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글렌벙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게 또래의 선수들보다 두드러진 기량을 과시하게 되었다.

샹클리가(家) 아이들은 중요한 시합에서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윌리는 잉글랜드의 프로 구단에서 펄 재목으로 여겨졌으며 그보다 앞서서 그의 형들도 모두 뛰어난 활약을 했었다.

가장 큰 형인 알렉은 윌리보다 20살이나 더 나이가 많았는데 은퇴하기 전까

지 에어 유나이티드와 클라이드에서 뛰었다. 둘째인 지미는 칼라일에서 그의 공 다루는 솜씨는 뽐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사우스앤드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으며 버로우 팀으로 옮기고 나서는 팀 역사상 최고 기록인 한 시즌 39골의 기록을 세웠으며 다시 칼라일 팀으로 돌아왔다. 형제들 가운데 중간인 존은 포츠머스, 루턴 타운, 할리팩스, 코벤트리 시티와 알로아 애슬레틱에서 활약했다. 윌리보다 몇 살 위의 형이었던 밥 샹클리는 폴커크에서 17년 동안 선수로 뛰었고 팀을 스코틀랜드 1부 리그에 올려놓았으며 벨파스트에서 벌어진 스코틀랜드 리그 대표 팀과 와 아이리시 리그 대표 팀 간의 경기에서 스코틀랜드 리그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폴커크 팀에서의 선수 생활에 이어 밥은 그 팀에서 감독으로도 성공적인 축구 인생을 개척했으며 에든버러에 있는 던디 팀과 하이버니언 팀에서도 감독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스티링 앨비언 팀의 총감독이자 구단 이사직으로써 장식했다.

윌리는 그의 형들이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고 있을 때마다 가난한 가족에게 항상 돈이 들어왔었던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샹클리 형제들에게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1960년 햄튼 경기장에서 벌어진 레알 마드리드 대 아인트레흐트간의 유러피언 컵 결승전 경기에서 존이 경기를 관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다. 그는 그날 밤 글래스고에 있는 빅토리아 병원에서 사망했다 (필자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학생이었을 때 직접 그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로 다음과 같은 웅성거림을 들었다. - '샹클리 형제들 중 한 명이 쓰러졌다').

크론베리 팀에서 세련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을 무렵 샹클리는 칼라일 유나이티드 팀 스카우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는 샹클리를 칼라일 팀의 이사이자 바로 어린 윌리의 삼촌인 빌 블리스에게 추천했다. 빌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테스트를 위해 장래가 촉망되는 부지런한 이 젊은 하프백을 칼라일의 브런튼 파크로 불러들였다.

프로 선수가 되다

어린 샹클리는 에이셔의 습지를 벗어나서 멀리 나가 본 적이 별로 없었다. 가끔씩 돈이 허락될 때면 글래스고를 방문하여 레인저스 대 이브록스의 경기나 셀틱 대 파크헤드의 경기를 봤던 게 고작이었다. 계약을 위해 처음으로 스코틀랜드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형 알렉과 함께였다. 나중에 그는 그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구단의 정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 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형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쇠퇴해 가는 남부 에이셔 광산 지역의 실업으로 인한 가난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됐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고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유의 몸이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성공을 가져다 줄 여정을 위한 출발을 할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칼라일 역에 이르자 그는 고향에 남아있는 선량한 사람들 생각이 났다. 존경스러운 남자들과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 여자들, 그들의 정직함과 고결함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그의 마음에 아로새겨졌다. 그가 주니어 팀에서 경기를 할 때 터치라인에서 응원을 보내준 사람들, 고단하고 터무니없이 싼 임금의 노고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오후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차를 타고 이브록스나 파크헤드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학교에서의 공부는 그의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테지만 '그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익힌 삶에 대한 지식은 이미 이 젊은이가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칼라일에서의 급여는 후했다. 샹클리는 주급으로 사 파운드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만약 1군에 진입하게 되면 주급을 사 파운드 십 실링으로 올리는 조건이었다. 고향에 있을 때 하루에 이 실링 육 페니를 받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 그걸 가지고 집

세, 전기세, 난방비에다가 옷을 사거나 먹는 데 드는 비용까지 다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비록 빌은 자신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집으로 부치는 것을 간절하게 바랐지만 어머니는 끝내 받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제 그녀 가족들의 삶도 많이 나아져서 그녀는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더 이상은 원하는 게 없다.'

칼라일 구단은 언제나 재정적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었다. 샹클리가 입단했을 당시에는 구단의 역사가 이제 막 30년 정도밖에 안되었을 때였지만 1928년 - 29년 시즌에 이미 북부 3부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자 매주 지출되는 비용과 구단 운영비를 충당하는 문제가 악몽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 극심한 재정 압박 속에서 구단은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기량이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샹클리는 칼라일에서 하부 잉글리시 리그(the Lower English leagues)에서 잔뼈가 굵은 팀의 풀백인 베테랑 밥 브래들리,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출신인 골키퍼 조니 켈리와 같은 방을 썼다.

그는 곧 북부 철도 도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칼라일 팀의 트레이너인 토미 커리는 젊은 샹클리가 바로 마음에 들었다. 8월 20일 그는 샹클리를 시범 경기에 내보냈고 1932년 8월 27일에 있었던 미들즈브러 리저브 팀과의 경기에도 출전시켰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이는 곧 브런튼 파크 전임 선수 계약을 제시받게 되었다.

커리는 샹클리와 같이 시범 경기에서 뛰면서 그가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적으로도 잘 다져져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리저브 팀에서 주전 팀으로 옮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커리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샹클리에게도 계속 연습을 하도록 격려했으며 그가 가진 기술이 그를 주전 팀으로 끌어올려 줄 거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샹클리는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젊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젊은 선수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사람은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젊은 선수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는다.

커리가 이런 식으로 젊은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은 맷 버스비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그는 커리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치진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였다. 나중에 커리가 뮌헨 대참사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클리는 무척이나 슬퍼했다.

1932년 젊은 상클리는 칼라일 리저브 팀에서 오른쪽 하프백으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그해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그는 주전 팀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다. 데뷔 경기는 로즈데일과의 리그 경기였는데 2대 2로 비겼다.

그 시즌동안 상클리는 모두 열여섯 차례 1군 팀 경기에 출전하였는데 시즌이 끝났을 때 칼라일은 19위를 차지했으며 간신히 리그 강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1932년- 33년 시즌이 끝나자 상클리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글렌벡으로 되돌아 왔다. 나중에 상클리는 여름휴가 시즌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한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축구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광산의 지하 갱도에서 일하면서 바랐던 것은 오직 빨리 교대 근무가 끝나서 경기장으로 달려가 축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글렌벡으로 돌아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탄광 동료들과 함께 한 편에 11명씩으로 팀을 짜서 축구 시합을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 여름 동안에는 한 편에 5명씩으로 팀을 짜서 축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프로 선수가 되었고 축구 시합을 하는 것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도 해방되었다. 직업 선수로서 축구를 하는 것은 힘든 광산 노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상클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훈련을 하였다. 구보를 하고 공을 가지고 훈련을 하였으며 마을 청년들을 상대로 즉석에서 팀을 구성하여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일들은 그가 브런튼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생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프레스턴 노스 앤드 팀에서는 칼라일 팀의 전도유망한 에이저 출신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오른쪽 하프 백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기로 마음먹은 딥데일의 팀은 칼라일에게 상클리의 이적료로 오백 파운드를 제시하였다. 칼라일은 계속해서 선수들을 팔아 치우고 있었고 상클리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인 빌리 햄프슨 감독도 팀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이

러한 변화의 조짐들은 글렌벙에 있는 샹클리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 그는 이제 브런튼 파크에 적응했으며 지금 팀을 떠나고 있는 동료들과도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 샹클리가 이러한 팀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무렵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내용의 전보가 도착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프레스턴 노스 앤드 팀으로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팀으로 연락할 것.'

샹클리는 이 소식을 듣고 펄 듯이 기뻐했다. 프레스턴은 큰 구단이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의 이적을 원하고 있다면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고된 시즌동안 최선을 다해 그의 능력을 발휘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의미했다.

전보가 도착한 다음날, 샹클리는 다시 형 알렉과 함께 국경을 넘어가고 있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샹클리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형에게 털어놓았다. 한편으로는 비록 하부 리그이기는 해도 그는 칼라일 팀의 주전 선수였다. 만약 딥데일로 이적을 한다면 다시 리저브 팀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물론 프레스턴의 리저브 팀이 칼라일의 주전 팀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현재 브런튼 파크에서 축구에 대한 기술을 잘 익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프레스턴은 2부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다음 시즌에도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프레스턴이라고 현재 칼라일 팀이 속해있는 리그로 강등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윌리와 알렉은 삼촌 빌 블리스가 소유하고 있는 볼링장이 딸린 술집에 도착했는데 이적 협상은 그곳에서 벌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샹클리와 칼라일 쪽 대표 그리고 프레스턴의 대표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프레스턴 쪽에서 오는 사람은 트레이너인 빌 스캇 이었는데 그는 구단의 지시대로 은밀하게 샹클리를 만나서 협상을 벌였다.

칼라일은 애초에 논의했던 대로 이적료 오백 파운드를 받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프레스턴 쪽에서는 이 젊은 선수가 자신들의 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계약금은 사십 파운드로 하자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으며 스캇은 만약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샹클리는 현재의 주급인 사 파운드 십 실링에서 십 실링이 상승한 주급 오 파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제 상클리는 난관에 봉착했다. 프레스턴은 큰 도시인데 지금 칼라일에서 지불하고 있는 이십오 실링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까? 프레스턴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생활비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칼라일에서 친구들에 둘러싸여 도시 축구팀 스타로서의 명성과 여러 사람들의 추종을 즐기면서 그곳이 마치 고향인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자 이번 이적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그랬지만 글렌벡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탄광 산업 구조 속에서 잉여 인력이 되어 고향 마을을 떠났다. 만약 프레스턴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자리도 없고 면목도 없이 고향 마을로 돌아가야 하나? 스캇과 이적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상클리의 순진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명백해져만 갔다.

프레스턴은 거물급 구단이었고 상클리는 소위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광산주들과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배반했다. 로버트 번스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큰 도시의 사람들은 고개를 쳐들고 뺨뺨하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충성스런 칼라일의 팬들 또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결국 그가 축구계에 몸담고 있는 이유도 자신의 즐거움과 일주일 내내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 무언가 분출구를 바라고 브런튼 파크를 찾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는 것과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해주었던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칼라일에서 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프레스턴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랐다. 처음에 상클리는 프레스턴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현재에 만족했고 또 그러하기에 일주일에 십 실링이 인상된 주급 역시 팀을 옮길만한 동기부여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소간의 실망감을 안고 빌 스캇은 남쪽으로 향하는 오후 기차를 타기 위해서 떠났다.

칼라일에 대한 충성심은 구단이 그토록 원하는 이적료 오백 파운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축구의 재정적 측면이다; 작은

구단들은 좋은 선수들을 큰 구단에 팔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팀이 프레스턴이 아니더라도 그는 어쨌든 다른 구단에 팔릴 것이다.

윌리는 그런 형의 의견에 공감했고 이적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축구 선수들도 동산(動産)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고 팔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여전히 축구단을 소유한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때그때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거나 얻을 수도 있는 소작농이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스콧이 프레스턴 행 기차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알렉과 윌리는 마치 순록이나 된 것처럼 칼라일 역까지 전력 질주를 하였고 간신히 떠나려는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계약에 대한 선수금으로 십 파운드를 받은 상클리 형제는 기차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헐트위슬에서 내렸고 그곳의 역장은 칼라일까지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었다. 그 역장은 칼라일 팀의 팬이었는데 상클리가 이제 팀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말할 것도 없이 상클리의 이적 소식이 칼라일의 거리로 퍼져 나가자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브린튼 파크는 성난 팬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그들은 만약 이적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있을 경기들을 보이콧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팬들의 흥분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많은 팬들이 팀의 로제트를 버리고 다시는 브린튼 파크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젊은 상클리는 헌신과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칼라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루하루의 힘든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오락 거리와 흥분 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기장에서의 상클리의 기술은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그는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였다.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그들의 윌리'는 이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칼라일로 돌아오게 된다.

자랑스러운 프레스턴

글렌벡 사람들은 그 마을 출신의 젊은 선수가 보다 더 넓은 축구 세계로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기쁨을 표현했다. 그러나 글렌벡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윌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과시하지 않았다. 어쨌든 글렌벡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해 오지 않았던가? 이 마을은 많은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선수들을 배출해 왔고 프레스턴보다 더 훌륭한 팀에서 뛰 선수들도 배출해 오지 않았나? 샹클리는 시즌이 끝난 후 휴가 기간에 글렌벡에서 스스로 준비한 몸만들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도 그와 함께 훈련하도록 배려했고 가끔씩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젊은 나이 때부터 샹클리는 마을 청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체력을 형성하고 기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의 형 밥은 젊은 윌리가 감독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훈련 시간을 농담조로 '빌 샹클리의 주일 축구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933년 7월 중순 딥데일에 도착한 샹클리는 한나 어셔 부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거처를 정하게 됐는데 그녀는 팀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어셔 부인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제공하는 하숙 생활도 정말 좋았다. 빌은 9년 동안 한나 어셔 부인 밑에서 하숙을 하였고 전쟁 기간에도 종종 들르곤 했다. 그는 어셔 부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나중에 결혼하기 전 미래의 신부가 될 사람을 어셔 부인에게 소개하고 그녀의 허락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윌리 샹클리,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여자로구나."

샹클리는 곧 딥데일의 생활에 적응했다. 불확실한 미래와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도 곧 사라졌다. 하숙비용도 적당했으며 딥데일은 정말 좋은 구장이었다. 그곳 사람들도 처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큰 도시의 냉혹한 인간들은 아니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훈련 시간도 만족스러웠다. 빌 스콧과 그의 보조 트레이너인 지미 맷카프는 어떻게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프레스턴 팀은 기술 축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발재간이 뛰어난 스타들'을 배출해 왔다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러한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랐다. 프레스턴의 팬들은 축구에 있어서 그들 팀의 선수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33년 - 34년 시즌은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다. 거의 십년 동안 팀이 프로 축구의 주 무대에서 자꾸만 멀어져 왔었기에 팀은 물론이고 팬들 역시 '자랑스러운 프레스턴'이 다시 1부 리그로 복귀해서 웬블리의 영광을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었다.

딥데일 에서의 상클리는 리저브 팀 소속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상대는 블랙폴의 2군 팀이었다. 리저브 팀에서 적응을 위해 몇 경기에 출전한 그는 1933년 12월 9일 헐 시티를 상대로 1군 경기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 경기에서 감독과 팬들에게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그는 오른쪽 하프 백 포지션으로 1군 팀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프레스턴 팀의 플레이에 잘 적응한 상클리는 곧 딥데일의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다. 그의 첫 시즌은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며 팀이 2부 리그 챔피언인 그림스비 타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여 1부 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부 리그로의 진출은 주급이 삼 파운드에서 팔 파운드로 오른다는 것을 의미했다. 짧은 시간에 그는 성공 가도를 계속 질주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를 막을 자는 없었다.

프레스턴은 1부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팬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날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고 랭커셔 지역 프로 팀의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경기장 안에서건 밖에서건 상클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축구에 대한 헌신은 그를 향한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상클리의 정직하고 바른 품행과 좋은 매너는 프레스턴 노스 앤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이 호감 가

는 스코틀랜드 젊은이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항상 훈련장에 맨 처음 도착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열심이며 경기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고 팬들에게 상냥한 상클리는 곧 프레스턴시의 양자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프레스턴은 예전에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매개로 해서 상클리의 고향인 글렌벡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로버트와 윌리엄 블리스 형제, 알렉 브라운, 로버트 크로퍼드, 피터 맨킨타이어와 알렉 타잇 같은 선수들이 프레스턴에서 활약했었다. 프레스턴은 젊은 윌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러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윌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선수들이 단 한 번도 프레스턴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클리가 첫 시즌 딥테일의 경기장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큰 것이어서 포츠머스와 아스날도 그를 영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리그 챔피언인 아스날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오른쪽 하프백을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여겨졌었으나 아스날로부터의 제안은 제때 나오지 않았다. 프레스턴 팀으로서도 딥테일에서 많은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떠오르는 스타를 다른 팀으로 이적 시키는 것은 역시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팀에 있어서 큰 자산이었고 지금 잡아두었다가 나중에 더 큰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시킨다면 재정적으로도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터였다.

상클리는 그의 능력에 대해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지만 프레스턴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딥테일에서 수준 높은 선수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팀의 경영진들이 그를 아스날로 보내는 것에 대해 재정적인 이득을 따지는 것은 그들의 일이었다. 상클리는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프레스턴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 팀을 위해 백 퍼센트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팬들을 즐겁게 하며 프레스턴의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우정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그가 하고자 하는 바였다.

아무튼 아스날로 가게 되는 것인 좋은 일인 것은 분명했다. 축구 선수로서 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었다. 상클리는 로버트 번스가 한 말을 상기했다:

신분이라는 것은 1기니짜리 우표에 불과하다,
누구나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다

프레스턴 팀의 1부 리그 첫 시즌은 그저 그런 평균 작이었다. 시즌을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마감하고 FA 컵 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한 성적이 일부 팬들에게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열성적인 딥데일의 팬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 시즌인 1934년 - 35년 시즌에도 프레스턴은 1부 리그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했지만 FA 컵 4강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발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좋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딥데일에서 조합되고 있었으며 고향인 글렌벡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클리는 그보다 어린 선수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프레스턴의 주전 팀은 오래지 않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잠재력을 가진 팀으로 부각되었다. 상클리도 자신의 포지션에서 예사롭지 않은 힘을 보여주면서 ‘달리는 기계’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는 강력한 태클을 구사하고 90분을 다 소화하며 수비가 튼실하고 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데도 뛰어난 선수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짧은 패스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의 컬러도 그와 잘 맞았다. 지미 밀른과 앤디 비티 같은 선수들도 가세하여 이제 프레스턴 팀은 다음 시즌 많은 활약이 예상되는 무시 못 할 팀으로서 부각되고 있었다.

1935년 - 36년 시즌의 막바지가 되자 상클리는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하프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부상으로 경기를 결장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끈기와 경기에 임하는 다부진 자세 등으로 인해 그는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1936년 - 37년 시즌에도 프레스턴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팀의 리그 성적은 들쭉날쭉 했지만 프레스턴은 컵 대회에서는 물리치기 어려운 강한 팀이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FA 컵 3라운드에서 뉴캐슬을 2대 0으로 물리쳤고 스톡 시티를 격파했으며, 텍스터와 토튼햄 핫스퍼를 차례로 격파하고 하이버리 에서 벌어진 준결승에서 웨스트 브롬위치를 상대하게 되었다.

준결승전에서 상대를 4대 0으로 격파한 프레스턴은 팀 역사상 1922년 이래

처음으로 강력한 선더랜드 팀을 상대로 웹블리구장에서 FA 컵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노동절 날에 열린 FA 컵 결승전에서 - 예전에는 4월에 열렸었지만 킹 조지 6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가 변경되었다 - 프레스턴의 프랭크 오도넬이 첫 득점을 기록하였다. 비록 프레스턴 팀은 전반전에서 북동 지역의 강팀인 선더랜드를 완전히 압도했지만 시합은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딥데일에서 남쪽으로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은 프레스턴의 팬들에게는 우울한 결과를 낳는 쪽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후반 초반에 선더랜드의 거니와 라히치 카터 선수가 역속 득점을 하며 경기를 역전시켰고 후반 71분에 선더랜드의 버뱅크 선수가 또 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는 최종 스코어 3대 1 선더랜드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웹블리에서의 첫 경기를 패배로 장식하게 되어 실망이 컸지만 샹클리는 가장 먼저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팀에게 졌다.'

웹블리에서의 패배를 뒤로하고 프레스턴은 다시 1937년 - 38년 시즌의 우승을 위한 시동을 힘차게 걸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조지 머치 선수도 영입하였다. 캘리모어와 비티가 풀백 라인을 형성하고; 샹클리, 스미스, 밀튼이 뛰어난 하프 백 라인을 형성 했으며; 오도넬, 도우걸, 스미스, 머치와 맥스웰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포메이션은 '프레스턴 스코틀랜드 사단'이라고 불렸는데 11명의 주전 선수들 중 10명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다.

샹클리는 1부 리그 최고의 윙 하프 포지션 선수가 되었고 기록적인 구름 관중들이 딥데일 경기장으로 모여들어 윌리와 그의 '스코틀랜드 군단'이 그들의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항상 1위 근처에서 맴돌곤 했던 프레스턴은 이번 시즌도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1위인 아스날을 추격했다. 하지만 딥데일에서 벌어졌던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날은 프레스턴을 3대 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였고 프레스턴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 이어 리그 3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시즌 마지막 순간에 사라져버렸던 컵 대회 영광은 이번에는 그러나 곧 프레스턴의 차지가 될 예정이었다.

1938년 웹블리구장에서의 FA 컵 결승전 상대는 허더즈필드였다. 상클리와 그의 프레스턴 스코틀랜드 군단은 이번엔야 말로 다시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약 만 명이 시청자들이 사상 최초로 TV로 생중계된 FA 컵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았다. 전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비긴 두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우승컵을 놓고 벌이는 한 판 승부가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이 경기의 오늘의 선수였던 상클리는 머치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였고 머치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허더즈필드 팀의 센터 하프 이자 주장인 알프 영으로부터 반칙을 얻어냈다.

머치 선수는 페널티 킥을 성공 시켰고 프레스턴 팀에 컵 대회 우승의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이 순간이 상클리의 축구 선수 경력에 있어서의 정점이었으며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리버풀의 스타들을 거느리고 똑 같은 영광을 재현하기에 이른다. 프레스턴 팀이 FA 컵을 차지한 웹블리에서의 영광스런 순간에 대해 상클리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웹블리구장에 종료 휘슬 소리가 울리고 당신이 그 곳에서 시합을 했으며 당신의 팀이 이겼을 때 그것은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에요...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승한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때 기분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 상클리는 글렌벙 출신인 윌리엄 무이어, 알렉 브라운, 조지 헐리, 존 크로스비와 그의 형인 밥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바로 짙은 남색의 스코틀랜드 대표 팀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었다. 프레스턴의 젊은 사자가 스코틀랜드 대표 팀의 일원으로서 고향 글렌벙에 또 다른 영광을 가져다 줄 참이었다.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프레스턴 팀 소속으로 리그 경기 및 컵 대회에서 샹클리가 활약하는 모습을 눈여겨 본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의 관계자들은 그를 국가 대표 팀 윙 하프의 포지션에 선발하였다. 프레스턴 팀의 동료인 머치와 스미스 베티도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간의 국가 대표 팀 경기에 스코틀랜드 대표 팀의 일원으로 같이 선발이 되었는데 경기는 웹블리구장에서 FA 컵 결승전 경기 이틀 전에 펼쳐질 예정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경기를 ‘잉글랜드 대 프레스턴’의 대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프레스턴 팀에 속한 샹클리와 그의 스코틀랜드 동료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예였다.

비록 글렌벡 사람들이 젊은 윌리 샹클리가 숙적 잉글랜드와의 국가 대표 팀 경기에 선수로서 선발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했지만 이틀 뒤에 있을 프레스턴 팀의 FA 컵 결승 경기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국가 대표 데뷔 경기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다.

웹블리구장에서 벌어질 국가 대표 팀 경기 표를 소지하고 있던 글렌벡 사람들도 샹클리가 FA 컵 결승전에서 우승하여 우승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표를 팔고 런던으로의 여행을 취소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나중에 있을 FA 컵 결승 경기를 관람하고 샹클리를 응원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오직 한 번의 웹블리 응원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샹클리는 글렌벡 에서 아무도 그의 국가 대표 경기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경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국가 대표 팀 데뷔 경기를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부 에이셔 지방에서 자란 당당한 자부심을 가진 스코틀랜드 청년이 가슴에 뒷발로 일어서

는 사자 문양을 단 스코틀랜드 유니폼을 입고 웹블리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 번스의 땅에서 긴 여정 끝에 이곳 런던까지 온 특유의 격자무늬의 옷을 입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환호를 듣게 되자 그는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름을 느꼈다.

윌리스, 부르스, 배너번, 잉글랜드 기업의 지배아래 고통 받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농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 스코틀랜드 선수의 몸과 마음속에 넘쳐났다. 그는 로버트 번스를 떠올렸다.

피를 흘리는 윌리스와 같이했던 스코틀랜드인들이여,
브루스가 이끌었던 스코틀랜드인들이여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온 것을 환영하노라
아니면 승리가 있으리

그날 상클리외와 함께 경기에 뛰었던 스코틀랜드 동료 선수인 보비 레이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빌은 그날 쓰러질 때까지 뛰고 또 뛰었다. 그의 유니폼에 있는 사자는 승리를 위해서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상클리는 미들로디언 하트 팀의 토미 위커 선수가 놀라운 삼십 야드 드리블 끝에 골을 성공시키고 팀의 1 대 0 승리를 일궈내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기뻐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원정 응원단은 번스와 로버트 윌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속적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상클리의 기량으로 인해 그는 전쟁 발발 전까지 모두 네 차례나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 선수로 선발되었다. 벨파스트에서 벌어진 북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는 2 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한 달 뒤 에든버러의 티네캐슬에서 벌어진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는 3 대 2로 패했으며 글래스고의 이브록스에서 벌어진 당시 마자르인들의 헝가리 팀과의 경기에서는 1 대 3으로 패하고 말았다.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은 1939년 4월 햄튼 에서 잉글랜드 대표 팀을 맞아 홈 인터네셔널 트리플 크라운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잉글랜드 팀의 로우튼과 매튜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흠뻑 젖은 햄튼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스코틀랜드 팀은 1 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었다. 경기 종료를 25분정도 앞둔 시점에서 잉글랜드 팀의 ‘지독한 두 녀석’으

로 통하는 두 선수가 경기의 양상을 바꿔 버렸다. 허더즈필드 팀의 비즐리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나서 잉글랜드 팀은 로우튼 선수의 놀라운 역전골로 스코틀랜드 팀의 희망을 꺾어 버렸다.

다시 한 번 상클리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잉글랜드 팀에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가주의적인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로우튼 이라는 위대한 센터 포워드와 매튜스에게 진 것이었다...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위대한 선수들에게 졌다.'

상클리는 그의 대표 팀 생활을 즐겼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표 팀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잘 알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의 열성 팬들(the Terracing Tam)은 홈인 햄튼 경기장을 꽉꽉 메웠고 원정 경기를 위한 순례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국가 대표 팀 경기에 열광하는 이런 모습은 대표 팀 경기가 힘든 노동과 열악한 임금 조건 속에서 위안거리를 찾는 대중들에게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글렌벡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도 비록 크기는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였다. 상클리는 그런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팬들에게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와 동료들은 그러한 행복을 주기 위해 기여를 한 것이고 그들이 낙담한 채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 상클리의 이러한 공동체 정신과 축구를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 여기는 사람들인 팬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열망은 나중에 그가 리버풀의 안필드 에서 영광을 재현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었다.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의 경기가 제대로 된 국가 대표 팀 선수들 전원이 소집되어 벌어진 마지막 대표 팀 간 대결이었으며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향후 8년 동안은 이러한 국가 대표 팀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

히틀러의 전쟁이 점점 리그 경기와 컵 경기 그리고 국가 대표 팀 간의 홈과 원정 경기들에 대해서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당시 스물다섯 살이었던 상클리는 축구 인생의 절정기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느꼈다. 1939년 - 40년 시즌은 예정대로 시작되었지만 몇 경기 치러지지 않았다. 상클리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이었던 9월 3일, 영국 전역에 있던 사람들은 무선 라디오를 통해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상클

리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 제 1차 세계 대전 때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모든 리그 경기를 금지시켰으며 모든 선수들을 전선으로 소집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축구라는 국가적인 경기가 국민들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인식한 정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 경기들이 계속해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축구 선수들은 군 복무를 해야만 했다.

상클리는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무슨 미래가 기다리고 있나?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시간 속에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몇몇 순간들도 같이 들어있었다.



전쟁의 시간

유럽이 전쟁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 무렵 상클리와 프레스턴은 북부 리그에 속하게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의 프로 리그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상클리는 처음으로 톰 핀니와 같이 시합을 뛰게 되었다. 톰 핀니는 잠재성이 있는 어린 선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상클리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었다. 핀니 선수는 잉글랜드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다. 상클리는 이 젊은 선수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핀니에 대해서 ‘내가 봤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얘기하였다.

상클리는 핀니의 헤딩 능력이나 쉽게 수비수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드리블 능력 그리고 공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 하였고 그 젊은 선수의 아주 뛰어난 능력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핀니 선수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는 자신이 프레스턴의 유스 팀에 있을 때부터 상클리가 보여준 관심과 격려의 말들 그리고 그가 기량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선수 모두 비티나 머치, 도우걸 같은 선수들과 한 팀에서 뛰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흥분해 있었다. 만약 상클리 선수가 전쟁이 그의 경력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면 딥데일의 열성 팬들은 프레스턴 역사상 최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팀이 제대로 된 프로 리그와 FA 컵 2연패에 도전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떤 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그러한 팀이 만들어 지자 히틀러의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것이었다. 프레스턴 팀의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 상클리/핀니 조합의 프레스턴은 북부 지역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1940년 - 41년 전시 컵 결승 (Wartime Cup)에서 아스날을 2 대 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진짜

FA 컵 우승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는 전쟁 중이었다.

1940년 6월, 샹클리는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는 ‘예비 직업 노동자’의 신분으로 광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우선 지방의 건축업자와 함께 일을 했으며 폭탄을 제조하는 햄튼의 공장에서 리벳 공으로 일했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그가 영국 공군에 입대했을 때는 워링턴 근처의 패드케이트에 배치를 받게 되어서 계속해서 프레스턴 팀의 선수로서 뛸 수 있었으며 딥데일로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후 샹클리는 고스포드에 있는 공군 기지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체력 단련 교관의 일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곳 고스포드 기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병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는 샹클리의 친화력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높은 그의 인기 때문에 샹클리가 하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샹클리를 다른 곳으로 전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병사들이 체육관에서나 행진을 할 때 샹클리의 강한 스코틀랜드 억양을 잘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구실을 짜냈다. 이어서 샹클리는 버리에 있는 방공 기구망 병참 부대에 배치를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계속해서 프레스턴 팀의 경기에 참가했고 맨체스터와 지구 영국 공군 리그에 있는 공군 팀을 훈련시키기도 하였다. 이때 당시 샹클리는 복싱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캠프대항 복싱 경기에 참여하여 라이트미들급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1941년 11월, 샹클리는 그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프레스턴 대 할리픽스와 의 컵 대회에서 입은 부상은 처음에는 슬개골 부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나중에 연골 부상임이 밝혀졌다. 영군 공군의 병원에서 더 이상 축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이 나오자 샹클리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샹클리는 특유의 완강한 고집으로 그런 진단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으며 계속해서 훈련을 소화했고 가능한 한 경기에 참여하였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은 복싱을 즐겼고 높은 수준의 체력을 계속 유지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또는 스코틀랜드와 군인 팀 간의 국제 경기가 정기적으로 벌어지곤 했다. 이러한 경기들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던 경기는 햄튼에서 벌어진 샹클리가 주장을 맡았던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의 경기였다. 약 팔만 명 가까운 스코틀랜드의 관중들은 새로운 주장

과 그의 '용맹한 전사들'이 잉글랜드에 3 대 1로 패하자 실망을 하였다. 하지만 복수전은 짜릿했다. 1년 뒤 웹블리 에서 벌어진 리턴 매치에서 스코틀랜드는 5 대 4로 승리했으며 이 경기에서 샹클리는 득점을 하였다. 상대였던 잉글랜드 11 팀에는 많은 스타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한 신문은 이 경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샹클리는 대단했다. 부상을 당해 어깨는 고정된 상태였으며 그의 혈관에는 부르스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발끝에서 뛰어난 기술 축구가 발현하였다.'

전쟁 당시라 유니폼이나 다른 축구 용품들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스코틀랜드 팀의 유니폼은 하트 오브 미들로디언 팀의 토미 위커가 공급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대표 팀 경기를 하면서 모든 유니폼들에서 실을 뽑아서 팀 동료들의 유니폼을 만들도록 해주었다. 샹클리는 이런 위커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깊이 존경하였다.

샹클리는 본인의 부상을 '별 것 아니'라면서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부상은 세간의 관심을 점점 더 끌고 있었다. 마침내 1944년 웹블리 에서 벌 어질 잉글랜드 대표 팀과의 경기에 앞서서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팀은 샹클리에 게 대표 팀에 선발이 되려면 그의 몸 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한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 전날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진행된 훈련 도중 대표 팀 관계자들은 그의 무릎이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샹클리에게 골대를 발로 한번 차보라고 요구하였다.

샹클리는 '건강한 다리로도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전시에도 프레스턴에서 계속 되었던 축구 경기는 1940년 딥테일 구장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에 징발되면서 중단되게 되었다. 샹클리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여러 군사 기지에서 복무하면서 루턴, 리버풀, 카디프, 노위치, 볼튼 그리고 아스날 같은 팀에서 오른쪽 하프 포지션으로 경기에 참가하곤 했다.

그는 아스날이 1943년 남부 리그 컵 대회의 결승전에 진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결승전은 웹블리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샹클리는 다시 한 번 웹블리에서 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아스날 팀의 프로정신이나 높은 수준 그리고 좋은 시설 등은 샹클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고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말았다.

그 해 아스날 팀이 남부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데 기여를 한 샹클리는 당연하게도 그가 웹블리 에서의 결승전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컵을 차지하겠다는 열망이 너무나 컸던 아스날은 팀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다 발휘하여 영국 전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소속팀의 훌륭한 선수들을 모두 동원하고자 하였다. '초청'선수 신분이었던 샹클리는 출전 명단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모욕에 덧붙여서 아스날 팀의 경영진들은 그의 실망감을 달랜다는 취지로 샹클리에게 찰튼과의 결승전 티켓과 경기를 보러 오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자존심이 강한 이 스코틀랜드 인은 격분했다. 정실주의, 배신 그리고 감정적인 이유의 선수 선발 같은 문제들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나중에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샹클리는 위와 같은 감정들이 결코 본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 그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선수가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다른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겼을 때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시 그답게 그는 직접 자기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서 결승전 경기를 관전하였다. 아스날이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그들은 샹클리에게 우승 메달을 수여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결코 런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그는 인생에 있어서의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 교훈은 나중에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바로 전쟁이 벌어지던 이 시기에 샹클리는 그 유명한 '지미 캐그니 식으로 으스대며 걷기' 스타일을 개발해 냈다. 그는 영화배우 캐그니의 스크린 속 갱스터 역할을 아주 좋아했다. 캐그니는 키도 샹클리와 비슷했고 얼굴도 닮았다. 윌리엄 터프 가이이기도 했다. 샹클리에게 있어 캐그니는 영화 속의 우상이었으며 스타였다. 샹클리도 프레스턴 팀의 스타였다. 그리고 전시에는 영국 프로축구의 강팀인 아스날 에서도 뛰었다. 이쯤 되면 (비록 글렌벡 출신의 성향과는 동떨어진 않지만) 그도 으스대며 걸을만하지 않은가?

이 시기에 샹클리는 어디서 복무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젊은 선수들과 관계

를 맺는 것을 잊지 않았다. - 코치로 해주고 경기도 주선하고 멋진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당시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강인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한' 사람으로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자 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의 오랜 친구 프랭크 커리는 '일단 한번 상클리와의 안면을 트게 되면 말 그대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43년 9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비숍브릭스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 상클리는 집으로부터 전갈을 받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에게 장례를 치르고 집안일을 볼 수 있도록 글래스고에서 에이서까지의 기차 여행이 허락되었다.

상클리가 곧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은 패트릭 시슬 (Patrick Thistle) 구단 경영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뛰어난 하프백과 계약하여 레인저스 팀과 셸틱 팀을 꺾기를 바라고 있던 그들은 조금의 시간 낭비도 없이 그를 만나기 위해 상클리가 도착하는 중앙역으로 달려 나갔다.

패트릭 시슬 팀은 좋은 유스 팀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를 대비한 포석이었고 상클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의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슬 팀은 상클리에게 괜찮은 대우를 해 주었다. 팀은 상클리가 글래스고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연골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백오십 파운드를 지원해 주었고 지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하지만 덤바턴 팀을 상대로 가진 1943년 10월의 데뷔 경기는 재앙이었다. 시슬은 상대팀에게 6 대 2로 대패하고 말았다. 상클리는 소매 자락을 걷어붙였다. 그가 손봐야 할 일이 많이 있었다. 선수들을 달래기도 해야 했으며 지켜세우기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했다. 그는 어린 동료 선수들을 연승 행진으로 이끌었다. 주목할 만한 한 경기에서 상클리는 레인저스의 골키퍼와 주장 제리 도슨을 뚫고 지나가는 강력한 4야드짜리 강슛을 성공시켰고 이브릭스에서 시슬 팀에게 3 대 3 무승부를 안겨 주었다.

상클리는 또 그의 팀을 이끌고 여름 컵 결승전에서 전시 초청 선수들로 구성된 강호 하이버니언 팀을 상대로 충격적인 2 대 0 의 승리를 거두었다.

상클리는 시슬 팀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힘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의 무릎 상태를 알아본다고 그에게 골대를 차보라고 요구했지만 시슬 팀의 경영진들은 부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했으며 상당 부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메리힐 매저스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서 남아 있었다.



보니 네스

연골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을 무렵, 그와 당시 군 해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그의 친구 조크 포터는 종종 비숍브릭스 기지 주위를 조깅하곤 했다.

그와 조크가 날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기지 주위의 길을 따라 조깅을 할 때면 영국 공군 여군 부대의 한 젊은 통신 담당자가 기지 인근의 위병소 창문을 통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곤 했는데 그녀는 그 선수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했다.

이 두 명의 조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한 시간 아무 때나 출입이 자유로운 것 같았으며 뛰다가 장교를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목례만 하는 것이었다. 두 명중 작고 더 잘 생긴 쪽이 축구 선수 빌 샹클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네스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고 샹클리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저 그를 비가 오나 진눈깨비가 내리나 아랑곳 하지 않고 조깅을 하는 좀 정신 나간 사람정도로만 생각했지요.'

아리따운 여군 부대 아가씨가 자신에 대해 물어보더라는 얘기를 들은 샹클리는 바로 그녀에게 자기를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그네스 피셔였고 그는 한눈에 그녀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매너 없고 오만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제임스 캐그니처럼 거들먹거리며 걷는 운동선수를 참아줄 수가 없었다. 에이서 지방사람 특유의 뚝심으로 샹클리는 끊임없이 네스에게 구애를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꽃이나 초콜릿을 건네는 법은 없었다. 그의 로맨티시즘은 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치즈를 바른 토스트를 들고 샹클리는 끈질기게,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서서히 지쳐 떨어질 때까지' 네스가 묵는 숙소를 찾았다.

둘은 서로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 역시 임종을 눈앞에 둔 글래스고에 사는 어머니 옆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 배치를 받아 비숍브릭스로 온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각자의 슬픔을 위로하였다.

휴가를 같이 보내면서 둘은 곧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녀에게 자신의 축구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샹클리는 네스에게 꼭 경기장에 한번 와 줄 것을 간청하였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하자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 친구는 괜찮은 놈이다. 비위 맞추는 셈치고 경기장에 한번 가려무나.'

네스는 이브릭스나 파크헤드에서 시슬 팀의 거친 태클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축구 선수들이라고 하는 이 미친 사람들은 단지 서로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

네스의 가족을 만나고 난 뒤 샹클리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글렌벡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었다. 비록 그녀는 글렌벡 사람들은 글래스고우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샹클리네 가족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 역시 샹클리의 약혼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둘은 1944년 6월 29일 글래스고에서 결혼하였는데 샹클리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축구 오프시즌에 식을 올리게 되었다.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교회 결혼식에 이어 글렌벡에서는 피로연이 벌어졌는데 글렌벡의 주민들은 마을의 축구 천재와 그의 매력적인 신부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전쟁 기간 중 샹클리가 팀에 끼진 훌륭한 공로들을 기려서 패트릭 시슬의 팬클럽은 샹클리 부부를 위한 환송 피로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천명이 넘는 팬들이 그로우브 복싱 체육관에 모였고 부부에게는 식기 세트와 은으로 된 케이크 스탠드가 선물로 주어졌다. 이런 선물들은 샹클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 메달보다도 더 -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정직한 노동 계급의 사람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그들을 위해 뛰어난 샹클리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샹클리에게 있어서는 거리의 일반인들에게 찬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영예였다. 이러한 생각은 샹클리가 감독으로 있을 때 후배 축구선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며, 샹클리 부부는 첫 아이를 얻게 되었다. 글래스고를 떠나서 딥테일로 돌아오기 전에 샹클리는 뿌듯한 기분으로 그의 첫 딸 바버라를 품에 안았다. 1945년 봄 글래스고에서 태어난 바버라는 샹클리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네스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이는 바버라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며 딸애에게 헌신 했죠.'

그랬다. 전쟁 기간 동안 그는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그러한 깨달음을 - 그러한 경험들을 - 이후에 있을 새로운 인생의 무대로 가지고 갔다.

안 좋은 날들도 여전히 그 앞에 펼쳐져 있기는 하겠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 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랑스러운 프레스턴 - 형편없는 경영진들

환희로 넘치는 종전의 축하 분위기를 따라서 영국 축구도 다시 봄을 타기 시작했다. 1946년 8월 31일 일요일, 리그 축구가 시의 적절하게 다시 시작되자 사람들은 경기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경기장의 회전문이 돌아갈 때마다 대부분의 구장에서 기록적인 관중들이 들기 시작했으며 다가온 시즌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었다. 예전의 많은 선수들이 전쟁 기간 동안 이미 전성기를 놓쳐 버렸다. 일부는 군 복무 중 죽거나 다쳤으며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하였다. 전쟁 때문에 그들의 경력은 급작스레 중단되고 만 것이었다.

샹클리가 군에서 제대하여 다시 딥데일로 돌아왔을 때 프레스턴 팀의 경영진들은 이미 그의 빈자리를 대비하여 많은 선수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이미 30대 중반이 되었고, 아내와 아이도 있었으며, 약해진 무릎을 치료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팀의 유용한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청춘을 바친 팀에서 나오는 이러한 태도는 샹클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역시 완강하게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샹클리 가족은 딥데일에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는 집을 구했고 그는 경기를 펼 준비를 했다.

'그는 전성기가 지났어,'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는 이제 늙었어.'

샹클리는 이러한 세간의 평은 무시한 채 그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켈트인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샹클리는 다시 한 번 핀니, 비티 그리고 예전 동료들과 함께 프레스턴이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팀의 경영진은 리그 7위의 성적과 랭커셔 주의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패해 FA 컵 6라운드에서 탈락한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삼십 오세 되던 생일날 샹클리는 이제 더 이상 주전 팀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그는 2군 팀에 남는 일을 생각 해야만 했다. 보다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이 꾸려졌다. 그래도 프레스턴 팀의 경영진들은 팬들과 직원들 사이에서의 그의 인기를 팀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는데 그들은 보다 더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팀의 사기를 유지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젊은 토미 핀니는 딥데일에서 팀의 그런 백전노장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마치 은퇴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가 현역으로서 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가 겪었던 전쟁 때문에 많은 다른 선수들처럼 그 역시 선수로서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 버렸으며 만약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가 실제로 받았던 메달이나 국가 대표 경기에 참가하여 받은 모자들과 찬사들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성취했을 것이었다. 상클리는 16년 동안이나 팀에 헌신했었기에 팀이 그의 뒤를 든든하게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팀은 그에게 '자네가 있어서 정말 좋았었네 -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주전 선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만약 여기서 주전으로 뛸 수 없다면 축구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었다.

프레스턴은 그에게 삼년 동안 리저브 팀과 유스 팀을 지도해 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자존심이 강한 상클리는 그것 보다는 자신이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느꼈다. 왜 그가 교만하고 자기주장에 가득 차 있으면서 관심이 라고는 오직 팀의 은행 계좌 잔고에만 있는 경영진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나?

그는 캐그니 스타일로 어깨를 으쓱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혈관 속에는 거친 레이스를 펼치는 순종 말의 고동치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사람으로서 그는 소위 '프레스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사람들 전부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충성심과 열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젊었고 변호사, 정육점이나 베이커리,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축구가 단지 돈으로 하는 사업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그는 프레스턴 유스 팀을 가르치는 일을 즐겼으며 물리 치료 코스도 이수했

다. 프레스턴 팀은 그에게 유스 팀의 코치직과 스카우터, 그리고 물리 치료사의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샹클리는 딥데일에서의 남은 시간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생각하였으며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 길로 나서기로 결정했다.

16년의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난 뒤 샹클리는 그가 금전적으로 충분한 은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선수가 한 팀에서 오년 이상 뛴 경우 매 해 백오십 파운드의 은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 당시로서도 칠백오십 파운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데일에서 삼백 경기가 넘는 리그 경기와 컵 대회 경기를 치러낸 샹클리는 그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평균적인 축구 선수들의 연봉을 받으면서 고생을 한 셈이었고 육년 동안은 군복무를 하면서 그마저도 크게 줄어들었다.

만약 그가 딥데일에서 리저브 팀 코치와 물리치료사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은퇴 기념 경기와 수당이 다 포함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가 날아들었다.

코치로서 일하게 된다면 그는 딥데일에 삼년동안 더 남아있어야 했다. 샹클리는 분노했다. 프레스턴은 이제 더 이상 주전 선수로서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다른 어떤 팀도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몇몇 구단에서 샹클리를 감독 겸 선수로 데려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대한 프레스턴은 충성심이나 오랫동안 팀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위대하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 샹클리는 칼라일 유나이티드로부터 온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고 1949년 3월 19일자로 브런튼 파크의 감독 자리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샹클리가 팀을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정황들을 알고 있던 팬들은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백육십구 파운드 오 실링 칠페니를 모금했다. 그동안 프레스턴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그에 대한 감사의 제스처이자 그들의 영웅에게 비열한 대접을 해서 자랑스러운 프레스턴 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단의 경영진들에 대해 일반 팬들이 느끼고 있는 경멸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팬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팬들은 영원하지만 경영진들은 한 달 안에도 떠날 수 있다.' 그가 은퇴하는 날, 많은 다른 구단의 팬들이나 감독들, 예전의 라이벌들, 현역 선수들로부터 그에 대한 헌사가 쏟아졌다. 프레스턴의 일반 시민들도 모여서 그가 앞으로 칼라일에서도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기를 기원 했다.

그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조 머서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자네가 은퇴한다면 몇 마디 축하의 말과 행운을 빌어줘야겠네. 자네가 앞으로 감독으로서도 선수로서 성공했던 것만큼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네. 내 보잘것없는 생각이네만, 팀과 조국과 그리고 축구를 위해 자네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친 선수는 없을 거야.'

많은 감사장들이 도착했다. 네스는 이사를 위해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결코 상클리 가족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없었다.

돌이켜 봤을 때 아마 상클리는 1949년 5월 프레스턴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자 특의에 찬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팬들에게는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프레스턴 노스 앤드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은 형편없는 인물들이었다. 축구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상클리를 대함에 있어서도 고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아마추어 같았던 그 프레스턴의 구단 경영진들이 팀을 다시 2부 리그로 추락시켰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칼라일로 돌아오다

1949년 5월 22일 상클리는 칼라일에서 선더랜드의 감독 겸 선수로 팀을 옮긴 이보르 브로아디스를 대신하여 만 팔천 파운드를 받고 공식적으로 칼라일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되었다.

칼라일 팀은 젊고 항상 운동복을 입으며 이제 막 선수로서 은퇴한 상클리를 감독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고 예전에 팀에서 윙 하프의 포지션으로 뛰었던 그가 다시 한 번 팬들을 경기장으로 몰려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레스턴에서 제시한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급여였지만 상클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는 데는 충분했다. 칼라일은 또 글래스고나 글렌벡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삼촌인 빌 블리스도 여전했기에 그는 이곳의 감독 자리를 수용했고 마치 공사장의 심장처럼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그와 그의 가족들도 안정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칼라일에서 가족들이 같이 살 집이 마련될 때까지 네스와 바버라는 글래스고로 가있기로 하였다. 3부 리그에서 겨우 7번의 리그 경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감독직을 시작했지만 상클리는 첫 우승 트로피를 브런튼 파크로 가져 왔는데 바로 감독직 첫 해에 컴브리안 컵에서 우승을 한 것이었다. 첫 시즌은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좋지 않았다. 비록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는 했지만 칼라일은 하위권에서 시즌을 끝마쳤다.

영국의 상황은 여전히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축구를 통해 일상의 탈출구를 찾는 일은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었다. 리그와 컵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의 수가 늘어났다. '원정 응원단'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다. 가솔린은 여전히 배급제로 공급되고 있었고 자동차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충분하지 못한 급여는 버스나 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어떤 원정 경기에도 그곳 현지 관중들만이 경기장을 메우게 되는 것이었다. 지역의 축구팀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을 차지하게 되었다.

칼라일도 이웃끼리 서로 의지하고 한 사람의 승리가 곧 마을 전체의 승리가 되는 글렌벡 모델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서는 정직함과 충성심이 중요했다. 구단은 주민 전체를 대표하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탈출구를 제공해 줄 것이었다 - 흥분과 오락 그리고 즐거움. 선수들은 팀을 위해 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이 공동체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자랑스러움이다.

이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팀의 유니폼을 구입하는 일이다. - 당신이 만약 칼라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에 걸맞게 잘' 갖춰 입어야 한다. 아버지 존의 오래된 교훈 역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브런튼 파크는 샹클리가 팀을 떠나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황폐한 상태였다. 만약 구단이 칼라일 시민들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면 구장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필요했다. 스탠드서부터 탈의실까지 그리고 선수들부터 자발적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새 감독의 주도하에 봄철 정화 작업과 일신 작업이 시작되었다.

샹클리는 부지런한 인부들을 이끌며 경기장 청소는 물론 페인트 작업 및 각종 개보수 작업을 주도했다. 새로운 감독 사무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팬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구단의 일을 함께 의논해도 좋다는 격려를 들었다. 샹클리와 언론들과의 관계도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투명한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샹클리는 구단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일반인들이나 언론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단합된 마음이 생겨나고 브런튼 파크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믿었다.

초기에 처음으로 계약을 해서 데려온 선수는 프레스턴에서 샹클리와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팀 동료 패디 워터스였다. 처음 브런튼 파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워터스는 샹클리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구단으로는 아무 것도 성취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샹클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해서 비록 나이는 좀 들었지만 재능이 있는 더블린 출신 윙 하프를 설득시켜 팀에 합류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영입 선수로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빌리 호건과 조프 투웬티맨이 있었다. 투웬티맨은 나중에 리버풀에서 다시 샹클리와 만나게 된다. 웨스트 햄에서 조지 덕도 영입하면서 칼라일의 주전 팀은 이미

기량을 검증받은 신뢰할 수 있는 노장들과 스코틀랜드 출신의 떠오르는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코치로서는 적절하지 않게도 상클리는 그의 팀에게 단 한가지만을 강조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다...기본에 충실해라. 지금 너희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상클리는 당시 축구 훈련의 특징이었던 구보를 금지시켰다. 그 대신 지구력 훈련이나 몸을 만드는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훈련을 보다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체력 강화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하였기에 훈련 시간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는 마을의 고용주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가운데 구단에서 비상근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상근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 상클리는 선수들이 스탠드 위 아래로 왕복 달리기를 한다든가 구장 내부를 구보하면서 돌던가 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축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축구를 평정한 헝가리 팀도 공을 다루는 기술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잔디 위에서 경기를 할 것이므로 잔디 위에서 훈련도 해야 한다.' 그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몸을 만들기 위한 훈련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 공을 다루는 기술이나 헤딩 기술, 드로우-인 기술, 코너킥 연습 등 축구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훈련하게 될 것이다.'

선수들은 타고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되었으며 최대한의 에너지와 공지를 가지고 재능을 키워나갈 것을 요구 받았다. 상클리식 훈련 방법은 한편이 다섯 명씩 구성된 축구 시합을 몇 시간씩이고 계속 한다든지 머리로 하는 테니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고 공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들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나는 선수들이 스탠드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축구 팬들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공을 가지고 시합을 한다. 따라서 공을 가지고 훈련을 할 것이다.' 전후 영국 축구의 훈련 방법에 있어서 일대 혁신이었다.

주전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던 칼라일 팀에서 대단한 팀 정신이 발휘되었다. 강한 리저브 팀도 구성이 되었었는데 상클리는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주전 팀의 선수들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샹클리는 브런튼 파크에서 팀 내 의사소통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냈는데 바로 클럽 콜 (club call)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대를 앞서나간 것으로서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 내의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여 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었다. 샹클리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날의 출전 선수들을 알려 주거나 구단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거나 했으며 일반적으로는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샹클리 방송' 시간은 특히 팬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방송을 들으려고 경기장을 찾기도 했다.

이런 샹클리의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나는 팬들에게 구단을 응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미 충분한 응원을 받고 있다. 나는 단지 팬들이 구단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려 하는 것뿐이다.'

팀을 맡은 지 몇 달 만에 샹클리는 칼라일 사람들이 팀의 앞날에 대해 기대를 갖고 떠들썩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요인'이 구단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새로운 대중 매체와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과 구단의 언론 담당자가 되었다. 그리고 굳건한 노력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칼라일 유나이티드가 18년 구단 역사상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확실한 실권을 잡고 있었다. 구단과 관련이 있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의 관여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없었다. 도시 안에서 그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구세주를 만났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자신감과 헌신으로 인해 구단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브런튼 파크의 별명이었던 '나무로 만든 큰 토끼우리'(The big wooden rabbit hutch)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더라도 그들의 훈련과 지도 방식은 보다 현대적이었다. 팀은 조직이 잘 짜여졌다. 샹클리가 감독직 계약을 했기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칼라일은 축구에 있어서는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이 북서

부의 철도 도시는 축구 인생을 시작하고자 갈망하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상위 리그에서 하위 리그로 내려오는 노장 선수들 역시 많이 영입하지 못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는 했지만 팬들은 혁명적인 성과가 있기까지는 몇 시즌이 더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팬들이 브런튼 파크로 몰려들고 있었다. 1949년 - 50년 시즌에는 경기당 만 오천에서 만 팔천 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잘 조직된 축구,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축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 샹클리의 생각이었다. 그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선수들은 오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뛰는 선수들 가운데는 이곳 출신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칼라일은 지형적으로도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국에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상대팀이 이곳으로 원정 경기를 오는 것도 긴 여정이었다.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샹클리는 선수들에게 원정팀은 이런 긴 여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브런튼 파크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두 진이 다 빠져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도 팀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곤 했다. 축구에 열광하는 팬들의 응원이 곁들여져서 '브런튼 요새'는 원정팀에게는 힘든 경험이었다.

1949년 - 50년 시즌은 좋게 출발했지만 원정 경기의 긴 여정이 문제였다. 칼라일 선수들은 홈경기는 아주 잘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긴 여정으로 인한 피로감을 드러내며 겨우 몇 경기 승리를 건져내는데 그쳤다.

칼라일 타운의 상징과 모토는 '정정당당하고 두려워하지 마라'였는데 칼라일 유나이티드가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 팀의 유니폼 상의에도 이 문구를 집어넣었다. 술집 주인들이나 호텔 직원들도 혹시 한두 잔 하려고 업소에 들르는 선수들이 있거나 않은지 잘 지켜봐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샹클리의 팀에 대한 헌신이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네스가 회상하기를 한번은 샹클리가 회사의 비용으로 집에 세탁기를 하나 설치했는데 선수들이 유니폼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세탁하기 위해서였다. 팀을 정비하고 있던 시기에 칼라일은 9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 시즌보다 조금 상승

한 순위였다. 1950년 - 51년 시즌의 입장권 판매는 기록적이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샹클리가 만들어놓은 전염성이 강한 긍정적인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했다. 비록 다시 상위 리그로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시즌은 흥미진진했고 팀은 3위의 성적을 올렸는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었다.

그 시즌 FA 컵 대회에서는 드라마가 있었다. 버로우 팀과 사우스포트 팀을 연파한 샹클리 군단은 하이버리 구장에서 강력한 아스날을 만나게 되었다. 샹클리는 특유의 심리전을 발휘하여 언론에다 칼라일이 승리할 거라고 말하였다. '아스날? 아스날이 어떤 팀이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영국 축구계는 샹클리의 선수들이 런던에서 강력한 아스날 팀과 0 대 0으로 비기자 깜짝 놀랐다. '요새 브런튼 파크'에서는 자신들의 팀이 강력한 상대팀을 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넘쳐났다.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을 때 샹클리가 탈의실로 들어와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이봐, 방금 아스날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 병원에라도 가야 될 것 같아. 아주 상태가 불만 하더군. 센터 포워드란 놈은 아예 걸지도 못하던데.' 이런 식으로 자기 팀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상대 팀 선수들을 꺾아 내리는 것은 10년 뒤 리버풀 감독으로 있으면서도 계속된 샹클리의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실력은 경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스날은 4 대 1의 승리를 거두었고 브런튼 파크를 꽉 채운 관중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물하였다.

'제군들,' 경기가 끝난 뒤 샹클리가 선수들에게 말했다, '제군들은 지금 영국에서 가장 강한 팀에게 진거다 - 하지만 그들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까지 두 경기나 치러야 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칼라일 선수들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이 철도 마을의 무대는 샹클리에게는 너무 작았고 그는 결코 그곳에 오래 머무를 운명이 아니었다.

흥미진진했던 두 시즌이 지났고 그 두 시즌동안 팀은 거의 2부 리그로 진출할 뻔했다. 그러나 팀을 둘러싸고 있는 재정적인 제약이 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경쟁하는 최고의 팀을 만들고자 하는 샹클리의 야심을 현실로 만들어 주지 못하게

할 거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림스비 타운은 상클리가 감독으로서 시도했던 초창기의 노력들과 그의 스타일 그리고 그가 이뤄낸 성과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상클리와 간절히 계약하고 싶어 했다.

1951년에는 리버풀에서도 상클리에게 당시 공석 이었던 감독 자리를 놓고 면담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는 리버풀 감독 자리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확신했으나 운명은 그를 빗겨갔다. 그 대신 돈 웰시에게 리버풀 감독 자리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상클리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가 석공 출신인가?' 그렇다는 대답들 듣자 다음과 같이 멋지게 응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구먼.'

상클리가 다시 칼라일을 떠나서 팀을 옮기려 하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네스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칼라일에서 둘째 자넷이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북부 링컨셔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남편을 굳게 믿고 남편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던 네스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생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상클리가 칼라일을 떠나는 과정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더 큰 일을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브런튼 파크에는 상클리가 칼라일에 기여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칼라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클리와 선수로서 또 팀의 감독으로서 맺었던 인연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명예를 가져다주었고 전후 공황의 시기에 희망을 선물하였다.

칼라일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느 날 시내 중심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상클리와 몇 명의 학생들이 마주치게 되었다. 감자 칩을 잔뜩 사든 상클리와 아이들은 가게 밖 보도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그와 그의 선수들이 칼라일에 축구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까지 오를 것인지 얘기를 나눴다.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자신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 주는 동안 아이들의 눈은 커졌고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언젠가는 브런튼 경기장이 오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으로 변모하게 되고 그들의 팀이 토트넘, 아스날,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원정팀들을 물리치는 광경을 그려보았다.

상클리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언젠가 그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리버풀의 어린이들에게도 똑 같은 꿈이 주어질 예정이었고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이었다.



또다시 떠나다

그림스비 타운은 샹클리를 감독으로 맞이하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블런델 파크는 한 때 1부 리그의 팀의 구장이었으며 비록 3부 리그로 강등되기는 했지만 그림스비 타운 FC는 다시 치고 올라갈 야심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팬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지난 시즌들 동안 팀이 침체에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봐 오지 않았는가? 어떻게 축구 변방 칼라일에서 온 초짜 감독이 구단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그림스비 타운은 항만 도시로서 어업과 인근에 있는 클리서프스(Cleethorpes)가 전후에 휴양지로서 각광받으면서 관광 산업이 주가 되는 곳이었다. 그림스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단에 대한 희망을 거의 버린 상태였다. 블런델 파크의 사기는 항상 떨어져 있었고 선수들이나 구단 직원들도 그냥 마지못해 경기를 하는 실정이었다.

샹클리는 전형적인 그만의 방식으로 구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일으켰다. 그가 온지 일주일 안에 전염성 강한 그의 열정이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구장의 잔디를 담당하는 관리인은 샹클리가 모든 훈련을 잔디 위에서 진행하겠다고 고집하자 기분이 언짢아졌다. 구단의 경영진들은 더 이상 선수들의 탈의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다시 한 번 샹클리는 제한적인 자금력을 가지고 기존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발생한 팀의 취약 포지션에 대한 선수 보강 작업에 착수했다. 지미 헤논이 볼튼에서 이적해 왔고, 월터 켈브라이스가 뉴 브링턴에서, 빌 브라운이 퀸 오브 더 사우스에서 이적해 왔다. 명성을 누리고 있는 선수들, 검증된 노장들이 젊은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영입되어 왔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샹클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그가 몇 시즌 안으로 팀을 상위 리그로 올려놓지 못한다면 그림스비는 영원히 무명 팀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림스비의 주전 선수들은 나이가 많았다. 상클리는 그들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했고 젊은 선수들을 찾아내서 영입할 때까지 노장 선수들이 계속해서 활약하도록 해야만 했다. 칼라일에서의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해서 상클리는 곧 그림스비 선수들이 하나의 단합된 조직으로서 경기를 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한 번 장내 마이크로 방송이 시작되었다. 구단과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언론 담당자로서의 그의 능력이 다시 발휘되었다.

선수들을 달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한편으로 상클리는 상대편 선수들을 깎아 내리는 심리전을 계속했다. '스피드가 형편없다.' '상대방 센터 포워드가 90분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골키퍼가 손에 봉대를 감았더라!' -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자기 팀 골키퍼에게는, '걱정하지 말게, 만약 상대팀 공격수가 돌파 들어오면 페널티 박스 경계선 까지 달려 나가 팔을 짝 펼치고 소리치란 말이야, '슛 해봐, 이 자식아, 슛 해보라고!' 샘 바트람이 했던 식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격려를 받은 그 골키퍼는 칠 주 동안이나 무실점 행진을 계속했다.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강조하고 사전에 동작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상클리의 훈련 방법은 맷 버스비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촬영 기사를 데려와서는 그림스비 팀이 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런 촬영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블런델 파크의 감독은 그들을 곧 바로 올드포드로 되돌려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 작전이나 신경 쓰시오.'

첫 시즌에 그의 팀은 단지 아홉 경기만을 내주었고 승격에 3점이 모자라는 수준까지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리그 2위를 기록하였다. 그 시즌의 우승팀은 그림스비의 이웃 도시인 링컨 시티의 차지였는데 링컨 시티는 FA 컵 2라운드에서도 그림스비를 3 대 1로 물리치면서 팀의 컵 대회 우승의 꿈을 무산시켰다.

상클리의 카리스마는 곧 팬들을 다시 블런델 파크로 불러 모았다. 1952년 - 53년 시즌동안 관중 수는 두 배로 늘었으며 매 경기 만 오천 명에서 이만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상클리의 철학은 간단했다.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게 하라. 그리고 그 수입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라.

그는 필사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수혈해서 노쇠한 포지션을 보강하고자 했다. 그와 동시에 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림스비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젊은 선

수들이 영입되었다.

1952년 - 53년 시즌이 끝났을 때 그림스비는 기로에 서 있었다. 그가 칼라 일에 있을 때 다져놓은 기술들을 활용하여 구단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 올리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진력을 이어 나갈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림스비의 경영진들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구단과 도시의 자부심을 끌어 올리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감독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수입도 늘고 있고 아마도 감독이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게 아닌지 모르겠소.' 샹클리가 감독을 맡은 두 번째 시즌에 팀은 순위가 7위로 떨어졌고 FA 컵 대회에서는 베리 팀에게 져서 3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샹클리는 구단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오랫동안 팀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블런델 파크에 영광을 가져다주는 일에 헌신하고자 생각했기에 적어도 구단 쪽에서 무언가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림스비 경영진이 냉소주의에 휩싸여 있고 아무런 야망도 없으며 응원해 주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문제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또 다시 아마추어들이 어느 누구도 아닌 꿈을 공유하고 있는 팬들로부터 나온 돈을 쓰기를 주저하면서 팬들의 희망을 꺾어 버리고 있었으며 잠재력이 충분한 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샹클리는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네스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다. 링컨셔에서 애들을 데리고 글래스고나 글렌벡으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고 남편이 특유의 활기나 쾌활함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걱정이 되었다.

샹클리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글렌벡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았던가?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길로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면서 그림스비의 구단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그는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할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그림스비 타운이

계속해서 하위 리그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 만약 팀이 보다 더 나은 구단, 결과적으로 더 나은 도시가 되겠다는 야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팀의 감독으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상클리의 활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본인 삶의 원칙이 남들을 당당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스스로 믿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 감독에게 있어서 그림스비 경영진들이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힘이 빠지는 일이었다.

195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 있고 난 뒤 상클리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1953년 - 54년 시즌에 도전했다. 그는 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클리는 선수들과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이번에는 경영진 쪽에서 팀의 좋지 않은 성적이 감독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 말하자면 선수들이 제대로 된 전술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선수들이 감독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감독이 확실하게 팀을 장악하지 못해서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안했고 그것이 승점을 챙기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마침내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이었다. 그림스비 이사진의 지원과 신뢰가 없다면 그의 블런델 파크에서의 감독 생활은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몇몇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의를 받았고 거의 미들즈브러 팀으로 갈 뻔했다. 미들즈브러에는 떠오르는 젊은 스타 브라이언 클로우가 있었고 그와의 만남은 의심의 여지없이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었다.

상클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나 1953년과 54년 시즌의 새해까지 미래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였다.

그림스비의 경영진들은 상클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싶어 했지만 감독 스스로 먼저 자신을 추스르고 경영진이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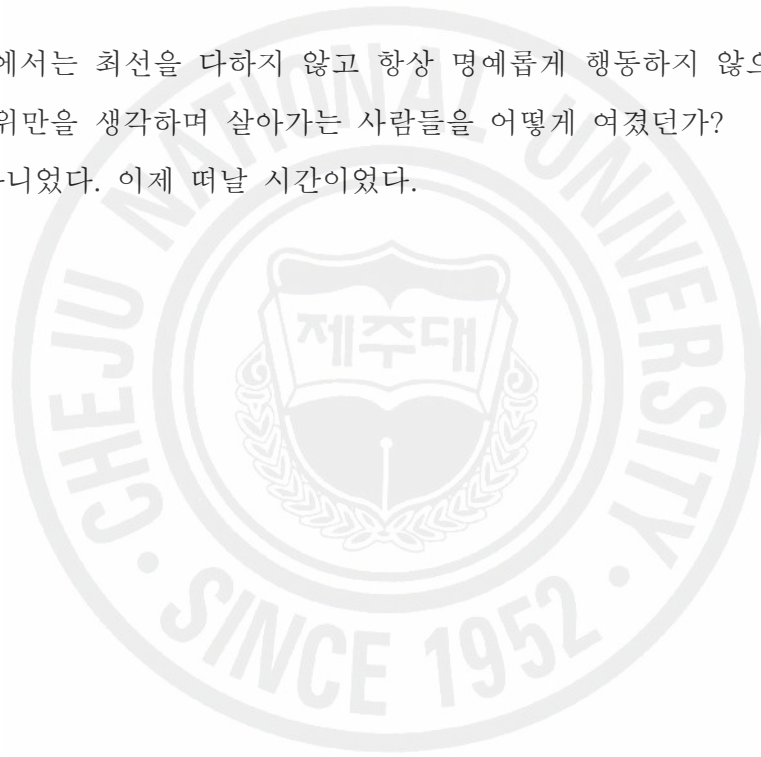
다시 한 번 경영진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상클리는 경영진이 그가 부임한 첫 시즌에 팀을 리그 3위 이내로 올려놓을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의 원인은 경영진들의 모함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감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팀의 부진한 성적을 감독 탓으로 돌렸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일로 인해 상클리는 1954년 새해 첫날 감독직을 사퇴했다.

상클리는 단지 경영진들 비위를 맞추면서 월급이나 받고 그럭저럭 팀을 꾸려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상클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은 힘든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어렵게 번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아주는 일반 사람들이었다.

글렌벙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항상 명예롭게 행동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던가?

이건 아니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가스등 옆에서

1월 6일 상클리는 워킹턴 타운 AFC의 감독직에 취임했는데 2년이라는 짧은 팀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감독이 된 것이었다.

창단 첫 해를 3부 리그의 맨 마지막 순위로 마감한 팀은 상클리가 감독직을 맡았을 때는 3부 리그 밑에서 두 번째 순위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워킹턴의 경영진들이 상클리와 계약할 때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팀이 운동장을 지역의 럭비 팀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도 경기장의 난방과 조명에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상클리는 처음 보로 파크를 방문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전기 스위치를 찾기 위해서 벽을 더듬고 있었는데 어떤 사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야, "무엇하고 있는 게요?" "불 좀 키려고 합니다." 내가 말했지. "여기서는 가스를 쓰고 있대요." 사내가 말하더군. "제기랄, 가스라고!" 내가 말했어.’

밖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자 상클리는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단 말인가?

비록 워킹턴에서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상클리는 여기에서도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다. 팀의 상황을 개선해 보자는 진실 된 마음에서 몇몇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했다.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며 헌신적이고 열심히 뛰고 있는 팬클럽도 있었다. 가족들을 위해서 클럽 하우스가 제공되었다. 네스와 아이들은 북서부에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게 쉬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클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한 번 팀을 위해서 그의 정열을 바치기 시작했다.

위킹턴의 인구는 삼만 명이었다. 눈앞에 놓인 과제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럭비 리그로부터 팬들을 끌어 모으는 일이었다. 열성 팬들로부터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는데 그들은 운동장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스탠드를 보수하고 잔디를 깎거나 벽돌 공사를 하는 데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샹클리의 존재는 그곳 선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선수들이 감독의 열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팀은 강등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1953년 - 54년 시즌을 25개 팀 가운데 20위로 마감하였다.

샹클리는 시즌 후 여름을 팀의 재정비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보냈다. 새로운 감독에 의해 새로운 훈련 방법들이 도입되었고 샹클리는 모든 기술과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씩 하나씩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샹클리의 열정과 낙관주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보로 파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 주된 이유는 도대체 뭇 때문에 이 난리들을 피우고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샹클리의 선수들은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1954년 - 55년 시즌에 축구에 있어서는 보잘 것 없었던 이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상승하여서 그들의 리그에서 8위를 차지하였다.

샹클리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이때 발생했다. 위킹턴 팀이 FA 컵 2 라운드에서 레이튼 오리엔트 팀을 상대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마침 햄튼 파크에서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팀을 4 대 2 로 누르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있던 유명한 50년대 헝가리 국가 대표 팀과 동승하게 된 것이었다.

자신들이 탄 기차에 헝가리 국가 대표 팀이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샹클리는 유명한 푸스카스 선수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팀 선수들을 이끌고 그들을 찾아갔다. 서로 선수들을 소개한 뒤 샹클리는 푸스카스, 히데구티, 코식스와 다른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자신들도 런던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런던까지의 남은 여정을 함께 보낸 헝가리 대표 팀 선수들과 위킹턴 타운 선수들은 급속도로 친해졌다.

워킹턴은 오리엔트 팀을 1 대 0으로 눌렀으며 그 경기는 FA 컵 최대의 이변이었다. 그들의 승리는 샹클리가 팀 선수들을 새롭게 친구가 된 동유럽의 헝가리 대표 팀 선수들에게 소개시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헝가리 대표 팀도 워킹턴 타운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듣고 보로 파크로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워킹턴 팀이 레이튼 오리엔트 팀을 맞아 역사적인 FA 컵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합니다.'

샹클리에 따르면 그때의 여정이 선수들에게 '그 날 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컵 대회에 돌풍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다음 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에게 5 대 0으로 대패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과 FA 컵에서의 선전은 그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끼쳤다.

워킹턴의 리저브 팀은 '샹클리의 아이들'이라고 알려졌는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어 매 경기 삼천 명 이상의 관중들을 끌어 모았다. 럭비 선수들은 축구팀이 그 정도의 팬들을 끌어 모으자 매우 놀랐다.

어린이들이 샹클리의 팀에 참여하고 싶어서 떼를 지어 보로 파크로 몰려들었다. 지역의 아마추어 축구팀들과 학교 팀들은 워킹턴 타운 팀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샹클리가 그들 가운데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웨스트 컴벌랜드의 사람들은 워킹턴 타운 팀의 성공에 열광적으로 반응하였다. 주로 농업과 경공업에 의존하는 이곳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에 대한 환상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입장료만큼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고 있었고 또 그만큼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워킹턴 타운 팀이 상위 리그로 진출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보잘 것 없었던 팀의 출발에 비해서 만약 그들이 상위 리그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샹클리 자신도 워킹턴에서는 팀이 상위리그에서 경쟁할 만한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러웠다. 어쨌든 그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그가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는 감독이 아니라 구단의 경영진들이 주전 선수들을 선발하고 있었다. 이 관행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중단되었다. 경영진들

또한 상클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근 선수들에게 최소 급여와 상여금으로 매주 십사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상클리는 현재 보로 파크에서의 계약 아래에서는 그가 다른 팀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재충전과 열정을 다시 불사를 만한 계기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진들과 상클리 사이에 또다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뒤 팀을 떠나야겠다는 그의 결정은 더욱 빨라졌다.

1956년 - 57년 시즌 초반 워킹턴 타운 팀은 4위의 성적을 내고 있었고 잘 싸우고 있었다. 상위 리그로의 승격은 현실성이 있는 목표였고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수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클리는 다시 한 번 절망적인 경영진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마주쳐야 했다. 그들은 팀의 성공이나 불어난 자산 그리고 홈팀 경기를 찾는 많은 관중들에게도 불구하고 팀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경영진들은 만약 그에게 자금 지원이 가능하려면 경기장 입장권의 가격을 올리든가 선수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마지노선 이었다. 다시 한 번 상클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경영진들은 진정으로 상위 리그로의 승격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것은 단지 홈 경기장에서 얻어지는 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워킹턴이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동안 상클리는 예전 동료였던 앤디 비티의 초청으로 며칠 휴가를 내어 그가 감독으로 있는 허더즈필드의 초청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상클리는 다시 한 번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신이 나서 허더즈필드로 출발하였다. 비티는 재능 있는 코치와 감독을 도와줄 부감독이 필요했고 상클리에게 1부 리그에 속해있는 자신의 팀으로 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워킹턴에서 십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경기장과 잔디 시설을 개보수 하고 팀의 승격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여 선수들을 영입하라고 했다면 그는 보로 파크에 계속 남아서 자신의 임무를 계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영진들은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무척 당황했지만 상클리와의 결별은 우호

적이었다. 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아주 컸기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보로파크 내에 빌 상클리 라운지를 공식적으로 여는 행사에 상클리를 초청하였다.



'강점은 잊고 약점은 보완하라'

앤디 비티는 상클리가 프레스턴 시절 어린 선수들과 의사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허더즈필드 타운은 20년대와 30년대에는 큰 성공을 맛보았으나 최근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1951년 - 52년 시즌에는 2부 리그로 강등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시즌에 다시 그들이 원래 자리인 1부 리그로 복귀하였다. 팀은 1955년 - 56년 시즌에 다시 고전을 하고 있었고 비티는 팀이 4년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다.

상클리의 역할은 리저브 팀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미래의 스타들을 발전시키는 일도 맡게 될 예정이었다. 상클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비티는 불행하게도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비티와 상클리는 팀 운영을 놓고 여러 부분에서 마찰을 빚었는데 상클리는 주전 팀의 전술이나 훈련 방법, 선수 구성에 대해서 종종 비판을 가했다. 비티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상클리의 임무는 리저브 팀을 운영하는 것이며 그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곤 했다.

주전 팀이 2부 리그 강등의 길로 힘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 상클리의 리저브 팀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팀의 경영진들과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데니스 로, 마이크 오그레디, 레이 윌슨 같은 선수들이 허더즈필드에서 상클리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었는데 그들은 허더즈필드의 리저브 팀에서 많은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가 대표 팀의 일원으로도 활약을 했고 축구의 우상이 되었다.

비티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상클리는 허더즈필드의 주전 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젊은 선수들은 상클리의 지도아래 잘 풀리고 있었고 능력 있는 감독의 말에 아낌없이 복종하고 있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충족되는 환경 속에서 상클리의 아이들은 쑥쑥 기량이 발전하고 있었고 그들의 감독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축구라는 경기에 있어서 그들의 미래 역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허더즈필드는 1955년 - 56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

다음 시즌의 출발도 결코 좋지 못했다. 허더즈필드의 주전 팀이 2부 리그의 초반 경기들에서도 패배를 하기 시작하자 경영진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클리의 재미있고 활기찬 리저브팀 선수들은 1군 선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경기와 열정은 팬들로 하여금 주전 팀의 경기를 보는 것보다 리저브 팀의 경기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까지 하게끔 만들었다. 실제로 주전 팀이 리저브 팀이 돼야 하고 상클리의 리저브 팀이 주전 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의 전술에 대한 비난을 잘 간파하고 있던 비티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영진들에게 사의를 표시했지만 이사회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진 채 그를 계속해서 감독직에 머무르게 했다.

그러나 1956년 11월, 인근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4 대 1로 진 것 까지 포함하여 팀이 리그에서 세 경기를 연속으로 패하자 비티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경영진들도 그의 사퇴를 받아들였다. 비록 그동안 비티와 상클리가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빚기는 했지만 비티는 경영진들에게 상클리를 주전 팀의 감독으로 쓰는 것이 팀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상클리는 허더즈필드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다. 그와 네스는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고 상클리는 즉각 감독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1956년 11월 5일, 그는 감독직을 맡고 나서 지역 언론에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클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나 어떤 예상도 미리 하지는 않겠다. 선수들이 백퍼센트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내가 선수였을 때 나는 그렇게 경기를 했으며 그것이 내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전부다...나는 선수들이 허더즈필드 타운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바란다.'

리즈 필드를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곧 걷혔다. 감독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클리는 허더즈필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명성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팀도 리그 경기 및 컵 대회에서 원래의 위상에 걸맞은 위치를 되찾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아무튼 상클리가 그동안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들의 재능들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저브 선수들을 잘 육성해 오지 않았는가?

초기의 결과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관중들이 다시 경기장을 찾기 시작했다. 1956년 12월 26일, 그때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데니스 로가 노츠 카운티를 상대로 리그 데뷔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데이브 힉슨은 꾸준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젊은 선수들은 상클리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신뢰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라.' '자신의 강점은 잊어버려라,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나 젊은 축구 신동들의 자신감만으로는 1부 리그 재진입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허더즈필드는 중위권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상클리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리저브 팀의 어린 선수들을 너무 빨리 리그 경기에 내보낸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좀 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그의 반박은 항상 '실력이 충분하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펴 준비가 된 것이다.'였고 상클리의 친구이자 같은 고향 출신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맷 버스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지도 방법이나 철학은 상클리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상클리는 프레스턴, 칼라일, 그림스비 그리고 워킹턴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 안에 감독으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구단에 있었을 때 상클리는 구단 경영진들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 업무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수 지도의 문제'를 놓고 바쁘게 보냈으며 선수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려하고 경기장의 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참석했다.

말썽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상대팀 감독들의 이미지는 상클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였다. 그는 결코 선수들로부터 샹클리씨라고 불리지 않았다. 빌이나 '보스'라는 칭호면 충분했다.

샹클리는 이곳 허더즈필드로 오고 나서야 지난 3년 동안 얼마간 잃어버렸던 유머 감각과 위트 그리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였다. 팬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내달라는 압력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선수들이나 구단 직원들은 새로 부임한 감독의 장난 끼와 악의 없는 농담 등으로 인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대화하였고 내용의 대부분은 축구에 관한 것이였다. 선수들이 말하거나 웃거나 농담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자신들의 상태나 다가올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였다. 샹클리는 말하곤 했다. '즐거운 구단이 성공적인 구단이다.'

절대로 선수를 비난하지 말라. 샹클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배울게 될 때는 - 그는 항상 자신이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주장했다 - 실수를 하게끔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건설적인 비판이나 격려를 받아야지 부정적인 질책을 받거나 실수 때문에 남으로부터 당혹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 자신에게 잘 적용이 된다면 똑 같은 논리가 그의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했다. 그는 한 번도 대중들 앞에서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었다.

1958년 - 59년 시즌은 그가 리즈 로드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이였다. 그는 자신의 선수들이 그해 리버풀에게 5 대 0의 패배를 안겨줬을 때 그가 곧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샹클리가 감독으로서 팀을 이끈 마지막 시즌에서도 허더즈필드는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비록 젊은 선수들이 잘 해주었지만 1부 리그의 감독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와중에 데니스 로를 계속 팀에 잡아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샹클리는 젊은 팀을 받쳐 주기 위해서 몇몇 새로운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더웰의 이안 세이튼 존 선수나 미들즈브러의 브라이언 클로우 선수가 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들로 언급이 되고 있었다.

던디 유나이티드의 장신 센터 하프 론 에이즈 선수는 샹클리가 그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떠오르는 스타 선수들을 데리고 '드림팀'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으

로 여겨졌다. 상클리는 이런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능력 있는 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보다 더 상위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허더즈필드의 경영진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리즈 로드 구장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들은 구장의 개보수나 투광 조명 설치, 사무실 집기 교체를 위한 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상클리에게는 계속해서 어린 선수들을 키우고 그의 에너지를 타 팀이 아닌 허더즈필드 출신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사이에 팀의 경영진들은 경기하거나 관람하기에 좋은 구장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상클리는 또 전반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재정을 돕고 새로운 구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팀의 스타 선수들을 타 팀에 이적시키는 것에도 동의를 해야 했다.

상클리는 데니스 로를 지키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설득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구단과 싸웠다. 불길한 조짐이 일고 있었다.

상클리에게 있어서 허더즈필드에서의 경험은 행복한 것이었다. 네스도 이곳 생활에 적응했고 바버라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상클리도 한결 여유로워졌는데 희망이 있는 팀을 만들어 낸 결과였다. 훌륭한 극장 시설 같은 문화 시설도 있었고 상클리 자신도 일요일마다 근처의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 글렌벡과 글래스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모두가 만족했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다시 부족한 자금 사정이 '가장 위대한 축구팀'을 만들겠다는 그의 시도를 좌절 시키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상클리는 그림스비에서 네스가 겪었던 행복하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 그는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그의 축구에 대한 야망을 조금 줄여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 딜레마는 마치 운명이 끼어들어 손을 쓰거나 한 것처럼 곧 끝나게 되었다.

칼라일이나 그림스비 그리고 위킹턴은 축구에 있어서는 변방이었지만 허더즈필드는 상클리에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보다 더 많은 축구계 사람들이 주목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보다 더 큰 구단들이 그를 찾았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상클리를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더즈필드에 타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1957년 10월 17일 허더즈필드와 카디프와의 경기가 끝난 뒤 역사는 새롭게 쓰일 예정이었다. 다른 구단을 물색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클리에게 두 명의 신사가 다가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구단의 감독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상클리가 재치 있게 말했다. '왜요, 맷 버스비가 짐이라도 썼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한 신사가 자신을 T.V. 윌리엄스라고 소개했다. 리버풀 구단의 회장이었다. 그와 같이 온 일행은 구단의 이사인 해리 래덤이었다.

톰 윌리엄스는 허더즈필드와 카디프와의 경기 90분 내내 상클리를 지켜보았다. 운동복을 입은 허더즈필드의 감독은 사이드라인에서 끊임없이 선수들을 둘러했고 매번 주심의 결정에 대해 입씨름을 벌였으며 그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선수들에게 지시할 때마다 선수들은 엄격하게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경기 내내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상클리의 열성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격찬을 들어온 리버풀 구단 최고 권력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리버풀 구단은 또 상클리가 가진 선수들과의 의사소통 기술과 구단과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다. 그들이 평가하기에 상클리는 리버풀 팬들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는 힘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기질과 카리스마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리버풀 팀은 지역 라이벌인 에버턴 팀이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안 그 밑에서 단역을 맡고 있었고 2부 리그에 머무르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빠지고 있었다.

매 경기 약 3만 명의 홈 팬들이 안필드를 찾았지만 팀이 리그 경기와 컵 대회에서 형편없는 플레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불만과 슬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리버풀 팬들은 에버턴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는데 에버턴 팬들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흡족해했으며 그것 말고라도 리버풀이 FA 컵 대회에서 리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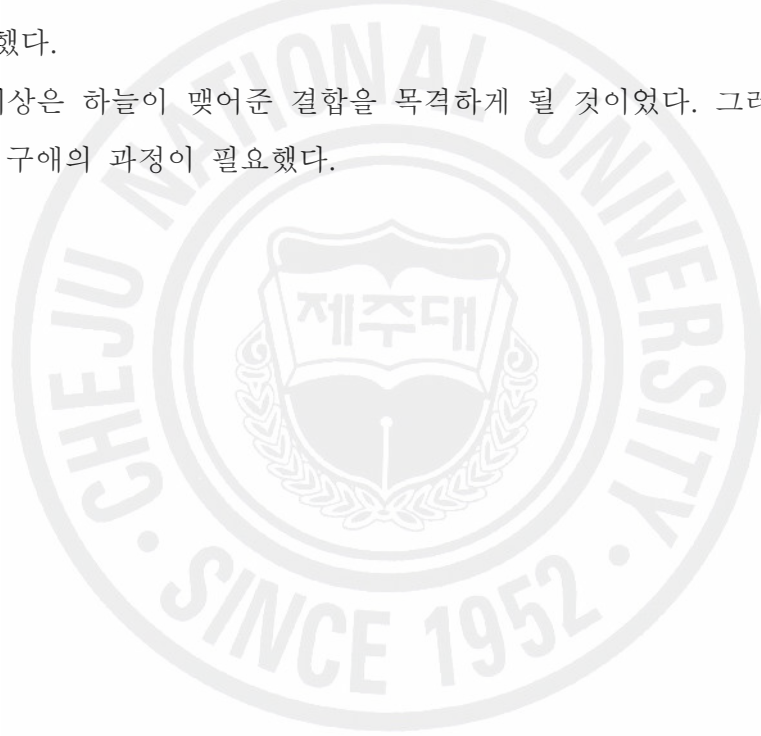
참가하고 있는 팀도 아닌 우스터 시티에게도 지는 등 라이벌 팀의 무기력함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리버풀도 훌륭한 구단이었다. 리그 챔피언도 다섯 차례나 차지했었고 안필드에서 뛰었던 축구 스타들 가운데에는 다름 아닌 빌리 리델 같은 위대한 선수도 있었다.

T.V. 윌리엄스는 상클리라면 리버풀을 다시 강팀으로 만들고 가장 뛰어난 수준의 축구를 구사하는 구단이라는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단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윌리엄스의 생각이 맞았다. 상클리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그의 평가도 아주 정확했다.

이제 세상은 하늘이 맺어준 결합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구애의 과정이 필요했다.



목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우다

샹클리가 안필드로 와서 초창기에 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묻자 론 에이츠는 다음처럼 대답했다. '그는 추락해가는 리버풀의 목덜미를 잡아서 다시 삶의 세계로 끌어올렸다.'

새 감독이 부임하던 1959년에 리버풀은 대혼란의 상태였다. 팀의 재정은 뻣뻣하고 돌아가고 있었으며 리버풀의 팬들은 팀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고 팀은 계속해서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관중석은 부서져가고 선수나 관중들을 위한 화장실이나 편의 시설도 부족했다. 주 관중석은 습했고 외풍까지 들어오는 실정이었다 — 새로 부임하는 감독은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자신의 오스틴 A40을 안필드 구장 뒤편에 주차시킬 때까지 구단이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샹클리 자신도 안필드에서 몇 번 경기를 해 보았지만 유명하고 오랜 된 이 구장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지지분한 곳이었다'라고 네스는 회상한다. 그녀는 왜 남편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기로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해졌다. 허더즈필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곳은 전혀 매력적이지가 못한 곳이었다. 그녀의 첫 인상에 리버풀은 고향 글래스고에서도 가장 음침한 지역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허더즈필드가 마음에 들었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 정말 내키지가 않았다.

이 시기의 리버풀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라는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1207년 존 왕에 의해 시의 지위를 얻은 이후 리버풀은 처음에는 아일랜드와의 교역을 통해 영국의 주요한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18세기에 리버풀은 노예 매매 산업에 있어서 유럽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들 중 하나였다. 머지강은 곧 커피, 차, 설탕, 초콜릿과 곡물들을 싣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거나 그곳에서부터 들어오는 배들로 북적거리게 되었

다. 여객선은 정착민들을 호주, 미국, 인도 그리고 극동 아시아 지역으로 실어 날랐으며 러시아, 독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 이민자들도 때를 지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선박 수리나 선박 건조가 도시의 주요 산업이 되었고 리버풀의 인구는 팽창해갔다. 1840년대 감자 기근을 피해 약 오십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안식처와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들어왔으며 부두 주변에 아일랜드인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다. 머지 강을 따라서 버컨헤드 지구와 월러시지구가 팽창하였고 1900년까지 리버풀 항은 40개의 항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영 제국의 무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조선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리버풀 자본주의가 번성함에 따라서 좋은 집들과 웅장하고 화려한 선박들 그리고 무역 회사들의 건물이 도시에 들어섰다. 번성하는 항구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일랜드 인들에 이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도서관, 극장, 시민 회관 같은 건물들이 고딕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머지 강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 지구들을 연결하는 도로, 전차 노선, 철도등도 건설되었다.

'항만 노동자들의 우산'이라고 불렸던 고가 철도는 약 6.5마일에 이르는 머지사이드 항만들을 모두 경유했으며 남쪽의 덩글 지역에서부터 북쪽의 시포스 항만까지 노동자들을 실어 날랐다. 항만 노동자들은 열일곱 개의 역에서 내렸는데 철도의 노선을 따라 하나의 항만에 하나의 역이 있었다.

리버풀은 벨파스트나 글래스고와 비슷한 도시였다. 잘 사는 사람들은 산업의 소음과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의 큰 저택에서 살았던 반면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가까운 좁고 자갈길로 된 거리의 연립주택으로 모여들어서 생활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리버풀은 무역항으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50년대와 60년대 무역의 패턴이 바뀌고 항공 운송업과 컨테이너 운송업이 등장하면서 잉글랜드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은 무역항으로서 불리한 입지에 놓이게 되었다.

항만 노동자로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리버풀의 호전적인 노조는 이런 침체의 시기에 그들의 일자리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이러한 것들

이 일반인들에게는 항만 노동자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무정부주의적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만들었다. 리버풀사람들은 게으르고 아무 때나 특하면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당연하게도 투자자들과 경영주들에 의해 심분 활용되었는데 그들은 부지런한 리버풀의 노동자들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유럽 대륙에 가까이 위치한 항구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상클리가 도착했을 때에도 비록 리버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선업과 공업이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버킨헤드는 첫 플라리스 잠수함 건조를 수주하였고 시의 지도층 인사들은 포드 자동차 회사를 헤일우드 공업 지대로 유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선박들이 계속해서 리버풀의 경제를 끌어 나가고 있었다. 여객선들과 화물선들이 계속해서 하역 인부들, 상인들 그리고 크레인 운전수들에게 일을 주고 있었다. 많은 리버풀 사람들이 호와 유람선에서 갑판원이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렇긴 해도 항구 도시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유명한 시의 상징이었던 '항만 노동자들의 우산'도 항만의 수가 줄어들면서 해체되었다. 실업이 늘어감에 따라 창고들도 텅 빈 채로 방치되어갔고 성인 범죄와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리버풀 시의 축구단인 리버풀과 에버턴 역시 침체되기 시작했다. 기술 축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버턴은 왕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 조니 카리가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비록 1부 리그에 남아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리그 우승이나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탠리 공원을 가로질러 있는 리버풀은 상클리가 감독으로 부임할 때까지 4년 동안 2부 리그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었다. 상클리가 부임하기 전 필 테일러가 감독직을 맡고 있었을 때 리버풀은 홈경기에서는 간혹 이기거나 비기더라도 원정 경기에서는 전혀 맥을 못 추는 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승격을 위한 도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1959년 - 60년 시즌 리버풀은 처음 열일곱 경기 동안 오직 경기수와 같은 17점의 승점만 올리고 있었다. 테일러는 리버풀 선수 출신의 감독이었는데 리버풀 구단의 경영진들에게 새로운 것을 내놓을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경영진들도

그의 일 처리 방식이나 선수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팀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리버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탠리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팀 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레인저스와 셀틱과의 라이벌 관계 정도나 돼야 이 두 팀 간의 라이벌 관계와 비견될 수 있다.

톰 윌리엄스는 안필드를 찾아주는 3만 명의 팬들도 팀이 계속해서 2부 리그에서 허덕이고 있게 된다면 하나 둘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구단 수입이 점점 줄고 있었고, 점점 더 팬들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두 구단 모두 경기를 관람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같은 돈을 들일 거라면 구디슨 파크에서 1부 리그 경기를 보는 것이 안필드에서 2부 리그 경기를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 리버풀은 팬들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 심각한 과제에 도전해야 했다. 리버풀은 과거에는 훌륭한 구단이었고 윌리엄스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의 축구 코치들에게 자문도 구했다. 그중에는 월터 윈터바텀도 있었는데 그는 윌리엄스에게 지금 리버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스타일을 가지고 선수들과 직접 뿔 수 있는 운동복을 입은 감독, 전직 선수출신으로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감독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허더즈필드의 빌 상클리가 적임자라고 동의했다. 그들은 상클리의 감독 스타일,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을 빼앗는 능력은 잠자고 있는 안필드의 거인을 현재의 평범함에서 깨어나게 할 자양 강장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얼마나 앞날을 통찰하는 조언이란 말인가!

상클리는 안필드의 경영진들과의 초기 협상에서 그들로부터 경기와 관계된 측면에 있어서는 그가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양보들을 받아냈는데 상클리 자신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열과 열정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양보에는 선수 선발이나 선수 지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새로운 선수의 영입과 훈련 방법, 이적 시장에서의 모든 협상에 상클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샹클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리버풀의 경영진들은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량권을 누리고 있었다.

샹클리는 연봉 이천 오백 파운드를 받게 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았다. 그는 팀과 리버풀의 팬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1부 리그로의 승격을 원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었으며 샹클리 자신도 네스로부터의 격려의 말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그녀 자신도 리버풀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지만 네스는 그에게 '잉글랜드 최고의 리그에서 팀을 이끌고 싶다는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리버풀이 지금까지 찾아왔던 기회들 중 단연 최고의 기회예요.' 라고 말함으로써 사랑하는 남편을 지원하였다.

취임하던 날 리버풀의 언론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샹클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리버풀 FC의 감독으로 선택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다. 그들은 성공할 자격이 있으며 내가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오래된 리버풀 팬인 토미 솔로몬은 새로운 팀의 감독으로부터 나온 이 취임 일성이 리버풀의 열성 팬들을 고무시켰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어둠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찬 스코틀랜드 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다시 미소를 되찾아 주기위해 마음과 영혼을 내던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샹클리는 리버풀 사람들이 경제적인 침체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자신도 예전에 글렌벡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제철소와 광산주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떠나버리면 마을 공동체는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고 그러한 일은 공동체가 영혼을 잃고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비록 리버풀의 상황이 예전의 글렌벡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샹클리는 리버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불확실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고 축구가 그 사람들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했으며 그 소속감은 자신들의 구단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었

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그들의 '확대된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에 서있을 때 충족되어지는 것이었다. 경기가 있는 날 그들은 모든 드라마, 흥분, 유머 그리고 즐거움을 다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시 일상속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다. 구단의 앞날에 펼쳐질 성공에 대한 희망이 절망감을 쫓아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했고 영국의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며 불확실성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리버풀과 같은 구단들은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샹클리는 안필드에 변화를 가져올 작업들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그것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팀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샹클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안필드 공화국의 사람들'과 그들의 '붉은 군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었다. 새로운 '혁명'이 막 일어날 참이었다.

감독으로서 샹클리의 첫 번째 임무는 구단 직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그 당시에 리버풀 구단의 직원들은 접수원 겸비서 한 사람, 한명이나 두 명의 사무 보조원, 비정규직의 청소부들, 잔디 관리와 구장의 개찰구 관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몇 명의 팬들이 자원하거나 예전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구단을 찾아와 뺨겨거리는 구장 안팎에서 생겨나는 여러 잡일들을 도와주곤 했다.

구단의 코치진으로는 우선 밥 페이즐리가 있었다. 그는 전직 선수 출신으로서 샹클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고 리버풀 소속으로 1939년부터 1954년까지 이백오십 경기 이상 출전하였다. 조 페이건은 이곳 리버풀 출신으로 맨체스터 시티, 브래드포드, 로즈데일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1958년 팀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안필드의 세 번째 코치는 루벤 베넷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헐 시티, 퀸 오브 더 사우스 그리고 던디 팀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코치로서는 에어 유나이티드, 마더웰 그리고 서드 라낙 팀에 몸담은 적이 있었다. 이 세 명의 코치들은 처음 샹클리를 대면했을 때 약간 걱정스런 생각이 들었다. 페이즐리와 페이건은 선수 시절 샹클리와 몇 번 경기를 가진 적이 있었고 그가 고집이 아주 세고 빈틈이 없는 에이저 출신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같이 일하기가 어렵고 가끔씩 오만하게 굴 때도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는 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거기다가 제임스 캐그니식으로 으스대며 걷는다니!

샹클리는 세 명의 코치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다.

'여러분들 셋은 여기서 일해 왔고 몇 명은 아주 오랜 동안 리버풀에서 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소. 나는 나만의 훈련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일해 나갈 것이요. 내가 계획을 짤 것이고 우리는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될 겁니다. 나는 한 가지만 원합니다 - 바로 충성심이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소.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리버풀 FC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샹클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페이즐리, 페이건, 베넷 모두 이미 그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들이 축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새로 부임한 감독의 생각과 똑 같았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그들이 존경할 만한 감독,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줄 능력을 갖춘 감독뿐이었다. 샹클리는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감독이었다.

페이즐리와 샹클리는 처음부터 잘 맞았다. 페이즐리는 '포병'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차 세계 대전당시 유럽과 사하라 사막에서 포병으로 복무를 해서 얻어진 별명이었다. 그는 선수 시절에도 샹클리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축구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샹클리는 나중에 페이즐리에 대해 '그는 팀을 위하는 사람이었다. 축구에, 특히 리버풀 구단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샹클리처럼 그도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다. 빈틈없는 타인강 출신으로서 그와 같이 일하는 스코틀랜드 감독처럼 유머 감각과 위트가 있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리더십을 환영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이상도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샹클리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다면 당신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빌이 우리들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존경심!"

이것은 감독과 신뢰를 받고 있는 코치진들 사이에 이루어진 완벽한 축구의 결혼이었다. 오래된 팬들은 상클리와 페이지를 '서로 만날 날만을 기다려 온 영혼의 동반자들'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클리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굳이 숨기려 들지 않았다. 그는 감독이었다. 팀의 주장이었던 로니 모란도 곧 감독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동감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상클리와 보낸 처음 3개월 동안에 프로 선수로서 보냈던 이전 칠년 동안 배웠던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당시 다섯 살만 더 젊었으면 하고 바랬었다.'

상클리의 '팀'을 구성했던 사람 중에 알버트 쉘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은퇴한 상태였던 쉘리는 팔방미인이었는데 그대로 안필드를 떠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는 페인트칠이나 탈의실 청소 또는 여기저기 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등 항상 안필드 구장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하였다. 상클리는 은퇴한 뒤에도 그냥 사라져버리기를 거부하고 구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그를 존경하였고 구단의 정식 직원 직원으로 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쉘리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군대가 소집되었고 상클리는 자신의 임무에 착수하였다. 또다시 예전에 감독으로서 했던 그대로 그는 구단의 모든 일에 관여했다. 그는 가족들이 살 집을 구단의 멜우드 훈련장에서 가까운 웨스트 더비 지역에 마련하였다 - 그 집에는 지금도 네스가 살고 있다.

멜우드 훈련장의 상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그곳은 프로 축구 구단의 훈련 시설이라기보다는 쇠락해 가는 마을의 크리켓 구장 같았다. 잔디 구장에는 급수 시설도 없었고 오래된 관람석은 보수와 페인트공사가 필요했다.

훈련장의 잔디는 흙이 파이고 군데군데 맨 땅이 드러난 상태였고 고르지도 않았다. 잔디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잡초가 무성했다. 상클리는 훈련장의 상태를 보고 '구단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라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개를 훈련시키는 공터 같다'라고 말했다.

리버풀은 새로운 선수들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선수들의 몸을 만들고 전술을 훈련할 제대로 된 훈련장도 있어야 했고 안필드 구장도 목표로 하고 있는 1부 리그에 걸맞게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조금 낙담하기도 했고 안필

드로 온 그의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상클리는 구단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영국 내 다른 어떤 구단도 갖지 못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바로 팬들! 의심할 여지없이 리버풀은 경제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 팀이 부진하고 경기장이 쇠락해 가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전쟁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리버풀의 경영진들을 설득해서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리버풀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데 있어서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네스의 말이 옳았다. 그는 리버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 도시는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다. 아직까지 발휘되지 못한 리버풀의 힘이 존재하고 있었다. 상클리는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다시 불사조처럼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리버풀 FC는 그러한 비상의 일부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

과거 리버풀의 선수였고 지금은 구단의 홍보 담당 임원인 브라이언 홀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리버풀은 예술과 시와 팝음악과 록음악의 중심지로서 막 태동하려는 시점에 있었다. 비록 과거의 조선업과 무역업이 번성하던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대학과 클럽과 예술가들과 작가들 집단을 통해서 새로운 리버풀이 탄생하고 있었다. 세상을 뒤집어 흔들었던 비틀즈와 비틀즈 마니아들이 막 등장하려 하고 있었다. 상클리와 리버풀 FC도 이 변화의 시기에 같이 등장했다. 리버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새로운 권위를 안겨다 준 비틀즈와 예술과 배우들과 작가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또 위대한 축구팀을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리버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도시는 다시 태어났고 가장 훌륭한 문화와 예술, 산문과 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리고 '서민들의 경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다.

상클리는 리버풀이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리버 버드의 날개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다.

기초를 다지다

상클리는 1959년 - 60년 시즌을 리버풀 선수들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팀에는 로저 헌트, 론 모란, 게리 반, 지미 벨리아 같은 몇몇 훌륭한 선수들도 있었다. 상클리가 감독직을 맡았을 때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인 토미 영거도 리버풀 소속이었고 전 하이버니언 팀 소속의 스코틀랜드 선수 지미 하로우어도 리버풀에서 뛰고 있었다.

전임 감독이었던 필 테일러는 에버턴에서 인기가 있었던 골키퍼 데이브 힉슨을 영입했으며 전설적인 빌리 리델은 이제 막 선수 생활의 여명기를 맞이하는 중이었다.

40명의 소속팀 선수들 가운데 상클리의 평가로는 많은 선수들이 이미 전성기를 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록 구단의 관계자들은 즉각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상클리는 선수들을 내보내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앞날을 대비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고 해당 선수들을 확신시켰다.

상클리는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했고 선수가 팀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무얼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선수들을 쫓아내는 작업이 다소 오래 걸렸다. 그는 선수들이 아무대책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가는 것 보다는 다른 구단을 물색하든가 다른 일자리를 찾은 후 팀을 떠나기를 바랐다.

새로운 지휘체계 아래서 리버풀을 1959년 -60년 시즌을 3위로 마감하였다. 그 시즌과 그 다음 시즌은 상클리가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변화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상클리의 이러한 계획은 우선 팀의 경영진들로부터 논란거리가 될 운명이었다. 상클리의 계획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도 팀을 최고 리그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코치진들과 팬들에게 '손을 대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는 한 두 시즌의 시간이 필

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을 해 와야 했고 훈련 시설들도 업그레이드 해야 했으며 안필드 구장도 1부 리그 팀들을 위한 조건을 맞추고 팬들을 위해서 개보수 되어야만 했다.

구단 직원들과 선수들 팬들을 이끌고 상클리리는 자신만의 '긴 행진'을 시작하였다. 자원 봉사를 자청한 목수들, 페인트 공들, 잡역부들, 배관공들, 정원사들이 멜우드 훈련장과 안필드 구장의 개보수 작업을 시작하였다. 밤낮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라 매일 매일 업무와 공사 인부들을 관리하느라 상클리리는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네스가 해준 격려의 말이 컷가를 땀들었다. '1부 리그 팀의 감독을 맞고 싶다면 리버풀이 최선의 선택이다!'

리버풀의 팬들은 새로 온 감독의 열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리버풀 사람들은 안필드 구장이나 멜우드 훈련장을 가지고 아무리 이런 저런 일들을 하더라도 새로운 선수들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원 봉사자들을 이끌고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팀에 영광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선수들은 어디에 있는가?

에버턴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트 오브 미들로디언 팀에서 알렉스 영과 조지 톰슨을 데리고 왔다. 빌리 빙험, 알렉스 파커와 로이 베넌도 에버턴에 합류했다. 팀의 구단주인 존 무어레스는 팀의 운영을 위해서 수만 파운드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에버턴 팀의 선수들 면면을 살펴보면, 리버풀의 팬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리버풀이 2부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다. 상클리리는 이런 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그는 선수 영입을 위해 육만 파운드를 쓰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부임 초기에 허더즈필드에서 제임스 로를 데려오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잭 찰튼을 영입하려던 상클리리의 시도는 경영진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리버풀의 팬들은 새로 온 감독이 경영진들을 설득시켜서 선수 영입에 돈을 쓰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관중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경영진들은 상클리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 물었다.

상클리리가 말했다 '문제가 무언가 하면 나는 팀을 1부 리그로 승격 시키고 싶

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영입할 돈이 필요하다는 거요.'

구단에 대한 상클리 의 절망감과 분노는 리버풀의 경영진들이 출전 선수 선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극에 달했다. 리버풀에서 촉망받던 젊은 레프트 윙 조니 모리세이가 상클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에버턴으로 이적하게 되자 갈등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경영진들은 그들이 처음 약속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선수 영입을 위해서 돈을 쓰기로 약속했고 선수 선발 권한은 감독에게 일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적 시장과 관련해서도 감독에게 전적인 재량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 - 61년 시즌에도 리버풀은 다시 2부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상클리는 안필드에서의 상황에 대해 낙담하기 시작했다. 공장과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감독의 자격 미달과 능력 부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구단 경영진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감독을 고른 것인가? 어찌 됐든 상클리는 최고의 리그에서 선수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상클리보다 못한 사람은 벌써 감독직을 그만 뒀을 것이었다. 오랜 친구 맷 버스비는 상클리에게 그래도 리버풀에 좀 더 머물러 있으라고 조언했다. 한 두 시즌 더 있어보면서 일이 어떻게 돼나가는지 보라는 것이었다.

1961년 여름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리틀우즈의 사장인 존 무어레스는 몇 년 동안 에버턴과 리버풀의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 그는 리버풀 보다는 에버턴 쪽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고 에버턴 팀을 키우는데 그의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였고 안필드 쪽의 일에는 점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

T.V. 윌리엄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는 리버풀 쪽에서 들려오는 감독과 경영진들 사이의 갈등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비록 그가 에버턴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로 선택하기는 했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축구의 도시 리버풀에서 다른 절반의 사람들에 대한 그의 책임감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리버풀 FC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다. 입장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팬들도 감독에 대한 신뢰를 계속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팀 재건을 위한 자금만 지원이 된다면 상클리야말로 감독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해결책이 나왔다. 리틀우즈의 수석 회계사이자 재정담당 이사인 에릭 소이어가 무어레스의 설득으로 리버풀 팀의 이사진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소이어는 축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리틀우즈 제국의 재정 담당 이사로서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었다.

무어레스로부터 소이어에게 내려진 지시 사항은 리버풀 구단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라'는 것이었다.

샹클리는 처음에 소이어가 리버풀의 이사진에 가담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경영진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은행가들, 상인들, 정치가들 - 그들의 직업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다.

샹클리도 나중에 곧 알게 되었지만 소이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샹클리와 소이어의 만남은 향후 리버풀 FC의 위대함과 감독에게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 줄 환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샹클리가 안필드를 찾는 열성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팬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팀'을 만들게 될 것이었다.

비록 소이어는 축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날카로움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리버풀 FC의 가장 위대한 자산과 발전 가능성은 팀 감독의 야망과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가 리버풀 FC를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이어는 곧 샹클리의 장점을 평가하게 되었고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안필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치진들이 샹클리에게 보내는 충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소이어는 축구를 아는 사람이 축구 일을 해야 하고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투자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진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샹클리와 소이어는 감독의 축구에 대한 철학, 훈련과 지도 방법, 그리고 구단에 있어서의 팬들의 가치에 대해 며칠씩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소이어는 리버풀 구단이 성공적인 사업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상클리는 리버풀이 잉글랜드에서 최고로 성공한 구단이 되는 것 -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다.

소이어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상 하나라는 것을 파악했고 상클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위대한 팀을 만들 선수들은 당신이 찾으시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클리는 너무나 기뻐했다. 역경 속에서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있으며 그와 미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리버풀 FC는 60년대와 70년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위대한 도시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가능한 일이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배짱이 있는 경영진들뿐이었다. 상클리는 소이어가 리버풀의 경영진들에게 적극성과 신뢰를 조금이나마 불어넣어줄 수 있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소이어는 그렇게 했다. 그는 상클리가 전문가이고 프로이며 선수들이 그의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지도 방법들 그리고 전술에 통달한 부분 등에 대해 존경을 보내고 있으며 그것이 팀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을 동료 경영진들에게 설득시켰다.

상클리는 만약 리버풀이 사업체로서 제대로 굴러가고 새로운 영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축구 구단이 되길 원한다면 그런 일은 최고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이어는 지금까지 계속 상클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가리켜오고 있었다면서 - 선수들과 팬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진들을 확신시켰다. 그는 새 시대에 맞는 경기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안필드는 재건축 되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클리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안필드로 데리고 올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영진들이 있다면 그들은 소이어와 상클리가 일으키고자 하고 있는 안필드에서의 혁명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과 리버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소이어와 상클리의 손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리버풀 FC는 최고를 위해 최고만을 제공하는 사업에 몸담게 되었다.

나중에 상클리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에릭 소이어는 리버풀의 시작이었다.'

상클리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많은 부담이 덜어진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최고의 팀을 만드는 데만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야 그는 안필드를 찾아온 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간다!'



이제 우리가 간다

1960년 - 61년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의 어느 일요일 샹클리는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축구 리그의 결과를 훑어보던 가운데 마더웰즈 팀의 이언 세인트 존 선수가 팀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뛰어난 이 스코틀랜드 스트라이커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몇몇 잉글랜드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팀을 옮기고 싶어 했다. 연봉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잉글랜드의 명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삼년 전에도 세인트 존은 샹클리의 관심을 끌었고 그를 허더즈필드로 영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었다. 그가 곧 자유의 몸이 된다는 소식은 예전에 가졌던 관심에 다시 불을 붙여 놓았다. 23세 이하 스코틀랜드 팀의 주장이었던 그는 신장이 5피트 8인치였는데 센터 포워드로서는 큰 키가 아니었지만 빠른 발과 대단한 슈팅 능력 그리고 환상적인 볼 컨트롤 능력과 남들보다 뛰어난 헤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영입을 위해서는 삼만 오천 파운드 가량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었다. 샹클리는 즉각 마더웰즈 팀으로 연락을 해서 리버풀이 그 센터 포워드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협상을 위해 다음날 피어 파크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뒤이어 바로 에릭 소이어에게 전화를 했다. 샹클리는 그에게 '스코틀랜드 최고의 센터 포워드가 이적 시장에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존 세인트는 그동안 리버풀 구단이 팀의 선수인 로저 헌트와 짝을 맺어주기 위해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센터 포워드였다. 샹클리의 판단을 믿고 있던 소이어는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 일을 진행하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샹클리와 T.V. 윌리엄스는 마더웰즈 팀과 해밀턴 아카데미 팀과의 지역 더비 경기에서 세인트 존의 플레이를 지켜보기 위해 마더웰즈로 떠났다. 뒤이어 이어진 마더웰즈의 경영진들과 세인트 존과의 협상 끝에 이 훌륭한 스코틀

랜드 센터 포워드는 1961년 5월 2일 화요일 이적료 삼만 칠천 오백 파운드에 안필드 행 기차를 타게 되었다. 세인트 존에 대한 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리버풀의 한 두 이사진은 이 정도의 액수가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으며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진짜로 리버풀이 그만한 돈을 지불할 수 있을 지 궁금해 했다. '우리는 그와 계약하지 않는 것을 감당할 수 없소'라고 소이어는 일축했다.

일주일 후 세인트 존의 데뷔 경기가 있었는데 새로 영입한 센터 포워드는 4대 3으로 진 에버턴과의 리버풀 시니어 컵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였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디슨 파크에 운집한 리버풀 팬들은 무아지경에 빠졌다. 세인트 존 - 그 경기의 오늘의 선수 - 의 플레이는 에버턴의 스타 선수들 모두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그 시즌에 또 다른 중요한 계약이 있었다. 샹클리는 성공적인 리버풀 팀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있었다. 뛰어난 스트라이커, 큰 키의 센터 하프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골키퍼는 그에게 팀을 구성하는 뼈대를 마련해 줄 것이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선수들을 배치해 나갈 생각이었다.

던디 유나이티드의 거인 센터 하프 론 예이츠도 허더즈필드 시절부터 샹클리가 눈여겨보던 선수였다.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절 론 예이츠는 테너디스 구장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해 행복해 했었는데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군부대에서 복부에 있는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던디 유나이티드는 축구를 하기에 매력적인 팀이었고 최근에 스코틀랜드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 좋은 경기를 해오고 있었다. 제리 커의 젊은 선수는 테너디스에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 유나이티드도 자신들의 선수를 떠나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1961년 6월, 리버풀은 예이츠의 계약을 위해 이만 파운드를 제시했으나 이 6피트 3인치의 장신 센터 하프를 데려가려면 사만 파운드 가까이는 내야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에 세인트 존에게 투자한 자금도 있어서 리버풀은 이만 파운드 이상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샹클리는 그가 팀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소이어도 예이츠가 리버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감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그

들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의를 하겠소.'

7월 22일 토요일, T.V. 윌리엄스와 샹클리는 에든버러에 있는 노스 브리티시 호텔에서 던디 유나이티드 관계자들과 예이츠를 만났다. 거기에서 예이츠의 이적을 위해 소이어가 이사들에게서 확보해 놓은 이적료 삼만 파운드의 최종 제의가 이루어졌다.

론 예이츠는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고 샹클리는 계속해서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나를 아래위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꼭 경매에 끌려나온 노예 같은 느낌이였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내가 막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이럴 수가, 자네 7피트가 넘겠는데!" 내가 대답했다. "아니오, 내 키는 6피트 3인치입니다." 샹클리가 대답했다. "여보게, 리버풀로 오게 되면 자네 7피트가 되는 거야."

예이츠는 리버풀이 자신이 가고 싶어 하던 팀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던디 유나이티드에서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샹클리에게 리버풀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나는 진짜로 리버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몰랐다.'

대답은 '우리는 1부 리그에 있다네!'였다.

'사실이 아니잖아요.'라고 예이츠가 말했다.

'아, 이보게나.', 샹클리가 예이츠에게 말했다, '우리는 곧 자네를 팀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그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라고 예이츠는 회상했다.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팀에서 뛰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 저는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세인트 존 그리고 예이츠와의 계약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리버풀의 새로운 팀에는 골키퍼 베트 슬레이터, 이언 켈러한, 게리 번, 앨런 아코트, 로저 헌트, 토미 리시맨 그리고 로니 모란도 포함되어 있었다. 헌트 - 세인트 존 라인이 한 시즌에 거의 백골 가까운 골을 합작해 내자 리버풀의 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센터 백의 자리에 론 예이츠가 마치 거상처럼 버티고 서자 리버풀의 수비는 정말로 뚫기가 어려웠다. 매 경기 관중수가 오만 명 까지 늘어났고 리버풀은 1961년 - 62년 시즌에 최대로 가능한 승점 84점 가운데 62점을 획득하면서

2부 리그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다. 안필드의 콕 앤드는 이만 사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내에서 가장 큰 스탠드인데 61년 - 62년 시즌동안 홈경기 때마다 관중들이 최대 수용인원까지 꽉꽉 들어찼다. 열성 리버풀 팬들의 얼굴에 미소가 다시 찾아왔다. 특히 콕 앤드에 자리를 잡는 팬들은 팀을 응원하는데 있어서 시끄럽기가 그지없었는데 경기가 있을 때면 두 곡 정도를 그날의 주된 응원가로 삼았다. 리버풀 콕에서부터 나오는 굉음은 원정팀 선수들을 주눅 들게 했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한 골을 미리 앞서나가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여겨졌다. 론 에이즈의 회상에 따르면 '매 홈경기 때마다 리버풀에 한 명의 선수가 추가로 더 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1부 리그로의 승격은 1962년 4월 21일 토요일에 확정되었다. 리버풀이 오만 홈 관중 앞에서 사우스햄턴을 2 대 0으로 격파하고 2부 리그 타이틀을 차지했을 때 시즌 종료까지 다섯 경기나 더 남겨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샹클리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네스의 말이 맞았다. 리버풀 팀에서 1부 리그의 감독이 될 것이다.

콕에 자리 잡은 팬들은 환희에 넘쳤다. 지붕이 덮인 가파른 경사의 스탠드에서는 팬들이 그들 팀이 이루어 낸 성취를 만끽하면서 목이 쉴 때까지 불러대는 합창 소리 때문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사람들은 종종 잊곤 합니다,' 토미 솔로몬이 말했다. '리버풀에는 실제로 세 개의 대 성당이 있다는 사실요 - 대성당, 패디스 위그암 그리고 콕!입니다.'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광적인 팬들을 수용하는 유명한 콕은 지난 수년 동안 리버풀이 2부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제 톰 윌리엄스의 통찰력과 샹클리의 숨씨 그리고 에릭 소이어의 관여로 인해서 팬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경기장을 넘어 밖으로 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다.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지은 그 경기가 끝난 뒤 관중들은 샹클리와 그의 선수들이 다시 운동장으로 나와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칭찬과 환호를 받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우리는 샹클리를 원한다! 우리는 레드(Reds)를 원한다!' 관중들은 외쳤고 환희에 휩싸인 그들은 4월의 비를 맞으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마

침내 경기장이 떠나갈 것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상클리와 윌리엄스가 관중들의 환호에 답례하기 위해 경기장 내의 박스 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수들이 지금 찢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흥분한 관중들을 진정시키지는 못했으며 계속해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환상적인 관중들의 모습과 고막을 찢을 것 같은 소음 속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선수들이 다시 경기장 가운데로 나왔다.

'그들은 다시 경기장으로 나와야 했어요. 안 그랬다면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라도 경기장에 계속 머무를 생각이었으니까요.' 라고 오랜 리버풀 팬 테드 부룩스는 말했다.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다시 나온 뒤 대혼란이 발생했다. 이언 세인트 존과 론 에이츠는 관중들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결국에는 경찰들에 의해 관중들 손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에이츠가 회상했다. '내가 그때까지 겪어왔던 일들 가운데 가장 겁나는 순간이었다.'

안필드 경기장에서 팬들이 떠난 것은 그 후로도 몇 시간이나 지난 다음이었다. 안필드 경기장 옆에 위치한 알버트 펌의 서까래가 안필드의 열성팬들 특유의 광적인 축하로 들썩들썩 했다. 머지사이드는 마침내 도시의 두 축구팀이 1부 리그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는 자긍심으로 넘쳐흘렀다.

월요일 아침, 리버풀의 군중들은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분출하고 있는 재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런던의 데이브 클락 파이브나 맨체스터의 비트 뮤직, 뉴캐슬의 음악 밴드들은 리버풀의 비틀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남부 사람들이 자신들한테는 롤링 스톤즈가 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머지 사운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프랭키 보한, 실라 블랙, 게리 앤 더 페이스메이커, 머지비츠.

리버풀 출신의 코미디언들은 또 어떤가? 떠오르는 스타 타버과 도드 앤드 컴패니를 보라. 이제 잉글랜드에서 최고 수준의 축구 리그에서 도시의 두 축구팀이 같이 뛰게 되었다! 여러 저명인사들로 부터의 축하 전문들이 안필드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배우 리타 투싱햄은 '내 도시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국회의원들, 기업가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리버풀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리버풀 FC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리버풀은 폭풍처럼 잉글랜드와 세계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리버풀 사람들조차 리버풀 FC와 머지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지 못했다.

빌 상클리가 해냈다! 그는 역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위대한 도시의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상클리는 단지 1부 리그로 승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리버풀의 경영진들이 1부 리그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은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를 직원들에게 돌리자 상클리가 재치 있게 말했다. '이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잖아, 안 그래? 다음번에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는 빅 리그의 챔피언이 되어 있을 거야 - 1부 리그!'

상클리는 오프 시즌의 시간을 팬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축구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냈다. 상클리는 자신들의 시와 팀에 대한 너무나 열성적인 충성을 통해서 그들보다 작은 타운과 도시의 축구 팬들과 선수들을 주눅 들게 만드는 리버풀 팬들의 도움을 받으며 1부 리그로 올라갈 것이었다.

안필드 요새로 원정을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은 오랜 선수 생활을 한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힘든 일이 될 것이었다. 그는 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1부 리그에 팀 수나 채우려고 가는 게 아니다 - 우리는 우승을 하러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 예언은 그리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해. 예, 예, 예'

상클리의 젊은 2부 리그 챔피언들에게 1962년 - 63년 시즌은 경험을 쌓는 시기였다. 그 당시 잉글랜드의 1부 리그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토트햄 핫스퍼, 첼시, 리즈 유나이티드와 한창 잘 나가고 있던 에버턴 같은 팀들에서 뛰고 있는 천부적이고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2부 리그를 평정하는 것과 데이브 맥케이, 찰튼 형제들, 노만 헌터, 알렉스 영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들을 물리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1부 리그는 강력한 태클과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는 백 포지션의 선수들과 날카롭고 빠른 공격수들의 리그였으며 국가 대표 급 선수들과 위대한 선수들로 구성된 리그였다. 리그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는 상클리의 선수들은 미처 도제 기간도 다 끝나기 전에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래도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팀에 힘을 보탤다. 뛰어난 미드필더인 윌리 스티븐슨이 글래스고 레인저스에서 이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영입이 되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골키퍼인 짐 퍼넬을 만 팔천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1961년에 번리 팀에서 데리고 왔다. 골키퍼 짐 퍼넬은 젊은 토미 로렌스 선수가 리저브 팀에서 주전 팀으로 올라올 때까지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수비 라인을 형성해 줄 것이었다. 하위 리그에서 거의 지지 않고 경기를 해온 대부분의 팀들은 상위 리그로 올라갔을 때 승리를 거두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곤 한다. 리버풀도 다르지 않았다. 별로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1부 리그로 진입해서 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자 초조해 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리그에서의 첫 시즌을 8위로 끝마친 리버풀 팀은 결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불확실한 마음과 자신감 부족으로 시즌 초반에 승점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을 해서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축구를 했다면 얻을 수도 있었던 승점이었다.

그러나 FA 컵 대회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시즌들에 대한 안필드 팬들의 희망을 부풀렸다. 리버풀은 렉섬, 반즐리, 아스날 그리고 웨스트 햄을 격파하고 힐스보로에서 벌어진 준결승전에서 레스터 시티를 만났다. 그러나 리버풀의 운은 거기까지였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1 대 0으로 지고 말았다. 모든 면을 다 고려해봤을 때 이번 시즌은 성공적이었다. 샹클리는 그의 팀이 1부 리그의 어떤 팀들 하고도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좋은 선수들로 팀을 꾸렸으며 선수들은 62년 - 63년 시즌이 끝났을 때 다음 시즌을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에버턴이 그 시즌에 1부 리그 타이틀을 따냈다. 샹클리는 매 홈경기 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대규모 원정 경기 응원도 마다하지 않는 리버풀의 열성 팬들을 위해서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리버풀이 1부 리그 두 번째 시즌 공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샹클리는 프레스턴에서 피터 톰슨을 영입하였다. 톰슨은 그가 안필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샹클리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이보게, 나는 자네를 가장 훌륭한 선수로 만들 것이네. 자네는 아주 빨라질 거고 날아가는 비둘기도 잡을 수 있게 될 걸세."

톰슨은 기술이 좋은 오른쪽 윙이었고 곧 쿵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나이든 팬들에게는 예전 핀이나 매튜스의 경기 스타일을 연상시키게 만들었다.

샹클리는 준비가 되었다. 그의 선수들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즌 첫 두 경기인 첼시 그리고 울브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자 샹클리는 그의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는 뭔가 일을 낼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은 홈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하자 다소 수그러들었다. 몇몇 선수들은 쿵의 관중들 앞에서 1부 리그의 홈경기를 치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선수들을 불러놓고 샹클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았다.

선수들은 홈 관중들의 응원에서 나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긴장한 상태로 경기를 하게 되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인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는 경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샹클리는 그의 심리학을 각각의 선수들에게 적용했다. 훈련할 때나 경기 전 대화를 할 때 그는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들이다 라고 말했다. 만약 너희들이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라면 안필드에 서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시즌 열 번째 경기인 지난 시즌 챔피언이자 숙적인 에버턴 팀과의 홈경기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 칭찬하는 말들을 들었다.

환상적인 플레이로 그들은 에버턴을 2 대 1로 격파했다. 선수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거둔 이 에버턴 경기의 승리가 그들에게는 특효약이 되었다. 붉은 군대는 승리를 위한 행진을 시작했다. 세인트 존과 헌트 그리고 톰슨은 상대를 압도하는 플레이로 꾸준하게 네 골, 다섯 골, 여섯 골을 합작했으며 상대 팀들은 리버풀의 경기 운영 속도와 지구력에 말려들었다.

'우리는 잉글랜드에서 체력적으로 가장 뛰어난 팀이었다'라고 로저 헌트는 회상했다.

실제로도 리버풀의 놀라운 체력은 리그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팀 정신도 물론 중요했다. 샹클리의 철학은 '만약 당신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선수들이 동료들 위해서 그리고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한다면 경기는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론 에이츠가 말했다. '우리는 눈부실 만큼 훌륭한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꽤 괜찮은 선수들이었고 샹클리에 의해서 세심하게 팀으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축구 스타일을 완성시켰고 각각의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매주 있는 경기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죠.'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샹클리 특유의 전략도 팀이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런던에 위치한 팀들은 '약해빠진 남부 놈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대팀 골키퍼들은 '공을 가량이 사이로 흘리며' 라이벌 팀의 센터 포워드들은 '다트 경기에서도 점수를 못 낼 정도'였다.

시즌이 끝나갈 무렵 리버풀 선수들은 자신들은 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5만 관중 앞에서 아스날에 거둔 5 대 0의 완승은 그들에게 1부 리그 챔피언 타이틀을 갖다 주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사랑해, 예, 예, 예,' 이 날의 승리를 확신하고 대부분 전 날 밤부터 안필드 밖에서 긴 줄을 형성했던 곱을 가득 메운 팬들은 노래를 불렀다. 팬들의 환호에 답하기 위해 선수들은 가짜로 만든 우승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을 돌았다. 전 챔피언인 에버턴은 안필드에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진짜 은으로 된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샹클리는 말했다. '이것은 내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리버풀의 경영진들이 63년 - 64년 1부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을 축하하면서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있을 때 소이어와 샹클리는 아마도 조용한 링크를 서로 주고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둘은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들이 내렸던 평가가 모두 옳았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샹클리와 그의 비밀 공작대원들은 무서운 팀을 만들어 냈다. 소이어는 이러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배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엄청난 경기 입장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샹클리와 소이어의 파트너십은 리버풀 왕조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리버풀 왕조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리버풀 시민들과 타지로 나가있는 리버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오락을 제공해주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축구라는 경기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에버턴으로부터 진짜 우승 트로피가 전달되자 언론사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 컵을 높이 쳐들고 난 뒤 샹클리가 시저를 인용해서 말했다.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글린백 사람들도 그곳 출신인 샹클리가 잠깐 동안이나마 겸손함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용서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정도의 영광은 누릴 권리가 있었다.

리버풀 사람들이 리그 우승을 하고 난 뒤 수주일간 파티를 벌이고 있는 동안 영국 축구는 리버풀이 사실상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유럽피언 컵에 나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머지사이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프 시즌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리그 최고의 자리를 놓고 리버풀과 에버턴이 각축을 벌일 것이고 안필드에서 유럽 축구팀들과의 경기가 벌어질 것이며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FA 컵이 라임 거리를 행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웹블리와 유럽

17년 만에 처음으로 1부 리그 챔피언십 우승컵이 안필드의 우승컵 보관 전시실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상클리는 1964년 - 65년 시즌 도전을 위한 팀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쉽지가 않을 예정이었다. 리버풀은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다. 리그 타이틀을 수성하고 유럽피언 컵 챔피언의 자리에 도전하며 FA 컵 영광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다.

리버풀의 붉은 전사들이 다음 시즌의 시작을 준비하며 페이스를 끌어 올리고 있는 동안 상클리는 팀이 세 가지 우승컵에 모두 도전하려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현재 선수들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코칭스태프 회의가 열렸으며 앞으로 있을 시합들을 대비해서 팀의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선수들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상클리는 안필드 스탠드 밑에 위치한 축구화 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페이즐리, 페이건 그리고 배넷을 만나곤 했다. 이 작은 방은 옷 바구니들과 장비들 그리고 여분의 축구화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었는데 조용한 장소로서 상클리와 코치들이 문을 걸어 잠가놓고 몇 시간씩 오직 축구에 대해서만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었다. 축구화 실은 다소 두려운 장소이기도 했는데 오직 호출이 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리버풀 FC의 신경 충추'라고 불리는 내부의 신성한 공간이었다.

상클리와 코치진들은 유러피언 컵에 참가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리그 경기와 FA 컵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선수들이 이 세 가지 도전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부상 선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한 두 선수 정도의 영입은 있을 수 있었다. 어린 10대 수비수 토미 스미스가 이제 막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몇 선수들이 영입 대상으

로 고려되었다. 토미 로렌스가 골문을 맡게 되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저브 스트라이커 필 치스넬이 이적료 이만 오천 파운드에 리버풀로 이적해 왔으며 지미 벨리아는 울버햄턴 원더러스로 이적할 예정이었고 앨런 아코트는 트레미어 로버스로 팀을 옮기게 되었다.

피터 톰슨은 상클리와 함께 팀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가졌던 유명한 '말'토론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클리: 자네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토모. 자네는 너무 빨라. 마치 경주마 같아.'

톰슨: '감독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빠르죠.'

상클리: 자네는 또 짐마차를 끄는 말과도 같네. 대단한 지구력을 가졌으며 하루 종일도 땀 수 있지.'

톰슨: '감독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강합니다.'

상클리: '그런데 자네는 또 회전목마야. 도대체 머리를 쓰지 않으니 말일세.'

톰슨이나 다른 선수들은 항상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팬들로부터의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언제 우리는 FA 컵을 차지할 수 있지?'

리버풀 사람들은 런던까지 가서 웹블리구장을 점령하고 그 나약한 런던 놈들 코앞에서 빛나는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런던에서의 FA 컵 우승은 북쪽과 남쪽간의 논쟁을 잠재울 것이다. 리버풀은 리그 챔피언이었고 음악과 예술을 놓고 봤을 때도 머지사이드는 런던보다 나왔다 - 왜 그런 사실을 붉은 전사들이 FA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에-야-아디오'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단 말인가?

상클리는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이 압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걱정했던 대로 리버풀의 리그 경기는 유러피언 컵 경기와 FA 컵 경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안필드에 모인 팬들은 매 순간을 즐겼다.

유러피언 컵과 FA 컵 대회는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기위한 경기들이 아니었다. 만약 리저브 팀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은 주로 리그 경기에서였다. 리버풀이 치러야만 했던 몇몇 중요한 경기들의 결과 때문에 리버풀의 붉은 전사들이 컵 대회를 위해 진진하는 동안 리그 챔피언은 리그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리버풀은 그 시즌을 7위로 마감했으나 상클리는

팬들에게 다음해는 '리그 챔피언 자리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64년 - 65년 유러피언 컵 대회는 비교적 수월한 상대인 아이슬란드 레이 카비크와의 경기로 시작되었는데 리버풀은 2차례의 경기에서 11골을 집어넣고 한 골을 잃었다. 론 예이츠는 리버풀의 아이슬란드 원정과 관련하여 상클리와 관련된 아주 멋진 일화를 들려준다.

레이카비크까지의 여정은 마치 마라톤과 같이 길었다. 리버풀은 프레스트윅까지 가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상클리는 선수들을 버스에 태우고 주변 관광을 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들은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상클리는 선수들에게 버틀린의 헐리데이 캠프에서 한 시간 정도 즐길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가 캠프에 도착했을 때, 감독님이 버스에서 내리더니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버풀 FC 선수들이요. 우리는 유러피언 컵 대회 경기를 하기위해 아이슬란드로 가는 길이외다."

문지기가 상클리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고 선수들이 탄 버스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소이다. 여긴 에이어요."

레이카비크를 꺾고 다음으로 만난 팀은 벨기에의 챔피언 안드레흐트였는데 국가 대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

안드레흐트와의 경기를 며칠 앞두고 상클리는 팀의 유니폼을 바꾸기로 하였다. 이언 세인트 존과 론 예이츠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상클리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붉은 색 유니폼을 입어야 할 것 같아. 그게 우리 선수들을 더 무섭게 보이게 할 거야.' 그는 붉은 색 상의를 예이츠에게 던졌다. '한번 입어보게나.'

상클리는 6피트 3인치의 거대한 예이츠가 위 아래로 붉은 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더니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럴 수가, 이 친구 마치 거인처럼 보이는군. 정말 무서워. 안 그런가, 이안?' 그는 세인트 존에게 물어봤고 존은 양말까지 붉은 색으로 신어서 전체를 다 붉

은 색으로 하지고 제안하였다.

에이츠가 온통 붉은 색으로 된 새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상클리는 중얼거렸다. '완벽해, 그냥 완벽 그 자체로군. 우리는 그들을 아주 별별 떴게 만들거야.'

상클리의 아이디어는 위아래 전부 하얀색 유니폼을 입는 레알 마드리드를 흉내 낸 것이었는데 그들의 하얀 유니폼은 상대팀들보다 훨씬 유리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리버풀이 위아래로 전부 붉은색의 유니폼을 입자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이러한 사나움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큰 소리로 포효하는 쿵팬들의 열성적 응원이 더해져서 안드레흐트를 상대로 2 대 0 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브뤼셀에서 벌어진 원정 경기에서도 1대 0의 승리를 거둔 리버풀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독일 챔피언인 FC 쾰른을 만나게 되었다.

쾰른은 서독 국가대표만도 서너 명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지만 독일에서 벌어진 첫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강력한 수비를 뚫을 수 없었다.

안필드 구장이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리턴 매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주심이 경기를 다음으로 연기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날 리버풀 팬들은 기억에 남을만한 저녁을 보냈다!

쾰른 선수들이 뽀뽀 얼어붙은 3월의 저녁에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안필드 경기장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쾰른 팀은 가능하면 그날 경기를 치르고 싶어 했다. 그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팬들이 유럽 대륙에서 바다건너 이곳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국 리그에서도 밀린 경기들이 좀 있었고 눈이 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해본 경험도 많이 있었다.

눈보라가 점점 더 심해지자 주심에게는 경기를 연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리버풀 구단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교환권을 나누어주면서 경기가 연기 됐다고 알렸다. 쿵을 찾은 팬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일상의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과 고단함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자 안필드를 찾았던 팬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군중들

이 내편 상대방으로 나뉘어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콥에서부터 시작된 눈싸움은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까지 몰려들어와 계속되었다.

샹클리는 스탠드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천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눈 덮인 경기장 위를 구르고 웃고 농담하고 서로 껴안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안필드, 그들의 정원에 있는 것이었다. 경찰은 팬들을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출입문이 퐁퐁 열어붙어 버려서 그들은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팬들이 천천히 하나 둘씩 집으로 발길을 돌릴 때까지 웃음소리는 계속 되었다 안필드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멋진 밤이었다.

2주 뒤에 경기가 재개되었고 다시 0 대 0 무승부로 끝났다. 중립 지역인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경기에서도 다시 2 대 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자 동전 던지기로 진출 팀을 가리게 되었다. 론 에이즈의 선택이 맞아 떨어졌다. 리버풀은 준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성취였다. 지금까지 유러피언 컵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잉글랜드 팀은 하이버니언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두 팀 뿐이었다.

인터 밀란도 리버풀에 잘 알려진 팀이었는데 전년도 유러피언 컵 대회에서 에버턴을 탈락시킨 팀이었다. 그들은 사실상 무서운 상대가 될 것이었다. 화려한 이탈리아 국가 대표 선수들로 구성이 되었고 감독인 헬레나 메레라는 최고의 축구 전략가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유러피언 컵 대회 경기 이전에 리버풀은 웹블리에서 FA 컵 결승전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일도 진행을 해야 했다. 리버풀은 리그 경기에서는 부진했지만 '64-'65 시즌 FA 컵의 영광은 점점 가능성이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붉은 전사들이 웨스트 브롬, 스톡포트 카운티, 볼튼 그리고 레스터를 꺾자 콥의 팬들은 무척이나 기뻐했고 리버풀은 토미 도처티가 이끄는 매력 있는 젊은 팀 첼시와 빌라 파크에서 FA 컵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피터 톰슨의 골과 윌리 스티븐슨의 페널티 킥으로 붉은 전사들은 웹블리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리버풀은 축구 얘기로 넘쳐났다. 인터 밀란과의 유러피언 컵 준결승전도 있었지만 우선 레비의 리즈 유나이티드와 FA 컵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그 우승을 못하면 또 어떠랴? 리버풀 팀을 위한 다른 목표들이 거기 있었다.

FA 컵 결승전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샹클리의 사무실에는 웹블리에서 벌어질 결승전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팬들의 전회가 빗발쳤다. 마치 머지사이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런던으로 가서 리버풀이 FA 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네스와 그녀의 남편은 입장권을 부탁하는 편지에 일일이 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샹클리에게 가면 모든 리버풀 사람들이 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샹클리는 런던의 암표상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수요가 많은 결승전 입장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리버풀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1965년 FA 컵 결승전이 열린 웹블리구장에는 온통 붉은 물결로 가득했다. 전 에버턴 스타인 보비 콜린스가 리즈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리버풀 팬들은 더욱 더 그들의 영웅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봐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경기가 막 시작되기 전 샹클리는 인터 밀란의 시그노르 소티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는 유러피언 컵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 상대팀의 전력을 염탐하러 온 '스파이'였다.

'당신네 팀 선수들도 엄청난 소음에 적응이 되어 있소?' 라고 샹클리가 소티에게 물었다.

소티는 이탈리아 축구 팬들도 떠들썩한 응원을 하며 그들이 지난번 에버턴과의 경기를 위해 구디슨 파크에도 와봤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시끄러움에는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오,' 샹클리가 대답했다. '우리 팬들의 소리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결코 시끄러운 응원 소리를 들은 게 아니지!'

웹블리에서의 FA 컵 결승전 자리에서도 샹클리는 유러피언 컵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밀란이 보낸 '스파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음으로써 심리전에서도 이기고 있었다.

FA 컵 대회 결승전은 전 후반 득점 없이 0 대 0으로 비겼다. 게리 반은 쇠골이 부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붕대로 부러진 부위를 감고 다시 우승컵의 운명을 결정할 15분 연장전에 투입되었다. 헌트가 골을 성공시켰지만 에버턴의 빌리 브렘너가 동점골을 집어넣어 리버풀 팬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재경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을 때 이언 세인트 존이 헤딩 골을 성공 시켰고 팀의

73년 역사상 처음으로 FA 컵이 안필드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리버풀의 팬들이 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웹블리는 소음으로 마치 폭발이라도 할 것 같았다. 선수들 이름 하나 하나가 불리어 지고 마침내 팬들이 한 목소리로 '샹클리 - 샹클리 - 샹클리'를 연호하자 그 소리는 대영 제국 경기장의 천장을 뒤흔들었다.

우승컵 수여식이 끝난 뒤 샹클리는 팀의 스카프를 메고 리버풀 팬들로 꽉 들어찬 관중석 앞으로 가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는 이 컵을 차지하게 된 것이 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지 잘 알고 있었다. 웹블리에 있는 팬들이 '에-야-아디오 - 우리가 우승컵을 차지했다네'라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머지사이드에 있는 수만 명의 팬들은 전형적인 방법으로 우승을 축하하였다. 리버풀의 팬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동안 영국의 눈은 이 위대한 도시로 쏠렸다. 마치 2차 세계 대전 전승일이 다시 온 것 같았으며 모든 머지사이드의 시민들은 그들의 영웅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라임 스트리트 역은 리버풀 선수들과 FA 컵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오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다. 이십오만 명의 시민들이 그들의 영웅들에게 갈채를 보내기 위해서 리버풀 타운 홀로 가는 바람에 거리 곳곳이 조용할 지경이었다.

샹클리와 선수들이 FA 컵을 가지고 라임 가를 따라 시의 중심부로 카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리버풀 팬들은 '리-버-풀! 리-버-풀!'을 연호했고 마치 리버풀 시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감정이 격해진 샹클리는 리버풀 타운 홀까지 진행된 카퍼레이드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잠깐이라도 실제 FA 우승컵을 보기위해 그곳으로 몰려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웹블리에서 승리의 개선을 한 지 3일이 지난 후 리버풀은 인터 밀란과의 유러피언 컵 준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도시의 절반은 여전히 FA 컵 우승의 축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빅 매치의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안필드 경기장 주변은 인파들로 꽉 들어찼으며 경찰을 리버풀 구단에게 오후부터 경기장 출입문을 열어서 관중들을 경기장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안필드 경기장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경기장으로 바로 발길을 돌리

면서 오후 티타임 무렵에 이미 관중들로 꽉 들어차게 되었다. 공장들도 보통은 야간 근무조의 근무를 위해 계속 조업을 하게 마련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유러피언 컵의 영광에 도전하는 리버풀을 응원하기 위해 일손을 놓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바람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샹클리는 이처럼 뻑뻑하게 들어찬 관중들과 소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붙잡았다. 샹클리는 이탈리아 선수단에는 경기장에 나가서 몸을 풀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선수들은 운동장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환대는 밀란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그들은 지난번 샹클리가 자신들에게 안필드에서 만나게 될 리버풀 팬들은 그들로서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팬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했다.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기 위해 곱의 팬들 앞으로 달려 나온 이탈리아 선수들은 골대 뒤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한테 공포감을 느꼈고 몸을 돌려서는 반대편 골대가 있는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그쪽에서의 환영도 적대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몇 분이 지난 후 리버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자 폭발적인 소리가 터져 나왔고 안필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두 번째 심리전도 리버풀의 승리로 돌아갔다.

'상대방을 죽을 것 같은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샹클리의 계획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결승전에서 부상을 입은 FA 컵의 영웅들인 밀튼과 반이 우승컵을 들고 경기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두 '부상' 선수가 절뚝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반짝거리는 우승컵을 치켜들고 경기장 주변을 돌자 안필드의 관중들은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몇 분 동안 인터 밀란과 유러피언 컵은 완전히 잊혀 졌으며 오만 오천의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에-야-아디오, 우리가 우승컵을 차지했다네'를 합창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이 집단 도취의 표출을 보고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흥분 잘하는 그들 라틴 사람들의 기질도 그들이 방금 목격한 열정과 광기에는 비교될 수가 없었다.

헌트가 경기 시작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첫 골을 터뜨려 안필드의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충격으로 동요하는 듯 했으나 마졸라의 골로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칼라한과 세이트 존의 골로 리버풀은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 밀란에게 기분 좋은 두 골 차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비극적인 소식이 도시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0년간 리버풀 구단의 비서로서 일해 왔던 지미 매킨스가 캠링가의 회전문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매킨스의 자살은 리버풀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생겨난 엄청난 업무량 탓으로 돌려졌다.

리버풀의 유러피언 컵 대회에서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주 뒤에 열린 산시로 경기장에서 벌어진 두 번째 경기에서 밀란은 결승 진출에 필요했던 3골을 득점 하면서 결국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밀란이 리버풀 쪽에다 보복을 하였다. 그들은 경기 전 9만 명의 관중들을 흥분 상태로 몰아갔는데 경기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첫째로, 이탈리아 선수들이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골을 넣었고 페이로가 골키퍼 손에 있던 공을 차 넣어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으며 밀란 선수들의 고의적인 태클과 주심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인해 리버풀 선수들은 냉정을 잃었고 세 번째 골이 들어가자 감정이 폭발했으며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샹클리도 분노했다. 그의 선수들은 승리를 도둑맞았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방법으로 선수들의 기분을 달래 주었는데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괜찮다 제군들. 우리는 졌다. 하지만 우리가 비공식적인 세계 최강팀 밀란에게 한 일을 봐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리버풀이라는 팀을 이겼기 때문이다 - 너희들이 스스로 이룩해 낸 위상이다!'

그의 말은 맞았다. 밀란은 백만장자 구단으로서 위대한 선수인 산드로 마졸라, 페체티, 야일과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페이로가 있는 팀이었다. 감독인 헤레라는 유럽 축구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전술가로 칭송받고 있었다.

리버풀과 샹클리는 교훈을 얻었다. 유러피언 컵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4년 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의 승격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한다면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

샹클리는 빠르게 리버풀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일반 팬들과 나누는 교감은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구단과 팬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리버풀 FC는 가족이 되었다. 샹클리는 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라면 문제가 크건 작건 간에 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어디든지 나설 태세였다.

토미 도처티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가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화를 기억하고 있다. 표를 구하지 못한 리버풀 팬들이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샹클리는 첼시 구단에 입장권 오백 매를 요청하였고 그들이 안필드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될 때는 그만큼 입장권을 첼시 팬들에게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입장권을 움켜 쥔 샹클리는 경기장 밖에서 서성이며 라디오로 경기 중계방송을 듣고 있던 리버풀 팬들에게 다가갔다.

'여기 표가 있네, 친구들. 자네들을 위해서 표를 가지고 왔네.' 영웅은 황홀경에 빠진 군중들에게 표를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이상하다고 보았지만 샹클리와 리버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이상 더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일이었다.

리버풀의 전성시대

60년대 중반까지 리버풀은 '대영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위한 도전자로서의 입지를 스스로 다져가고 있었다.

영국 총리 헤럴드 윌슨은 위털 출신이었고 후이튼 선거구를 대표하고 있었다. '리버풀 사운드'는 라디오 방송과 클럽의 주크박스 그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오디오 기기 위에서 대중음악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틀즈, 제리 앤 페이스 메이커스, 빌리 J. 크라머 그리고 다코타스는 전 세계 사람들을 '머지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들도록 만들었다. 리버풀과 에버턴은 둘 다 리그 챔피언의 경험을 하였고 붉은 전사들이 펼치는 국내와 유럽에서의 영광스런 활약은 머지 뱅크를 훨씬 넘어선 지역에 있는 축구팬들의 상상력까지 사로잡았다.

리버 버드는 잉글랜드의 상징인 런던의 빅벤만큼이나 유명해졌다. '거친 소리'라고 한때 무시되었던 리버풀 억양도 이제는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말씨가 되었다. 비틀즈는 영국 왕실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존재가 되었다. 머지사이드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분 좋은 요소들의 많은 부분이 안필드에 있는 축구 감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당시에 미국 갱스터를 흉내 낸 듯한 샹클리의 행동거지는 전설이 되었다. 지미 캐그니식 으스대는 걸음 걸이에 비딱하게 쓴 펠트 모자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레인코트는 리버풀 사람들의 흥미 거리가 되었다. 선수들은 샹클리가 좋아하는 영웅들의 사진도 보게 되었다.

론 에이즈의 회상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엘리엇, 네스, 벽시 모란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캐그니가 한 대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친구들은 일을 잘못하면 총알 세례를 받아 - 이 친구들이야말로 대단한 놈들이라고."

금요일 저녁이면 샹클리는 집에서 네스와 함께 샹클리의 영웅인 엘리엇 네스가 나오는 '언더처블스'시리즈를 보곤 했으며 원정 경기를 떠나기 위해 선수들이

금요일 밤 리버풀 구단의 호텔에 머물러야 할 때면 그는 딱 알맞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해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네스와 그의 요원들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고 보곤 했다.

샹클리와 리버풀은 자랑스럽게 1965년 - 66년 시즌에 돌입하였다. 아버딘의 골키퍼 존 '터비' 오그스톤이 이적료 십만 파운드에 보조 골키퍼로 리버풀 유니폼을 입었다. 크리스마스 무렵까지 리버풀은 리그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FA 컵 대회에서는 토미 도처티의 젊은 첼시 팀에게 3라운드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 시즌 FA 컵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 유러피언 컵 위너스 컵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전망들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를 두 경기 합계 2 대 1로 눌렀으며, 벨기에의 스탠다드 리에주, 헝가리의 혼베드 팀도 리버풀의 제물이 되었다. 리버풀은 4장에서 글래스고의 셀틱 팀을 만나게 되었다.

셀틱과의 경기에 앞서서 샹클리는 숙적 에버턴을 5 대 0으로 누르고 리버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는데 이 더비 경기에 앞서서 샹클리와 페이즐리는 벨레필드에 있는 에버턴의 훈련장을 찾아 감독인 해리 케터릭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에버턴은 강팀이었다. 그러나 그는 리버풀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항상 하던 대로 그들에게 얘기했다. '방금 에버턴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고 왔다. 케터릭이 선수들을 뛰게 하는 것을 보니까 토요일쯤 되면 에버턴 선수들은 지쳐 떨어져 있을 거야.'

선수들은 모두 페이즐리가 내기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샹클리가 페이즐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일요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승리한다는 데에다가 최고의 배당률로 걸게 나.'

경기 당일 날 샹클리는 방문 팀을 맞았고 그들을 보자 리버풀의 탈의실 쪽으로 고품을 질렀다. '제군들, 이 친구들은 거의 걷지도 못하는데. 아주 맛이 갔군 그래!'

샹클리의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에버턴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것으로 감독의 의도에 화답했으며 기억에 남을만한 5 대 0 의 승리를 거두었다.

리버풀은 컵 위너스 컵 준결승 경기를 치르기 위해 글래스고로 갔다. 상대팀 셀틱은 상클리의 오랜 친구 조크 스타인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안필드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홈경기에서 두 세골 차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셀틱은 경기 내내 압박을 가했으나 견고한 리버풀의 수비진에 막혀 간신히 한 골만 기록할 수 있었다.

안필드에서 벌어진 2차전은 광적인 셀틱 팬들까지 모여들어 경기장이 팬들로 넘쳐날 지경이었다. 이 경기에서 리버풀은 스미스와 스트롱의 득점으로 2점차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리버풀은 다시 한 번 1부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으며 글래스고우 햄튼 파크에서 벌어질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컵 위너스 컵 결승전을 대비하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햄튼 파크는 당연하게도 반 정도가 비어 있었으며 대부분 머지 사이드에서 온 사만 천명의 관중들은 1965년 - 66년 컵 위너스 컵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90분이 지나고 경기 스코어는 1 대 1 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햄튼 파크에 비가 퍼부었고 연장전에 돌입한 리버풀 선수들과 도르트문트 선수들은 젖은 운동장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였다. 연장전에서 독일 선수들이 득점을 하였고 그 득점이 우승을 결정짓는 골이었다.

유럽 대회 우승은 다시 한 번 상클리와 붉은 전사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지만 그래도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기에 축하해야 할 일은 많았다.

리버풀 시민들은 또한 다른 잉글랜드 사람들과 함께 잉글랜드가 서독을 누르고 1966년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특히 리버풀과 에버턴에서 잉글랜드의 월드컵 대표 팀에 피터 톰슨, 고든 밀른, 로저 헌트, 이언 칼라한, 앨런 볼 그리고 레이 윌슨 선수가 뽑혔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 중에서도 헌트, 볼 그리고 윌슨 선수는 결승전 경기에 직접 뛰었다.

당연히 리버풀은 그들이 잉글랜드의 월드컵 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업적에 기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상클리는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월드컵 대회가 부정적이고 수비위주인 팀들만 돋보이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고

브라질 팀을 빼놓고는 모든 팀들이 다 수비적이었다. 잉글랜드 국가 대표 팀은 마치 잘하는 잉글랜드 프로 팀처럼 경기를 했는데 그것이 서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

'66년 - '67년 시즌의 시작에 앞서 리버풀과 에버턴은 FA 채리티 쉴드 결승전이 열리는 구디슨 파크 인근에서 피파 월드컵을 앞세우고 행진을 하였다. 머지사이드의 시민들은 그들의 월드컵 영웅들에게 갈채를 보냈지만 상클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안필드 영웅들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들이 거둔 성공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그들은 국내에서 리그와 컵 대회 경기들만 치르는 게 아니라 선수들 대부분이 국가 대표 팀의 부름도 받고 있었고 유럽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클리는 이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리버풀의 위대함은 그들의 '팀을 위하는 정신'과 그가 안필드에 정착시킨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선수들과 팬들은 지난 6년 동안 많은 것을 함께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분수령에 도달했다. 감정적인 것과 의리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가야하나 아니면 보다 더 많은 성공을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해야 하나? 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아스날 팀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토미 스미스나 다른 선수들, 리버풀이란 도시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 그들에게 이제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상클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리버풀도 팀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었다. 60년대를 벗어나 70년대로 향하고자 하다면 팀 재구성과 혁신 작업은 시작되어야만 했다. 진짜 성공의 증거로서 유러피언 컵이 안필드의 우승컵 전시실에 전시되어야만 했다.

멀고도 험한 길

많은 잉글랜드 축구 팬들과 몇몇 리버풀의 팬들은 1966년부터 1973년 사이의 기간을 '리버풀이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7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이 말이 맞을지 몰라도 상클리가 70년대를 위해 팀을 재구성하고 있던 이 시기에 리버풀은 여전히 경기를 이기는 팀이었다.

1971년 - 72년 시즌의 리버풀은 특히 강했는데 FA 컵 결승까지 올랐고 유러피언 컵 - 위너스 컵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상클리가 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동안에도 관중들은 안필드 구장을 가득 매워주었다. 1967년에 이루어진 중요한 계약으로는 북아일랜드 대표 팀 감독이었던 조프 트웬티맨을 리버풀의 스카우트 국장으로 영입한 것이었다. 상클리는 선수들이 이적료 십만 파운드 이상의 몸값으로 팀을 옮겨 다니는 이적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팀 내부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리저브 팀은 미래의 안필드 스타들을 만들어 낼 것이었다. 리버풀은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내서 싼 값에 영입을 해다가 리버풀 식으로 키워 나갈 것이었다.

명성이 있는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랭커셔, 체셔, 위털, 웨일즈에도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데려다가 붉은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있는 리버풀 가족, 리버풀 선수로 만들 것이었다.

선수들의 연봉은 6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히 상승했다. 리버풀은 선수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불하지는 않는 팀이었는데 상클리는 축구 선수들은 그들의 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중산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반면에 많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들은 많은 연봉을 기대할 게 틀림없었다. 리버풀에서는 어떤 선수도 동료 선수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지 않았는데 안필드 밖에서는 이러한 연봉 시스템을 선호하는 구단들이 거의 없었다. 그것이 리버풀

과 다른 구단들과의 차이점이었다. 안필드로 오는 선수들은 팀을 위해 뛰고 싶어서 오는 것이었지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리버풀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는'것으로 여겨지는 선수들은 계약하기 전이나 후에도 계속해서 팀에서 눈여겨보았다.

샹클리가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은 다음과 같았다. '이봐, 일단 자네가 리버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거야. 매 순간 순간마다 나나 우리 직원들이 자네를 주시할걸세.'

이것이 안필드식 스타일이었다. 리버풀은 엄격한 규율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예를 들면 선수들의 식사는 항상 미리 계획된 식단에 의해 준비되었다. 샹클리에 있어서 축구는 일종의 '사회주의'였다. 그는 선수들에게 팀을 위해 백 퍼센트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의 붉은 전사들은 사실상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샹클리와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다이어트와 팀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것이다.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샹클리의 생각에 그 선수는 먹고 체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그 뒤로 수개월 동안 그 젊은 선수는 매 끼니마다 스테이크와 달걀로 된 식사를 하였다. 하루는 그가 샹클리에게 와서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지 물어보았다.

'결혼한다고?' 샹클리가 통명스레 응수했다. '이봐, 자네는 지금 결혼할 수가 없어. 지금 한창 시즌 중이란다. 나도 시즌이 끝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

'하지만 감독님!' 그 선수가 애원을 했다, '저는 이번에 꼭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샹클리는 페이스를 향해 돌아서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제기랄. 이제 이 친구 스테이크 그만 먹여! 그동안 잘 먹여가면서 섹스광을 키워왔잖아!'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조 페이지가 리저브 팀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66년부터 1973년 사이의 기간 동안 몇몇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1966년에 에멀린 휴즈가 블랙풀에서 영입이 되었다. 1967년에는 토니 헤이트리가 첼시에서 왔으며 1968년에는 레이 클레멘스와 알렉 린드세이가 안필드에 입성하였다. 레리 로이드는 1969년에 리버풀 유니폼을 입었고 1970년과 73년

사이에 스티브 하이웨이, 존 토샷, 케빈 키건, 트레버 스토티, 피터 코맥 그리고 알랜 와들 선수가 페이건의 인상적인 리저브 팀에서 올라온 필 보스마, 더그 리버모어, 브라이언 홀 같은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합류했다.

이 선수들은 안필드식 지도 방법을 즐겼다. 이들은 샹클리, 페이즐리, 베넷과 페이건으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헌신, 전문성 그리고 열성을 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다.

브라이언 홀은 처음 샹클리의 위트와 유머를 접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홀 선수는 프레스턴 출신으로서 리버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홀은 리버풀의 리저브 팀에서 뛰었는데 수입에 보탬이 되고자 여름동안에는 버스 운전 일을 하였다. 그가 오후 버스 운전 교대를 하러 가기에 앞서서 안필드로 왔을 때 샹클리는 그가 버스 운전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홀 선수가 키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본 샹클리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꼭 지미 클리셔로우와 계약한 것 같군그래.'

홀이 누구인지 들은 다음에 그는 덧붙였다. '이보게 자네, 정말 대단하군. 대학을 나왔다고? 말해보게 젊은 친구. 요즘은 버스 운전하는데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나?'

이런 '소개'의 과정을 거친 후 샹클리는 홀이 프레스턴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뒤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를 따로 불러서 자신의 프레스턴 노스 앤드 시절 얘기를 해주거나 톰 핀니의 뛰어난 실력에 대한 얘기를 열성적으로 하곤 했다.

샹클리와 페이즐리는 체계적으로 새로운 리버풀의 선수들을 육성했으며 머지않아 새로운 불사조(리버풀 팀의 상징)가 재(ash)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예정이었다. 리즈, 아스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광 속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동안 리버풀은 70년대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며 팀을 만들고 있었다. 안필드 구장 역시 이런 변화의 시기의 일부였다.

시가 자랑할 만한 경기장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해준 첫 단계의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 팬들의 충성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졌다. 멜우드 시설들 역시 혁신되었다.

샹클리는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던 팀들의 목덜미를 낚아채서 앞으로 도

약하였고' 매 토요일 저녁마다 경기장을 찾아주는 팬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다. 그 자신 역시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지미 캐그니와 흡사하게 생겼으며 항상 농담하기를 즐기고 모든 리버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우승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팬들은 상클리결에 서 있을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것은 상클리가 팬들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소수에게만 부여되었던 영광스런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리버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었다.

비록 이 시기의 리버풀이 우승컵을 품에 안지는 못했지만 리버풀의 새로운 팀은 이제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1970년 - 71년 시즌은 강력한 아스날이 우승을 차지했지만 클레멘스, 홀, 휴즈, 에반스, 톰슨, 토샤와 헤이웨이로 구성된 붉은 전사들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벌어진 FA 컵 준결승전에서 숙적 에버턴을 물리치면서 다시 리버풀 영광 재현의 서막을 알리는 불을 붙였다. 웬블리에서 벌어진 FA 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은 전 후반 경기가 끝났을 때 아스날과 1 대 1의 스코어를 기록하였으나 연장전에서 2대 1로 패하고 말았다.

모든 리버풀의 팬들은 '72년 - '73년 시즌이 개막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1970년부터 72년까지의 기간 동안 붉은 전사들은 자신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70년대의 성공을 가져올 팀이 완성되었다. 하이버니언과 노츠 포레스트에서 활약했던 뛰어난 스타 피터 코맥과 19세의 케빈 키건의 가세는 곱의 팬들에게 리버풀의 성공과 같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일으켰다.

브라이언 홀은 이후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상호 존경'과 '전체로서의 존경'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상클리를 존경했고 그는 선수들을 존경했으며 팀원 모두는 팬들을 존경했고 팬들은 그 존경을 되돌려 주었다. 전체로서 하나의 팀이었다.'

에멀린 휴즈는 팀이 '토탈 사커'를 했다고 덧붙였다. '모든 선수가 다 승자였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 '토탈 사커'라는 개념은 1974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대표 팀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보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상클리의 팀의 특징이 되어 있었다. 1970년대를 맞이하던 상클리의 선수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선수들이 어떤 형태의 축구를 해주길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상클리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내 팀의 선수들은 자신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플레이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복잡한 주문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개의 선수들은 간단히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된다.'

선수들은 스스로를 가족의 일원,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도록 격려되었고 누구나 서로에게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었고 도울 수 있었다.

만약 한 선수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면 상클리는 그 선수를 불러 세웠다. '이봐, 만약 네 이웃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집에서 나와 이웃을 도와야지!'

이러한 동료애와 그들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덕분에 그들은 1972년 - 73년 시즌 리그 우승컵을 차지하였고 다시 한 번 콕에 모인 팬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 팀이 바로 상클리가 만들고자 꿈꿔왔던 팀이었다.

다음 2년 동안 상클리와 리버풀의 앞날에 또 다른 영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에는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빠져 나갔던 유러피언 컵의 영광이 그가 안필드를 떠나기 전 그의 품안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올해의 감독

1972년 - 73년 시즌이 시작되자 리버풀의 팬들은 새 단장을 마친 안필드 구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향후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톰 산더스가 팀의 새로운 코칭스태프로 합류했으며 샹클리의 코치진은 리버풀이 UEFA 컵 출전 자격을 획득하자 리그와 유럽 대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선수들을 이끌고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샹클리는 팀원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그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 브라이언 홀의 회상이다. '그는 마치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다. 항상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압박감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유머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존 토삭이 리버풀과 계약하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샹클리는 그들 부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토삭의 아내가 파란 색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인, 그 코트는 이제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붉은 색을 입습니다.'

감독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위기에서 선수들은 발전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항상 안필드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뒤 안필드를 가장 마지막에 나서는 감독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샹클리도 화를 낼 때가 있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고 감정이 상한 채로 선수와 그냥 헤어지는 법이 없었다. 샹클리가 선수들에게 가지고 있던 존경의 마음은 그가 언론들을 대할 때 잘 나타났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의 형편 없는 플레이에 대해서 팀 전체로 혹은 개별 선수들에 대해서 비판할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한 비난이 경기장 밖을 넘어서 공개적인 자리까지 퍼져나가게 하지는 않았다.

리버풀은 1972년 - 73년 시즌에 팀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우승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영국이 유럽 공동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리버풀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60년대의 머지 비트는 사라지고 없었다. 버컨헤드에 있던 카멜 레이어드의 조선소는 빠르게 쇠락하고 있었다. 머지사이드도 다른 영국내의 공업 지대와 마찬가지로 파업의 어두운 길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실업 문제와 급여, 노동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와 고용주들에 맞서서 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선적과 하역에 관련한 항만의 일들이 동부 연안의 항구 도시들로 옮겨가고 있었다.

리버풀 FC는 다시 한 번 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팬들은 오만 명을 수용하는 안필드 구장을 가득 매웠으며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의 불안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환영했다. 만약 고용 불안이 매일의 일상에서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었다면 적어도 안필드 안에서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의 즐거움을 누리고 삶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상클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상기시켰다. 그들은 안필드를 찾는 팬들을 위해 그들이 가진 백 퍼센트를 다 쏟아 부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해 주어야 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이었다. 리버풀 팀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시즌동안 리버풀은 단지 몇 경기만을 내줬을 뿐이었고 상클리의 선수들은 레스터 시티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비기면서 관중들로 가득 찬 안필드 구장에서 리그 우승 타이틀을 움켜질 수 있었다.

상클리와 선수들이 경기장 주위를 돌때 경기장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했다. 이 날을 위해 붉은 셔츠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상클리는 곱 앞쪽으로 걸어가서는 공중을 향해 힘차게 주먹을 내질렀다. 신이 난 관중들은 목청껏 '상클리! - 상클리! - 상클리!'를 연호했다. 팬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들어와 그들의 영웅들을 에워쌌고 경찰관 하나가 흥에 넘친 곱의 팬이 경기장 안으로 집어던진 스카프 한 장을 발로 차서 한쪽 구석으로 치우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상클리는 가까이에 있던 젊은 경찰관을 밀치면서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요.'

케빈 키건과 계약을 한 것이 샹클리의 빛나는 업적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키건과 토샤이 짝을 이룬 공격진은 '72년 - '73년 시즌 우승을 위한 레이스 내내 상대팀의 수비진을 초토화시켰고 그 시즌 리버풀이 유럽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케빈 키건은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고, 샹클리와 같이 탄광 마을 출신이었다. 샹클리의 경우처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모두 탄광에서 일을 했다. 이러한 배경이 그와 샹클리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했으며 키건은 오늘날 까지도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는 내가 안필드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곳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크게 존경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키건도 안필드의 분위기에 흠뻑 빠졌다. 샹클리는 선수들에 대해 '인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쏟았다.' 샹클리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케빈 키건은 대단한 소질과 강인한 내면의 힘을 가진 놀라운 선수라고 주장한 것이 키건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았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샹클리는 60년대 유러피언 컵 대회에 도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식을 70년대의 팀에게 전수하였다. 대륙의 팀들과 유러피언 컵 경기를 할 때 리버풀은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를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방에게 공을 거의 뺏기지 않는 경기를 진행하였고 홈경기에서는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였다.

아인트레흐트 프랑크푸르트, AEK 아테네, 디나모 베를린 그리고 디나모 드레스덴이 리버풀 앞에 무릎을 꿇었고 UEFA 컵 우승을 차지했던 토트넘도 준결승전에서 리버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이제 샹클리의 유럽 대회 영광을 위해서는 결승전 두 경기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리버풀의 사람들이 우승을 기원하였다. 그들은 단지 팀과 도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샹클리를 위해서도 우승을 기원하였다. 그들은 UEFA 컵을 앞세우고 샹클리가 고향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는 이 도시를 행진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리버풀의 결승전 상대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던 보루시아 뮌헨그라드바하 팀이었는데 얼마 전 웹블리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3 대 1로 완파한 독일 대표 팀 소속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강팀이었다. 베르티 보그츠나 오베심몬센, 키티 네쳐 그리고 댄너 같은 선수들은 유럽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

들이었다. 상클리의 선수들이 그런 재능 있는 선수들의 생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넘지 못할 산이 될 것인가? 리버풀은 그들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었다. 안필드에서의 첫 경기는 약 30분 정도 경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취소되었고 다음날 재경기가 열리게 되었다. 취소가 된 경기에서 잠깐 독일 팀과 경기를 해본 상클리는 주전 선수들에 변화를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 상클리는 보루시아 팀이 토샤와 같은 장신 스트라이커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웨일즈 출신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였다. 유러피언 컵의 우승 메달을 목에 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토샤는 화가 잔뜩 나 이적을 요구하면서 안필드 구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가 폼비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상클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이, 아직 잠자리에 안 들었나? 이봐, 경기장으로 다시 오는 게 좋겠어. 내일 자네가 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

다음날 토샤-키건 조합은 보루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키건의 두골과 레리 로이드의 골로 리버풀은 3 대 0의 승리를 거두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토샤의 높은 공격은 위협적이었고 독일의 수비수는 감독에게 자신도 유러피언 컵 우승 메달을 목에 걸 실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편 선수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2차전에서 보루시아는 리버풀을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안필드에서의 패배가 컸다. 비록 독일 선수들이 2골을 득점했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리버풀의 미드필드 진과 수비진들을 추가 실점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버텼다.

이것은 상클리가 고대해왔던 순간이었다. 그가 유러피언 컵을 리버풀로 가져가게 된 것이었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던 그의 젊은 붉은 전사들이 마침내 유럽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붉은 전사들은 자신들의 경기 스타일로 대륙의 팀들을 꺾었다. 수비 쪽에서는 공을 돌리면서 키건이나 토샤에게 공을 투입하기 전까지 천천히 준비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아주 효과적이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상클리는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너희들을 아주 뛰어나고 상대편 선수들은 결

코 너희들로부터 공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선수들이 일부러 실점하지 않는 이상 결과는 바뀔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리버풀 사람들조차도 결승전이 열린 다음날 새벽, 의기양양한 리버풀 선수들이 UEFA 컵을 가지고 오전 1시 스피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든 것을 보고 놀랐다. 다시 한 번 도시는 축제 분위기였다. 분명히 축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리버풀은 리그 챔피언이자 UEFA 컵의 우승팀이었고 이제 잉글랜드 축구계가 상클리에게 올해의 감독상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기리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상클리다운 일화가 없이 시즌이 종료될 리 없었다.

시즌 동안 선수들의 활약에 고무된 리버풀의 경영진들이 선수들의 급여를 올려 주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이언 홀이 회상이다. '우리는 따로따로 감독님 방으로 불려가서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했다. 가만 있어보자, 우리는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사십 파운드를 인상해 달라고 하면 그는 삼십 파운드로 하자고 깎을 게 분명했다. 우리가 팔십 파운드를 올려 달라고 하면 오십 파운드 정도로 내릴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팔십 파운드를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게나." 상클리가 말했다. "그래 얼마나 급여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감독님, 제 생각엔 주당 팔십 파운드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

"좋아. 다음 사람 들여보내."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홀이 말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단에서는 원래 우리에게 주당 백 파운드를 인상해 주기로 결정했었는데 상클리가 우리를 가슴 졸이게 만들어서는 팔십 파운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리버풀을 떠나다

1973년 - 74년 시즌은 상클리가 리버풀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이었다. 비록 그가 슬픔과 후회를 간직한 채 리버풀을 떠나게 되었지만 은퇴에 앞서서 웹블리에서의 마지막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클리가 그토록 안필드로 가지고 오고 싶어 했던 유러피언 컵은 결국 제 시간에 와주지 않았다. 룩셈부르크의 유네세에서 팀을 첫 라운드에서 물리쳤던 리버풀은 그러나 레드 스타 벨그라드에게 패해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조크 스타인이나 맷 버스비에 비해서 그는 결코 유럽 대회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밥 페이즐리가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길을 닦아 놓았다. 리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힘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73 - '74년 시즌을 놀라운 활약을 펼쳤던 리즈 유나이티드에 이어 2위로 마감하였는데 돈 레비가 이끄는 젊은 요크셔의 팀에게 승점 5점이 뒤진 성적이었다. 상클리는 그러나 팀을 떠나기에 앞서서 고향의 팬들을 위해 이임 선물을 준비할 참이었다. FA 컵에서 동커스터, 칼라일, 임스위치, 브리스틀 시티와 레스터를 격파한 리버풀은 웹블리구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이 경기는 상클리에게 있어서나 런던으로 순례를 떠나는 리버풀 분견대에 있어서나 매우 감정적인 경기가 될 예정이었다.

뉴캐슬은 FA 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인 보비 몬커였는데 그는 견고한 수비진을 이끌었고 그들은 상대에게 쉽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뉴캐슬이 센터 포워드이자 잉글랜드 국가 대표 선수인 말콤 맥도널드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뉴캐슬 팬들이 매우 사랑하는 선수였다. 맥도널드는 전국 언론에다 대고 웹블리에서 뉴캐슬이 리버풀을 박살낼 거라고 큰 소리를 쳐서 상클리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리버풀로부터 도발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데

키건이 두 골을 넣었고 헤이웨이가 한골을 보태서 경기는 리버풀이 완전히 주도한 채로 끝이 났으며 붉은 색으로 경기장을 물들인 리버풀 팬들은 다시 한 번 환희 속으로 빠져 들었다.

경기가 끝난 후 웹블리에서 벌어졌던 장면들은 그 이전이나 또는 그 이후에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1973년 - 74년 FA 컵 결승전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나 TV 중계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날 리버풀이 보여준 장면이 정말 대단했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전국의 모든 눈이 리버풀 벤치에 앉아있던 주름진 얼굴의 스코틀랜드 인에게 쏠렸다. 그는 선수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잘못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면 흥분된 몸짓으로 선수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곤 하였다. 리버풀의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고품으로 지시를 내리고 계속 압박하라고 독려했으며 그러한 압박 상태를 상대편 진영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해서 뉴캐슬 쪽에서 도저히 리버풀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맥도날드를 위한 마지막 인사도 남겨놓고 있었다. '우리도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하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지난 주 내내 그가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다녔다. 그는 말뿐이었고 우리는 이겼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상클리는 웹블리 경기장의 잔디 위로 나아갔으며 여전히 리버풀의 서포터스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두 팔은 벌리고 주먹은 꼭 쥐 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는 리버풀 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몇몇 팬들은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와 그와 악수를 하기도 하고 그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몇몇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웅의 발에 키스를 하기도 했다. 리버풀 팬들이 다시 한 번 특유의 스타일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런던에는 또다시 경기 후 상클리의 이름을 연호하는 "상클리! - 상클리! - 상클리!"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후 리버풀에서 벌어진 카퍼레이드 행사에는 수만 명의 리버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상클리와 선수들 그리고 FA 컵을 태운 버스가 환영식이 벌어질 성조지 홀을 향해 가는 동안 그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보냈다.

그날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브라이언 홀이 말했다. '우리가 거리를 따라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샹클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대학도 나온 똑똑한 친구잖아. 말해봐. 저기 왜 모든 국민들이 추종한다는 그 중국 친구 이름이 뭐지?"

'내가 대답했다, "그건 왜요? 마오쩌둥이잖아요, 감독님." 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궁금했다.

'샹클리가 대답했다. "아! 맞아, 그 친구. 마오쩌둥 주석. 바로 그 친구 말이야."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샹클리는 성 조지 홀의 발코니에서 시의 고위 인사들과 선수들과 함께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홀은 기억한다. '군중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귀가 다 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샹클리가 양 팔을 위로 들어 올리더니 군중들을 향해 잠시 조용히 해줬으면 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수천 명의 청중들의 그의 뜻에 따라 조용해 졌으며 바닥에 편이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가 연설을 했습니다.'

샹클리가 선언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도 오늘 같은 위대한 붉은 힘의 향연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홀은 미소를 지었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물어보나 했다. 이 능구렁이 같은 양반 하고는.'

그날 밤 '당신은 결코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 가락이 리버풀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위대한 우상이 한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샹클리는 헤어짐에 앞서 한마디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가 잉글랜드 축구계에 끼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대영 제국 4등 훈위를 받는 자리에서 그는 이 영광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리버풀의 시민들과 리버풀 FC의 영광이다.'

아! 글렌벡이 가르쳐준 교훈. 한 사람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다.

당시 잉글랜드 축구계는 비슷한 성장 배경에 서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

에서 태어난 세 명의 스코틀랜드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이 세 명의 이름은 상클리와 버스비 그리고 스테인 으로서 이들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도 최고의 전략가이자 일등급의 코치로서 알려졌으며 존경을 받았다. 세 명 모두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똑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살아생전에 전설이 되었다.

버스비는 지도자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 축구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나중에 기사 작위를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리버풀 팬들은 상클리가 대영 제국 4등 훈위박에 받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 사무처하고 있다.

1974년 7월 12일 언론 매체들이 안필드에 모여 아스날로부터 영입한 레이 케네디 선수의 입단식을 취재하고 있을 때 기자들은 단장인 존 스미스가 선수를 소개하면서 전하게 될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장 노련한 베테랑 기자들도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이사회와 최고 수장으로서 이러한 발표를 해야만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클리가 이제 프로 축구계를 떠나서 은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침묵이 찾아들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던 상클리도 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이 결정은 성급하게 내린 것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내 맘속을 맴돌았던 생각이고 나도 이제 43년 동안 청춘을 바쳐온 축구를 떠나서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내나 나나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상클리는 은퇴를하기로 한 결정이 그가 지금까지 내렸던 결정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결심이였다고 덧붙였다. '마치 전기의자로 걸어들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이 지글지글 타오를 것만 같았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과 네스는 계속해서 이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리버풀에서 살 것이라고 확신시켰으며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처음으로 제 나이인 60대 처럼 보이는 가운데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되면 나는 물러날 겁니다. 리버풀과는 공적으로 완전하게 결별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계속해서 리버풀 경기를 보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기를 보러 올 때면 나는 리버풀이 이기

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콥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 뉴스를 접한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머지사이드는 상클리가 떠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상클리가 화가 나서 한번 해보는 소릴 거야. 전에도 팀을 떠난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

'빌이 팀을 떠난다고?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는 잠깐 휴식이 필요한 것뿐이야.'

사람들은 상클리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전혀 61세로 보이지 않는다. 안 그런가? 항상 건강하며 도시를 활보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열정으로 넘쳐났다.

그러나 상클리는 지쳤고 네스는 몸이 안 좋았다. 둘은 여러 가지를 의논했으며 이제 남은 인생은 조용하게 보내기로 합의를 하였다. 빌은 이제 가족들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보람차고 여유로운 시간을 같이 보낼 예정이었다.

그녀 자신도 몸이 썩 좋지 않았지만 네스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다. '빌은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당시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지칠 수는 있죠. 나는 그를 다그치거나 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그의 결정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나는 그에게 은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요청을 했으며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한 충격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상클리에게 있어 은퇴란 과문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잡히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오랜 리버풀 팬인 토미 솔로몬은 말했다. 1974년 7월 12일 밤, 리버풀의 술집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후에 사람들은 상클리가 팀을 떠나는 것이 리버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던 상실감이라는 것은 나중에 존 레논이 죽었을 때 느꼈던 상실감 정도라야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다.

'마치 가족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죽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콥의 오랜 팬인 토니 칼라한이 말했다.

사람들이 왜 상클리가 팀을 떠나려하는지 이유를 알아내고자 하면서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존 스미스가 이전의 단장들과는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는 직접 실무에 참가하는 중역 이었으며

선수들의 이적이나 팀과 관련한 일들, 구단의 홍보와 재정에 이르기까지 구단의 모든 문제를 감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스미스는 새로운 현대적인 경영 가였고 상클리는 요즘 말로 치면 '옛날 노동자'같은 사람이었다.

아스날로부터 레이 케네디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존 스미스 단장이 리버풀의 경영진을 이끌게 되자 이전까지 선수 계약에 있어서 상클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리버풀은 안필드로 오는 선수들에 대해 경영진에서 검증하는 예전의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 간 것이었다.

이전에는 상클리에게 양도되었던 권한이 다시 경영진들에게로 되돌려졌다. 그는 더 이상 선수들의 급여 협상이나 홍보 그리고 언론의 보도 자료에 있어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일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소위 '전문가들'이 맡게 되었다. 상클리는 결코 구단의 일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정신 산란한' 일들을 할 시간이 없었다. 상클리는 감독이었다. 그는 선수 지도, 주전 선수 결정과 선수 이적에서부터 대중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구단의 모든 일을 감독해왔다. T.V. 윌리엄스, 시드니 리크스, 그리고 에릭 로버츠에 이르기 까지 전임 구단주들 시절에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정권을 구축하고 그만의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권을 부여받았다. 에릭 소이어는 상클리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라고 격려하고 지원하였다.

스미스는 상클리를 더 이상 60년대의 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위대한 감독은 이제 늙었으며 일생을 축구와 함께 하면서 지쳐있었다. 그의 위치를 방어하고 또 다시 경영진들과 싸우기보다 그는 그냥 걸어 나가야 했다. 이제 그는 구시대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 일해야 했고 모든 일에 다 관여해야 했으며 모든 돌아가는 내막을 다 꿰고 있어야 했다. 이제 경영진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모든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로운 구단주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줄 수 있는 젊은 감독을 바라고 있었다. 상클리는 이것을 계급 간 전쟁의 한 단면으로 보았다. 그가 그동안 안필드의 지배 계급으로부터 권한을 쟁취해 누려 왔다면 그 권한이 이제 다시 되돌아 간 것이었다. 그는 권한을 강탈당한 것이다.

스미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비록 그는 이제 상클리가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른 자리를 제의했다. 상클리의 실질적인 은퇴를 위해서 총감독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는 비교적 후한 급여에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도 있었다. 나중에 맷 버스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 총감독의 자리를 맡았었다. 스미스는 상클리에게 나중에 재출발을 위해 쉬어가는 기분으로라도 계속 안필드에 남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팀을 떠났을 때 발생할 팬들의 사기 문제를 알고 있었다.

상클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잠시 축구를 떠나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리버풀 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빌, 잠시 쉬도록 하세요. 한 일 년이나 이년정도 쉬고 난 뒤 다시 팀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런 말은 전혀 없었다. 그는 이제 구단에서 리버풀 감독의 입지가 이사회에 '허수아비'가 되어야 할 정도로 그의 권력의 근간이 침식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느꼈다. 축구를 둘러싼 정치가 바뀌었다. 빌은 이제 과거 시스템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러한 과거의 시스템은 이제 축구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새로운 경영진들에 의해 교체되고 있었다.

이제 진짜로 상클리의 카리스마가 있을만한 자리는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 앞서가던 팀의 목덜미를 잡아채서 뒤쳐져있던 리버풀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으며 팀을 20세기의 강팀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21세기 식으로 팀을 이끌어 가려하고 있었다.

상클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는 결코 돈 때문에 리버풀에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영 제국 4등 훈위는 결코 그를 움직이게 한 힘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몸과 마음을 다 리버풀 FC에 바쳤으나 새로운 사람들의 그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을 때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옛 친구인 셸틱 감독이었던 조크 스타인과는 달리 그는 결코 안필드에서 독재 권력을 누렸던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마오쩌둥을 언급하면서 그가 암시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명예 구단주라는 자리가 충분했을까? 그와 리버풀과의 이별은 쓴 맛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에게 리버풀 감독으로 있으면서 남는 후회가 있다면 많은 급여를 달라고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미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부업을 통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올려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재정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와 네스는 항상 벨레필드가에 있는 평범한 규모의 같은 집에서 살았다.

공식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는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만 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

그가 팀을 떠난 뒤에도 상클리리와 리버풀과의 마찰은 계속 되었다. 상클리리는 그냥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웹블리에서 벌어진 FA 채리티 쉴드 경기에 리버풀 팀을 지휘했다든가 며칠 뒤에 셀틱 파크에서 빌리 맥닐을 위한 기념 경기에 참석한 행사 등은 상클리리가 팬들에게 작별의 말을 할 기회로 이용되어지지 않았다. 그런 행사들은 상클리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명서들이었다. 슬픈 일이지만 아마도 상클리리는 팬들이 리버풀 경영진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상클리리는 팀에 꼭 남아야 된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리거나 리버풀 경기 관전을 거부한다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단합된' 움직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은퇴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상클리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으며 그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 주었다.

리버풀은 두세 명의 유력한 감독 후보들을 물색하다가 밥 페이즐리를 상클리리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상클리리 자신도 경영진들에게 페이즐리를 차기 감독으로 추천한 바 있었다. 페이즐리도 역시 이미 모든 작업이 전임 감독에 의해 끝이 났으며 자신은 단지 '빌이 만들어 놓은 팀을 인수할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전임자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였다.

'인수'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운명이 아니었다! 상클리리는 마치 자신의 새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어미 사자 같았다.

리버풀 구단은 상클리리에게 멜우드에서 있는 팀의 훈련장에서 운동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였다. 뱅퀴 유령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상클리리는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말을 걸거나 직접 훈련 과정에 참여하곤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은 신임 감독으로서 자기 스타일을 확립해야 하고 선수들에게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페이즐리에게는 옳은 일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 구단은 정중하게 상클리리에게 개인 운동은 멜우드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모

두 끝난 저녁에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해 그 당시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리버풀 팬들은 구단이 너무나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 일은 샹클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시 일해 달라고 요청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물론 그가 조용히 떠나게 될 가슴 아픈 시간도 있게 될 것이었다.

리버풀 홈경기 때 그가 경영진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박스 석에 초대받지 못한 다든가 아니면 경기를 보기 위해 그가 입장권을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했다는 얘기들은 비록 상황을 바꿀만한 힘은 없지만 안 그래도 샹클리가 구단으로부터 잘못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리버풀의 충성스런 팬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었고 지금도 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샹클리도 박스석이 아니라 차라리 콥에서 진정한 리버풀 팬들과 함께 서겠다고 구단을 위협함으로써 팬들의 이러한 감정에 불을 붙였다.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구단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어찌되었든 새로운 감독과 함께 계속해서 팀을 꾸려 나갔다. 샹클리도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샹클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에이셔 지방 출신의 고집과 자존심, 확신과 열정이 이제는 그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구단 사이에 쓰디 쓴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마도 새로운 사람들, 지성과 세련미를 갖췄다고들 하는 현대적인 구단 운영진들은 샹클리의 은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사려 깊게 겸허함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팀의 팬인 레이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사회 복지를 전공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도 그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일처리를 했을 것이다!'

새로운 스타일의 구단주들은 자신들이 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모든 관심이 자신들에게 쏠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들은 셀틱, 레인저스, 첼시, 블랙번이나 토트넘 같은 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샹클리는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나 마찬가지였다. 리버풀이 그를 영웅으로 숭배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가 콥의 지붕 위나 아니면 웹블리구장의 센터 서클 안에 서서 지미 캐그니 말투를 흉내 내

면서 '저 좀 보세요, 엄마 - 나 춤추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조차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뀐 세상에서는 샹클리와 같은 감독이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 슬프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말해주듯이 예전에 안필드의 곱을 가득 채우던 팬들을 위한 자리도 이제는 없다. 회사에 입장권을 판매한다든가 시즌 전(全) 경기의 입장권을 판다든가 해외에 있는 팬들을 위한 입장권 할당 같은 것들이 예전에 샹클리가 만들어 놓았던 위대한 가족과 같은 정신에 종말을 가지고 왔다. 이제 안필드 구장을 가득 채우고 곱에 상주하는 리버풀의 팬들은 웨일즈나 잉글랜드 내 다른 지역들 또는 스칸디나비아반도나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샹클리는 이 새로운 물결에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관중들은 부틀, 덩글, 튜부룩, 윌러시, 버컨헤드, 윌턴, 안필드, 에버턴 벨리, 더비 로드, 커크바이, 스킨메스데일, 크로스비처럼 그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리버풀과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리버풀 FC는 리버풀 사람들에게 속해있었다. 그게 구단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는 수백 파운드를 지불할 수 있는 스폰서들, 기업가들, 특권층의 사람들이 경기 입장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리버풀의 감독이 열성 팬들에게 경기 입장권을 나누어주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리버풀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변화는 축구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 자체가 이제는 큰 사업이다. 선수들은 주당 만 파운드에서 이만 파운드를 받는다. 감독들도 십만 파운드 단위의 연봉을 받고 있다. 샹클리는 그의 은퇴 이후 빠르게 다가오고 있던 이런 세상을 맞보지 못했으며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보다 더 단순하고 '축구가 사회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시대를 살았다. 예전의 '서민들의 경기'였던 때와는 달리 이제 축구는 뮤레이, 워커, 헤이워드, 베이츠, 슈거 그리고 맥캔 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전면에 나서기 좋아하는 구단주들의 소유가 되 버렸다.

샹클리의 시대는 갔으며 그와 함께 그의 사상, 철학 그리고 도시의 축구팀이 서민들에게 속했었던 시대도 갔다. 축구당의 '제 4조'는 팬들의 정당 강령에서 삭제 돼 버리고 말았다.

샹클리는 생계를 계속 꾸려나가기 위해서 재기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경험도 있었고 축구에 관한 권위도 가지고 있었으며 축구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조언을 듣고자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에버턴의 벨레필드 훈련장에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 에버턴 팀은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그의 평가와 조언을 구했으며 감독인 하워드 켄들이나 구단의 직원들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 멜우드에서는 그를 내쳤으나 숙적인 에버턴에서 팀의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샹클리를 반겼다는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하겠다!

론 예이츠는 머지 강 건너편의 트랜미어 로버스의 감독이 되자 바로 샹클리를 구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했다. 예이츠는 트랜미어에서 샹클리의 존재가 선수들이나 팬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으며 '빌이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에는 엄청난 환호를 들을 수 있었고 아마 여왕이 경기장에 왔더라도 그 같은 흥분은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스의 작은 구단에 등지를 뜬 샹클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트랜미어 구장의 입구는 리버풀에서 강을 건너온 수천 명의 팬들로 북적였다.

더비 카운티는 샹클리에게 정규직의 자리를 제안했으며 샹클리는 스완시의 토착을 돕기도 했고 토미 도처티는 '위대한 인물을 될 수 있으면 자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모시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 올드 트레포드의 선수들은 경기 전 샹클리가 해주는 조언이나 탈의실에서 가벼운 농담 또는 격려의 말에 잘 따랐으며 도처티는 그러한 것들이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어 가는데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벨레필드에 있는 샹클리의 집 전화기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울려댔는데 감독들과 코치들은 그에게 문의를 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선수에 대한 생각을 묻거나 아니면 그냥 축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언론과의 관계도 계속됐는데 '이것이 인생이다'나 '데저트 아일랜드 디스크'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의 상업 방송국인 라디오 시티에서 하는 샹클리 쇼를 즐겨 들곤 했다. 라디오와 TV 인터뷰, 리버풀 알더헤이 병원을 방문하는 일, 만찬 강연, 팬들의 모임이나 유소년 클럽 모임 참가 등은 샹클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대중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면 샹클리는 항상 경기

장을 찾곤 했는데 물론 홈 구단의 귀빈 자격으로였다.

다른 많은 '은퇴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상클리도 네스의 강권으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취미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상클리가 그녀가 소중이 여기는 꽃들을 잡초라고 생각하고 뽑아버리는 바람에 그녀를 소스라치게 만들곤 하였다. 원예 도구들은 곧 창고 속으로 되돌아가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리버풀 구단은 스코틀랜드 지역 스카우터의 역할을 그에게 제안하였는데 그는 화를 내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제안이라는 것이 단지 구단의 돈으로 네스와 함께 글래스고나 에어를 여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러한 생색이나 내는 제안에 격노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뻔히 눈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구단의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와 구단과의 관계에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리버풀 구단이 상클리를 원정 경기에 초대하기까지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리버풀 구단은 단호하게 상클리와 거리를 두었으며 브뤼주에서 열린 UEFA컵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는 그를 경기에 초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에두르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상클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비행기로 떠나는 여정 속에서 그는 거의 무시를 당했으며 공식 파티가 벌어지는 장소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호텔에 다른 두 명의 선수 부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다.

리버풀 사람들은 60대인 상클리가 에버턴의 14세 이하 팀 경기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축구장 근처를 산책하다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젊은이들이나 실업자들의 경기에 끼어들어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 혹은 리버풀 대 에버턴으로 팀을 가르고 경기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곤 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클리의 기행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사랑하는 상클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머지사이드에서는 그가 여전히 '안필드의 왕'이었고 그가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구단이 그를 대하는 처사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상클리가 데려온 위대한 선수인 케빈 키건은 이러한 팬들의 기분을 대변해준다. '그들은 몇 개의 구장 출입문을 상클리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리버풀 선수들이 상클리 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팬들도 이것

을 받아들일 것이다. 상클리가 안필드에서의 영광을 시작했다. 빌 상클리가 없었다면 안필드는 오늘날의 위치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구단 역시 예전에 그가 합류하기 전의 모습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출입문에 이름을 붙이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단도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키건은 물론 예전 감독의 업적을 기려서 안필드 구장에 세워진 상클리 게이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샹클리는 영원하다

샹클리의 말년에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구단들은 그들의 경기장 내에 '샹클리 특별실'을 지어서 그의 업적을 기렸다. 1980년 8월 워킹턴 타운에서 그를 초청하여 '샹클리 라운지'를 여는 행사를 가졌을 때는 그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우편배달부들은 벨라필드에 있는 샹클리와 네스의 집으로 팬들이나 그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의 우편물 또는 리버풀 팬들의 선물을 꾸러미채로 배달하곤 했다. 샹클리는 자서전을 집필하거나 기자들과 그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 특히 팬들이 그에게 바치는 헌사들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냈다.

1978년 그를 기념하는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리고 리버풀의 팬들이 '영광으로의 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와 '샹클리에게, 팬으로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은으로 된 컵을 수여하자 그는 특별히 감격해 했다. 그가 팀을 떠나면서 생겼던 안 좋은 감정들은 유감스럽게도 1981년 9월 26일 토요일, 샹클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난 뒤 조간신문에서 축구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다 갑자기 심장 마비를 일으켰을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리버풀 사람들은 그의 심장 마비 소식을 듣고 걱정에 잠겼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팬들이 보내 온 전문들,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들, 꽃들과 전화가 병원으로 쇄도했다. 그의 상태를 묻는 문의들은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날아들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였다.

그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이어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드 그린 병원 밖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9월 29일 화요일 새벽 0시 30분, 그에게 두 번째이자 최후의 심장 마비가 닥쳐왔다.

새벽 1시 20분, 병원은 뉴스를 전했다. '샹클리씨가 운명하셨습니다.'

머지사이드의 사람들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샹클리가 죽었다. 리버풀 시 전역에서는 성인 남녀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눈물

을 흘렸다. 사람들은 일터로 나서지 않았고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으며 수만 명의 리버풀 가족들이 상클리의 사망을 애도하였다. 신문들은 우울한 소식을 1면으로 전했다. '상클리 사망하다.' 상클리의 죽음 이전이나 이후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리버풀 시는 이러한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았다.

도시가 조기를 내 걸고 팬들과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동안 모임은 취소가 되었고 공장과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

리버풀이 한 시대가 끝이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술집은 조용했고 일상적인 도시의 소란스러움도 가라앉았다.

그 당시는 리버풀로서도 좋은 시절이 아니었다. 실업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특스테스에서 있었던 시민 소요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 그리고 이제 상클리의 죽음까지.

일반 사람들은 상클리의 죽음으로 인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던 많은 부분 역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던 시절 상클리는 그들을 한데 모이게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은 결집시켰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축구 감독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았던 존재의 죽음이었으며 사람들이 매달려 있던 바위가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이 각자 조금씩 죽은 것만 같았다.

상클리의 장례식은 1981년 10월 2일 금요일, 리버풀 웨스트 더비 지역에 있는 성 마리 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상클리의 장의차가 벨레필드 거리를 지나갈 때 상클리의 집에서 단지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있던 에버턴의 연습 구장인 멜우드 밖에서는 에버턴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이 침묵 속에 도열하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장의차와 장례 차량들이 지나가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 양쪽으로 도열하여 머리를 숙였다.

잉글랜드의 프로 리그의 92개 팀과 스코틀랜드의 몇몇 구단이 장례식에 조문 인사를 파견했으며 맷 버스비, 톰 핀니를 비롯한 많은 축구계의 전설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리버풀의 '6피트 공격수' 토샷, 예이츠, 휴즈, 클레멘스가 관을 높이 들어 운구하였고 키건과 칼라한 그리고 세인트 존이 운구 행렬을 이끄

는 것을 지켜보았다.

교회에서의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상클리가 안필드 구장 가까이 있는 프라이러리 로드 화장터를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동안 수천 명의 시민들이 침묵 속에 서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였다. 파업 중이던 화장터의 일꾼들도 그날만큼은 일터로 나와서 상클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장중함 속에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클리가 떠나간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글렌벙 출신 재단사의 아들을 영웅으로 여겼던 리버풀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그는 1958년 이곳으로 와서 리버풀 구단은 물론 축구계 전체의 모습을 싹 바꿔 놓았다. 스코틀랜드의 꽃이자 리버풀의 자유인이었던 그 같은 인물을 언제 다시 보게 될 것인가?



샹클리에 대한 추억

그의 은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씩씩한 '음모론'들이 나돌고 있기는 해도 리버풀 FC는 그들 자신들로부터 빌 샹클리를 떼어놓을 수 없었으며 또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케빈 키건은 위대한 영웅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안필드 구장의 명칭을 샹클리 구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곳에는 샹클리를 추억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다.

안필드 구장의 입구에는 인상적인 '샹클리의 문'이 있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고 새 안필드 박물관에는 그의 경력을 증언해 주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으며 그가 1965년 인터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탈의실에서 선수들에게 연설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1997년 12월 4일에는 코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실물보다 큰 8피트 크기의 샹클리 청동상 제막식이 부인인 네스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동상은 리버풀 출신 유명한 조각가인 톰 머피가 제작하였으며 전형적인 샹클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인상적인 기념물은 아주 간단한 문구를 새긴 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샹클리 -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라고 쓰여 있다. 안필드 구장에는 샹클리 특별실이 있으며 1997년 4월 26일에 리버풀 팬들(특히 스코티시 코울사와 리버풀 원정 응원단 모임)이 이제는 쇠락해 버린 옛 글렌벡 마을 인근에 세운 화강암으로 된 대좌는 그곳의 노천 광산업이 중단됨에 따라 옛 글렌벡 마을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자리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헌사들은 그가 진심으로 연민과 고결함을 가지고 봉사해 온 일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리버풀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리버풀 사람들로부터 샹클리에 대한 추종을 끌어내 온 그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다. 안필드에서의 그의 업적들, 축구가 가져온 성공들, 팬들과의 관계, 그의 위트나 유머, 그리고 그의 대중 연설 능력에 대한 얘기들은 글로 많이 쓰여

지거나 방송이 되었다. 그러나 리버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일을 완수했다고 해서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샹클리가 죽은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축구에 관한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리버풀 사람들로부터 불멸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 이상의 더 큰 감동을 심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리버풀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서 샹클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많은 리버풀 사람들의 삶속에서 그들을 감동 시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어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목사나 신부들보다도 리버풀 사람들에게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가 수많은 팬들에게 베풀었던 자선 행위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 일,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일, 불이익을 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 아낌없는 노력을 바친 일들은 리버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얼더헤이 병원(Alder-Hey Hospital)에 대한 샹클리의 관심, 시의 양로원들이나 호스피스들을 계속해서 방문했던 일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준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내가 리버풀에서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노력들이 다른 샹클리의 전기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가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축구에 관한 샹클리의 행적들과 기록들은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서 축구의 측면에서 그의 삶을 조사하는 일은 아주 쉬웠다. 그의 재치 있는 입담들이나 그에 관한 일화들 역시 잘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몹시 불던 1997년 4월의 어느 날 글렌벡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한 헤럴드지의 기사를 읽고 나서 나는 왜 그가 리버풀에서 그토록 존경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왜 책 모란이 머지사이드에서 남부 에이셔까지 먼 길을 걸어왔는가. '축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톰!' 책이 말했다. '왜 사람들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죠? 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음에도 왜 기사 작위를 받지 못한 겁니까?'

나는 샹클리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리버풀에서의 조사에 착수했다.

나는 샹클리가 죽고 난 뒤에도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오래 지

속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스코틀랜드 작가가 이곳으로 와서 상클리에 대한 책을 쓴다는 얘기를 들은 많은 리버풀 사람들은 내가 목고 있는 크로스비의 전화선이 불통이 될 정도로 많은 전화들을 걸어와서 상클리가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일화들을 얘기해 주고자하는 열성을 보여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내가 있는 곳으로 방문 해왔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상클리와 관계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주었다. 택시 기사들은 나를 '상클리 책'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택시 요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상클리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곤 하였다.

리버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내 앞을 가로막고서는 그들만의 상클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놀랍기도 하면서 뭔가 깨닫게 해주는 바도 있었다.

그들이 해준 상클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개하자면 추가적으로 책 두 권 분량은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 때문에 축구를 벗어나서 상클리의 인간적인 측면을 느끼게 해 주는 편지 두 통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2 라크힐
에슈어스트
스케머스데일
랭커셔

안녕하십니까? 더비씨

빌 상클리에 관해

1970년대에 저는 커크비의 타운힐에서 권투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저희 도장에서는 런던이나 아일랜드 등지에서 선수들을 초청하여 큰 시합을 열곤 했습니다.

저는 두 번 정도 상클리에게 행사에 참석해서 선수들에게 컵이나 메달을 수여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8시에 전화가 울리더니 제 아들 브라이언(그때가 한 여덟 살이나 아홉 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에버턴의 팬이 되려던 참이었죠)이 전화를 받았습시다. 아들놈이 저한테 전화를 바꿔 주었는데 바로 빌이었습니다. 빌과 저는 30분은 족히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대에 응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겠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제 부인, 제 가족들 그리고 권투 도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무렵이었는데도 마치 저의 오랜 친구처럼 시간을 내어서 저와 대화를 해주더군요. 제 아들 브라이언은 여섯 명의 제 자식 놈들 중 유일하게 리버풀 팬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그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전화를 해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유감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제 부인이었습니다(또 다른 에버턴 팬이랍니다). 그는 제 부인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에도 제 가족들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따뜻한 심성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축구 구단인 리버풀 FC의 감독 얘기를 함에

있어서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전화를 직접 해주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해주는 일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단 명의로 거절하는 통지문을 보냈어도 충분한 일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빌이 직접 전화를 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 그의 '서민적인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되어지며 그의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빌 상클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그가 리버풀에서 결코 잊혀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과소평가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빌 상클리 자신이 리버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패트릭 맥엘히니



안녕하십니까? 톰.

며칠 전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뻐합니다. 제가 빌을 만나게 된 것은 저의 일을 통해서였는데 저는 학교에서 애들에게 수영을 가르쳤었습니다. 스폰서가 딸린 수영 대회에서 애들이 수영을 마치고 나면 샹클리가 상을 시상하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날 수영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제 생각에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애들은 모두 탈리도마이드 진정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은 그 아이들이 아동 보호 단체인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수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영 대회는 한두 시간 안으로 끝날 성격의 일이 아니었고 샹클리는 풀장 옆에 앉아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저와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빌은 저에게 아픈 어린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병원에서 만났던 11살이나 12살 정도 되었을 소녀에 대한 얘기를 매우 애뜻하게 했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 아픈 상태였고 암에 걸렸는데 빌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 사실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빌은 몇 번 그 소녀를 만났는데 슬프게도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비록 빌이 그녀의 가족들과도 아주 정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죽은 소녀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입장에서는 초대를 받아들여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습니다. 빌이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당신에게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빌은 그것이 안 그래도 상심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심지가 굳은 이 사람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녀의 장례식에 갔었다고요.' 그는 장례식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본 다음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나중에 그 소녀의 부모에게 당신이 왔었다는 사실을 얘기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아니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가족들 이름도 모르고 톰 당신도 모르고 날짜도 잘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밖에 주차되어 있던 번쩍번쩍 빛나는 그의 카프리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어렴풋이 씩씩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차를 가리키더니 다음과 같은 투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게 내가 리버풀을 떠난 뒤 내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과 같은 것이라오.' 빌은 당연하게도 새로운 투광 조명시설이나 캠린 로드 스탠드 같은 그가 안필드 구장에 도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시설들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단지 국내에서의 성공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유럽 대회로부터 벌어들이는 재정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1975년) 머지 도크나 하버 보드 사도 자신들의 노동자들에게 번쩍거리는 카프리 보다는 더 나은 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벼운 얘기로 제 편지를 끝맺을까 합니다, 톰. 아약스하고 유러피언 컵 대회를 치를 때 얘깁니다. 첫 경기를 끝내고 나서 다섯 골 차로 앞선 상황에서 두 번째 경기 당일 날 데일리 익스프레스지(제 생각에는 그 신문인 것 같습니다)에 다음과 같은 머릿기사가 났습니다. '일곱 골 차가 날 것이다, 라고 샹클리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저는 샹클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고 경기장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 있냐고요.

'만약 피터 톰슨이 경기 시작 후 6분 만에 골대에 부딪히지만 았았더라도 우리는 일곱 골을 기록하고 쉽게 경기를 이겼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정말로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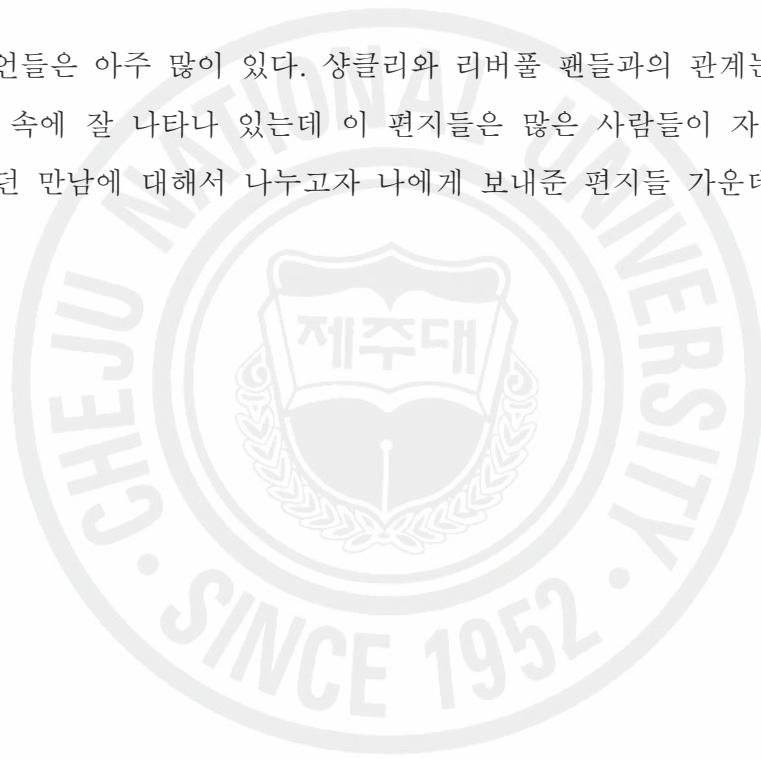
진지하고 애정이 넘치며 감화력이 있으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을 조리 있게 쓰지를 못해서. 톰, 하지만 당신이 제 글에서 뭔가 책에 소개해도 될 만한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집필 잘하시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라드 리즌

이러한 증언들은 아주 많이 있다. 상클리위 리버풀 팬들과의 관계는 다음에 나오는 편지들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편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상클리위의 특별했던 만남에 대해서 나누고자 나에게 보내준 편지들 가운데서 고른 것이다.



친애하는 다비씨

리버풀 에코 지를 읽고 당신이 고 빌 샹클리와 관련된 이야기나 일화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딱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하지 않고 그가 리버풀 감독직을 그만 둔 7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제가 더 알아보면 아마 정확한 날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즌 첫 경기였는데 (로프터스 가에서 벌어진) 리버풀은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2 대 1로 졌으며 게리 프렌시스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원정 축구팬들을 태운 기차를 타고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저희는 일반 기차 편으로 갈아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몇 이유로 해서 저희는 버밍햄에서 기차를 갈아타기로 했는데 아마도 경찰이 저희를 쫓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리버풀 행 기차에 올랐고 혹시 일등석 객차에 좌석이 비어있는 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차 맨 뒤 객차에서 앞쪽 객차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등석 객차를 휘젓고 다니다가 한 사람만 타고 있는 열차 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회색 양복에 빨간 셔츠 그리고 어두운 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따듯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바로 빌 샹클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걸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제가 가장 먼저 열차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여기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샹클리씨?'가 제 머리에 떠오른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되고말고. 경기 보고 오는 길인가?' 저희가 리버풀 출신이라는 것을 눈치 채고 그가 말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얘기해 주게나.'

저희는 기차 일등칸에 앉아서 집으로 오는 동안 샹클리가 해주는 축구 얘기

를 들었습니다(저는 그가 축구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은퇴를 한 입장이라 네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고 그도 그 말을 하면서 확신에 차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레이 케네디를 영입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설사 기회가 됐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것이 구단과 그 사이의 문제였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에는 꺾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 저희에게 만약 토요일 오후에 뭐 시간 보낼 만한 일을 찾는다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50펜스에 자기 집 정원에 앉아서 축구 얘기를 하며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오는 동안 영국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경찰은 저희가 불법으로 승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클리가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는 안 될 거요. 필요하다면 내가 이 젊은 친구들 운임은 다 내리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지금 자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기차에 남아 있었고 라임 스트리트 역에 도착했습니다. 리버풀 팀과 그들이 경기에 졌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저희는 상클리와 함께 역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누구 같이 타실 분 안계신가?'

저는 택시 안으로 뛰어들었고 상클리의 집까지 택시를 얻어 탔으며 (제 집에서는 수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는 동안 상클리가 택시 운전사가 즐거우라고 해 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몇 년 뒤에 상클리는 죽었습니다. 저는 축구가 그의 생명의 근원이었으며 축구가 없이는 그의 인생도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글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 L. 암브로스



18 성 폴 펠리스
호손 가
부틀, 머지사이드

안녕하세요, 톰.

저는 1942년부터 리버풀의 팬으로 지내왔고 빌 샹클리의 열성 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축구를 위해 해온 위대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령 연금을 타고 있으며 더 이상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지요. 어쨌든 저의 샹클리 이야기는 1963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제가 시즌 입장권을 갱신하려고 구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6월 초의 어느 화창한 날 안필드로 갔을 때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장권을 파는 사무실도 문이 잠겨있었고 모든 게 죽은 듯 했습니다. 잘 살펴보니 선수들이 입장하는 곳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사투리가 들리더니 벼락같은 목소리로 누군가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는지 물어 오더군요. 다름 아닌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시즌 입장권을 갱신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저와 악수를 하더니 저를 이끌고 사무실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신사 분 잘 모시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일세.'

저는 그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으며 방금 신과 대화를 나눴다는 생각에 기분이 붕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 집필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반드시 구입해서 내 리버풀 FC 기념품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탠리 J. 메이어스

26 하이어 앤드 파크

세프톤, 부틀

머지사이드

안녕하세요, 톰.

1997년 11월 2일 일요일 날 전화로 통화한 것에 이어서 리버풀 에코 지에 실렸던 샹클리와의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 보냅니다.

1966년 어머니께서 샹클리에게 10실링이 동봉된 편지를 보내시면서 저를 위해서 수요일 날 벌어지는 에버턴과 셰필드와의 컵 대회 경기의 입장권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리버풀 팬이었지만 저는 에버턴 팬이었습니다(잡탕 가족이라고 불렸었지요).

어쨌든 처음에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소방서로(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나를 위해 입장권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샹클리씨는 70실링짜리 관람석 입장권을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에버턴을 응원해 왔고 마침내 컵 대회 결승전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웹블리에 있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한잔 마시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티켓을 구해달라고 했던 젊은이가 당신인가 보군만.'

제가 돌아봤을 때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샹클리 씨와 P. 로빈슨 씨(리버풀 구단 비서)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단지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그때 심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말일 겁니다. 제가 축구 팬으로서 항상 경기장에 참석해서 경기를 관람했던 위대한 영웅이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샹클리는 저에게 리버풀과 리즈의 컵 대회 결승전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리즈 팀의 플레이를 비난했던 얘기들이나 누가 볼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던 말들 왜냐하면 그런 팀이 경기를 승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축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축구라는 경기를 마치 자기의 삶 그 자체만큼이나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가 사인을 해준 프로그램과 그날의 경기 입장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선데이 픽토리얼 지에서 그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입장권을 구해 달라며 성가시게 굴었던 한 에버턴 팬 이야기를 썼더군요(바로 접니다).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약간 윤색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나는 그 칼럼을 올려놓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이 편지에 그 칼럼 복사한 것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당신 책에 썼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항상 사람들이 상클리씨가 얼마나 훌륭하고 진정한 축구 팬 이었는지를 알았으면 하고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단 한 번도 꿈을 이루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런 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피부색이야 어떻든 축구팬들과 일종의 동맹을 맺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팬들이라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장에 와주고 축구에 대해서 자신들의 돈과 꿈을 쓰고 경기장에서 목청껏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책에 쓰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테니스 N. 맥도널드

70 오체스터 로드

부틀

머지사이드

안녕하세요, 톰.

우리 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그가 우리 팀으로 온지 얼마 안됐을 때, 저는 리용 메이드 아이스크림 공장의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거리를 다니는 아이스크림 트럭에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서 투입하곤 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프로 축구 선수들의 급여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였고 특히 여름에는 많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용한 직원들 중에는 샹클리의 선수들도 있었는데 주로 리저브 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이 그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양반은 정말 미쳤어 - 아침마다 달걀을 삶아서 컵에다가 넣을 때까지 그 삶은 달걀을 가지고 접시 주위로 드리블을 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축구를 생각하고 한 시도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톰, 결국 샹클리는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셈이지요. 그는 확실히 노동자 계급의 감독이었습니다. 웹블리에서 결승전이 있기 전 건축 노동일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혹시나 표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안필드로 찾아갔었습니다. 그가 아침 훈련 시간을 끝나치고 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그곳에 벽돌공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벽돌공들은 좋다고 따라 들어갔지요. 샹클리는 자기 책상 서랍을 열더니 그 안에 있던 종이 다발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수한테도 몇 장 줄 것'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장도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톰, 책을 쓰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나오면 저도 구입하겠습니다.

저는 전쟁이 막 끝난 직후 중동에서 스코틀랜드 국가 대표 선수들과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탠 맥라렌 PNE, 꼬마 윌리 레드패스, 사람들이 공군 대

위였던 맥메네미를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블랙폴의 주장이었던 해리 존슨도 있었습니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레그 가넷



안녕하세요, 톰.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우선 리버풀 병원 내에 있었던 로열 945AM 방송의 스포츠 해설자로서, 두 번째로는 40년간 계속되어온 리버풀의 팬 입장에서 당신 책을 위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78년, 제가 리버풀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머지사이드 관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팀이 5명으로 구성된 축구 시합을 진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계 인사가 우승 팀에게 트로피를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빌 샹클리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버풀 감독직에서 떠난 상태였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가 벨레필드에 있는 에버턴 연습 구장의 맞은편에 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벽이 옆집과 이어진 구조로 된 열두 채 정도의 집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곧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집만이 붉은 색과 흰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집이 틀림없어 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그 집으로 다가가서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숙녀 분은 우리에게 샹클리씨는 그 집이 아니라 바로 이웃집에 산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샹클리는 그 이웃집에 살고 있었고 저희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리버풀 선수들, 특히 저의 영웅들인 세인트 존이나 예이츠, 헛트 그리고 피터 톰슨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자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벅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저희들이 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의 얘기를 듣고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그의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축구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제 동료는 아마도 언제 제가 그에게 결승전에 참석해서 메달을 수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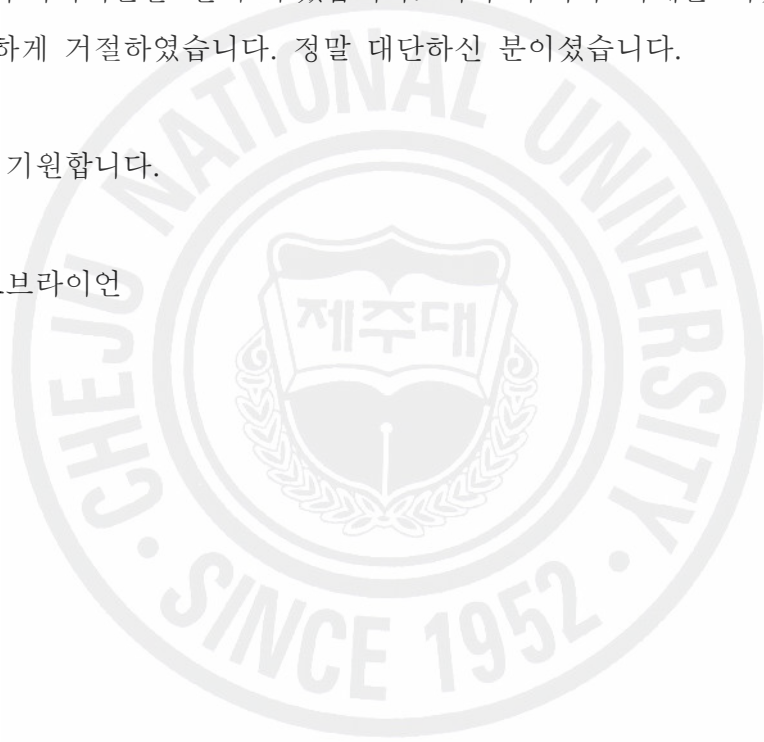
한 시간이나 흘렀을까, 샹클리가 제 동료 쪽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는 별로 말이 없군 그래, 헌데 자네 예전에 한창 날리던 레슬링 선수 아니었나? '초록 섬광'이 자네 맞지?'. 알고 봤더니 제 동료는 젊었을 때 '초록 섬광'으로 알려진 프로 레슬링 선수였었고 60년대에 TV에 정기적으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상클리는 프로 레슬링 열성 팬이었고 그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 동료는 이런 사실을 결코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초록 섬광'으로 알려져 있었고 몽둥이를 잘 휘두르던 선수였습니다.

아무튼 빌은 기꺼이 우리의 초청에 응해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남아서 사인도 해주고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도 해주었으며 모두에게 추억거리들을 안겨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레이 오브라이언



21 디 클로스
시몬스우드
커크비, 리버풀

안녕하세요, 더비씨.

리버풀 에코 지에 난 당신의 요청 기사를 보고 위대한 신사인 빌 상클리에 대해 씁니다.

제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 크리스틴과 저를 리버풀 FC의 경기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제 동생은 리버풀 팀을 사랑했고 지금도 리버풀의 팬이지요. 사실 제가 지금의 남편이랑 사귄 때 한번은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남편에게 했던 첫 질문도 '자네 리버풀 팬인가 아니면 그들 가운데 한명인가?' (에버턴 팬을 의미함)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리버풀 팬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스물한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안필드 구장으로 가서 동생의 생일 카드에다가 모든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서 선물로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된 아들과 세 살 난 아들, 이렇게 둘을 유모차에다 태우고 제가 살고 있던 스코틀랜드가 에서부터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안필드에 도착했을 때 마침 클레멘스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생일 카드에 리버풀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레이가 되돌아 와서는 아직 감독님의 사인은 받지 못했는데 그가 곧 여기를 떠날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 살 난 제 아들과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빌 상클리와 밥 페이지리가 막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로 달려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차를 멈출 이유도 저한테 아는 체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클리씨는 창문을 내리고는 심한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뭐가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생일 카드 얘기를 했고 그는 즉석에서 카드에다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뭐 또 필요한 게 없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경기 전 장내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는 노래들 가운데 제 신청곡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애

기를 하였고 상클리는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서는 제 신청곡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나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부인.' 이라고 말하더니 허리를 굽혀 제 두 아들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올라타더니 출발하면서 저희에게 손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금도 췌체하거나 거만한 기색은 없었으며 그는 항상 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툼, 제 이야기가 당신의 조사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준비하시는 것도 잘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엘리스 피언스



11a 버포드 가

월러시

위털

친애하는 다비씨

방금 리버풀 에코 지 기사를 읽고 당신이 전설적인 빌 샹클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쓰는 글이 당신에게 흥미가 있었으면(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 아마 70년대 언제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 리버풀이 웬블리구장에서 FA 컵 결승전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에게 빌리라는 이름의 스무 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상상 안필드 구장을 찾는 열성 리버풀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FA 컵 결승전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에버턴 팬이기는 했지만 제가 빌에게 편지를 써서 빌리가 처한 곤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무슨 답이 오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하기 어려운 웬블리 입장권과 샹클리가 직접 '쉬!-쉬!' 라고 쓴 메모를 받았을 때의 저의 놀라움과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이 가시겠지요.

당연하게도 빌리는 에버턴 팬인 제가 그런 비싼 리버풀 경기 티켓을 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것은 빌이 죽고 난 뒤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신 책이 잘 되기를 빕니다. 언제 출판된 예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릴리안 G. 스미스

2 램워스 펠리스

노리스 그린

리버풀

안녕하세요, 톰

리버풀 에코 지에 실린 빌 상클리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톰, 당신도 아시겠지만 상클리가 감독으로 취임하기 전 리버풀의 성적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1953년 - 54년 시즌동안 리버풀은 42경기를 치르면서 아홉 번 이겼고, 열 번 비겼으며 스물세 번 졌습니다. 득점은 68점, 실점은 97점이었으며 승점은 28점이었습니다. 그 뒤 5년인가 6년 뒤, 매년 승격에 가까이 갔다가 미끄러지기를 반복한 끝에 리버풀 경영진은 빌 상클리를 감독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감독을 맡은 지 두 시즌 만에 그는 팀을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시켜 놓습니다. 레이튼 오리엔트보다 승점에서 8점이나 앞섰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빌 상클리의 지도하에 리버풀은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1963년 - 64년 과 '65년 - '66년. 1965년에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FA 컵 결승전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뒤 이어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고 컵 위너스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를 누르고 스탠다드 리에주, 혼베드 헝가리 그리고 강팀인 셀틱을 준결승전에서 눌렀습니다. 햄든 파크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리버풀은 서독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루시아는 리버풀을 상대로 2 대 1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빌 상클리와 경기장을 찾았던 리버풀 팬들에게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클리는 다시 일어섰고 리버풀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빌은 항상 리버풀 축구팀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으며 라이벌인 에버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리버풀에 있는 두 개의 훌륭한 축구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상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리버풀에 두 개의 훌륭한 팀이 있습니다. 리버풀하고 리버풀 리저브 팀이요. 그는 언젠가 리버풀 F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우리는 훈련을

함께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라운지에 앉아 축구 얘기를 함께한다. 사실상 이 구단은 한 가족이다.'

리버풀 구장의 곱에서는 항상 샹클리를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빌 샹클리가 없었더라면 리버풀은 오늘날처럼 위대한 구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가 1974년 은퇴할 때 까지 14년 동안 영웅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면서 이후에 더 높은 목표들을 성취했던 팀을 남겨놓았습니다.

빌 샹클리는 또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은 사람들이 결혼기념일에 부인을 데리고 어디로 갔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결혼기념일에 내 아내를 데리고 로즈데일 팀 경기를 보러가지 않았어. 그 경기를 보러 간 날은 내 아내 생일이었다고. 내가 프로 축구 시즌에 결혼 했을 것 같나? 어쨌든 그 경기도 로즈데일 1군 팀 경기가 아니라 리저브 팀 경기였다네.'

한번은 기자가 샹클리에게 리버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하나인 로저 헌트가 홈경기에서 몇 번의 쉬운 득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맞소. 기회 몇 번을 놓쳤지. 하지만 그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득점 찬스가 될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소.' 1971년 심판들에 대한 단속이 있었을 때 그는 심판들의 문제가 '그들이 규칙은 알고 있는데 축구라는 경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1972년, 리버풀과 더비 카운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우승을 놓고 다투고 있을 때 더비 대 시티의 경기를 앞두고 샹클리는 조 머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둘 다 졌으면 좋겠소.' 그는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서민들의 사람이고 선수들의 사람이다. 나를 인도주의자라고 불러도 된다.' 하지만 제 생각에 빌 샹클리가 했던 말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축구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툼, 제가 말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만드는 작업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P.C. 붙



안녕하세요, 톰

제가 형제들과 사촌들과 함께 안필드로 가서 축구 경기를 볼 만큼 크기 전저는 제 집 가까이에 있었던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와서 텔레비전으로 최종 스코어를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잔디밭으로 가서 계속 축구를 하면서 샹클리가 웨스트 더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위해 운전을 하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나타나면 그에게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제가 여덟 살이 되자 제 형들은 저를 경기장으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날 경기는 리버풀 대 코벤트리 1973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린이 구역'에 있다가 후반전 중반쯤 돼서는 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앞이 가려서 경기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니다. 리버풀은 경기에서 이겼고 우리는 열광하는 콥의 관중들 한 가운데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출입구를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저는 인파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호주머니에 경기 프로그램이 쭈셔 넣어져 있는 청바지들, 신발들 그리고 영덩이들뿐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떠밀려서 어느덧 경기장 밖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지 또 집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기장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길을 잃어 버렸고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빌 샹클리가 저희 집 가는 방향을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샹클리라면 저희 집 쪽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장 프런트 쪽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빌이 경기장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형과 함께 있었으며 둘 다 하얀색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격려의 말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 저

는 그에게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빌'이라고 운을 댄 뒤 제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저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만 얘기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베이지 색 마크 1 카프리의 문을 열더니 좌석을 앞쪽으로 당기고는 '타거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샹클리 문을 빠져 나오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집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얘기하려무나. 애야.'

우리가 파인허스트 가를 지나갈 때 제가 샹클리에게 리스번 가에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항상 축구를 하면서 내가 지나갈 때면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그 꼬마니?'

'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차에 탄 우리 셋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리스번 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차로 저희 집 앞까지 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 형들과 친구들, 사촌들은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쪽으로 달려와서 손을 흔들고 빌 샹클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빌'이라고 외치자 모두들 놀라서 얼어붙은 듯 조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빌 샹클리 덕분에 제가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소방관이

친애하는 더비씨

리버풀 에코 지에 실린 빌 상클리에 대한 이야기나 일화 등을 찾는 당신의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당신에게 흥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상클리가 리버풀 감독직을 그만 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 상클리 - 자기 시대의 영웅** 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한정판이었고 내 어머니 로라 블랙번은 - 광적인 리버풀 FC의 팬 - 간신히 그 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당시에 활약하던 리버풀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 그리고 시의 유명 인사들이 상클리에 대해 쓴 헌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사들이 실린 페이지 아래에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동안 제 어머니는 선수들의 헌사가 실린 페이지에 해당 선수들의 사인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심지어 어머니는 존 스미스 (리버풀 구단의 회장)의 사인까지도 받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인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책을 위해서는 빌 상클리가 맨 앞장에다가 사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리버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벨레필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 농담으로 말하길 그것이 그가 '적을 염탐하는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 그곳에는 에버턴 팀의 훈련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언제 어디서라도 그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썼으며 그의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빌은 몇 번 전화를 해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의 위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저한테는 다행스럽게도) 저의 학기 중의 짧은 방학 기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누군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라씨 인가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 쉐라예요.'

'오!' 빌이 말했습니다. '나는 빌 샹클리란다...엄마에게 한 30분쯤 있다가 내가 집으로 방문하겠노라고 좀 전해줄래?'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엄마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셨어야 했는데! 한참 청소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도 돌려놔야했고 30분 안에 손님 맞을 단장도 해야만 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에는 간신히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빌이 걸어 들어와서 나를 덥석 안더니 뺨에다가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도 같은 식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마치 친척이나 오랜 친구들 끼리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빌은 의자에 앉아서 저희 모녀와 약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빌은 어머니의 책에 빨간색 펠트펜으로 사인을 해 주었고 저를 위해서 사진에다가도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와 얘기를 나누는 일은 정말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그는 저희에게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안필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몇 년이 지난 리버풀 경기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었는데 심지어 그 경기에 온 관중 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곧 흘러서 그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고 어머니는 거실 앞에 선 그의 모습과 나와 같이 팔걸이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날의 기억은 1977년 그 일이 있던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으며 지금도 저는 빌 샹클리가 우리 집을 방문해서 차와 비스킷을 들고 갔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얘기하곤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 얘기에 흠뻑 빠져들곤 하지요...어떤 사람들은 빌 샹클리를 만나봤다는 이유로 제 손을 만져 봐도 되는 지 물어보기도 한답니다...그럴 정도로 샹클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 빌과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장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빌의 방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 어머니는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그날 빌 샹클리와의 만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 줄 일도 생기

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책에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의 책을 재미있게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J. 로빈슨 (부인)



417 스토링톤 헤이즈

스토링톤 가

크룩스테스

리버풀

안녕하세요, 톰.

리버풀 사람 룬입니다. 제가 전에 보낸 편지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에 제 집 주소를 써서 보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가족들 가운데 몇 명은 에버턴 팬들이고 그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이 나를 '못살게 굴 것이고' - 에버턴 팬으로서 아마 정신이 나가 버릴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저한테 편지를 보내실 생각이시라면 위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세요. 제 친구 롭 존스의 주소입니다 (저기, 같은 이름의 리버풀 수비수는 아니에요, 톰)

지금부터 '샹클리주의'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홈경기를 앞두고 강팀과 붙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샹클리에게 물었습니다. '저쪽 감독과 얘기를 해 봤는데 감독 말이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샹클리는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가 안필드에서 대접받을 거라고는 차 한 잔과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의 중간 휴식시간 뿐이오.'

기자들은 샹클리와 인터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입담과 나름의 자기 철학을 잘 표현했는데 - 이러한 것은 저에게 그가 텅빈 콕의 테라스 앞에서 한 인터뷰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샹클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도시에서는 축구가 일종의 종교라면서요? 말하자면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나 할까요?'

샹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소, 젊은 양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가끔씩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캐그니'로도 불리곤 했습니다.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가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을 무렵 콕의 지붕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펼치고 '엄마,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을 (캐그니가 나오는 영화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톰,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다시 한 번 제 글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서 말입니다. 리버풀에 머무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끝내기 전에 당신이 친구들에게 시도해 볼만한 농담들 몇 가지를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 항상 잉글랜드에 의해서 선발이 되면서도 한 번도 잉글랜드 국가 대표 팀 유니폼을 입어보지 못한 유명한 리버풀 선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 이언 러시. 그는 항상 마이클 잉글랜드 감독에 의해 선발되어 웨일즈 국가대표 팀에서 활약했지요!

두 명의 리버풀 사람이 술집에 있다. 어느 한쪽도 스카프를 두르거나 축구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누가 리버풀 FC의 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투에서 약간 런던 사투리 냄새가 나는 사람이 바로 리버풀 FC의 팬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톰, 당신의 책이 대성공을 거두기를 빌겠습니다. - 항상 리버풀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론(콕의 팬)

안녕하세요, 톰

요청하신 대로 제가 빌 상클리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처음 느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 동안의 노력 끝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클리의 지도력 덕택에 리버풀은 결국 FA 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토요일 날 경기장에 직접 갔었고 동료들과 함께 런던에서 그날의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런던에서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 보니 아침 8시 쯤 되었는데 제 여덟 살 된 딸이 일어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 역시 아주 흥분해 있었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어제 엄마가 그녀에게 리버풀이 FA 컵에서 우승했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 직장에서 집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모자란 잠을 보충할 것도 없이 우리는 FA 우승컵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들의 영웅들을 맞이하기 위해 시내 중심가로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흥분된 상태로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두 시간쯤 일찍 도착했는데 그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안에 건물 양 옆이나 옥상을 포함해서 그 자리는 빈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의 인구가 확신하건데 칠십 오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선수들과 구단의 직원들이 시장과 시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시청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상클리의 작은 모습은 간신히 보일락 말락 하였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몇 번이나 소란스런 시민들을 조용히 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어떤 사람은 1940년 5월 대공습 때의 폭탄 소리보다도 더 큰 소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작은 체구의 상클리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자 소음은 귀가 멍멍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구세주'가 이제 막 연설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 때 제 생각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는 상클리에게서 나오는 힘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건물들과 엄청난 군중들 때문에 더더욱 왜소해 보이는 그 작은 체구의 인물이 팔을 들어 올리자 군중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에이서 사투리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팀입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동안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땀을 들였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은 1년 동안이라도 계속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의 팔이 올라갔고 이번에도 역시 군중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팬들입니다.' 이 말이 끝나고 터져 나온 환호는 믿기지 않겠지만 아까의 환호성보다 더 컸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상클리의 존재감이 군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게 되자 저는 등줄기가 오싹해지고 머리가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리버풀 사람들은 그를 축구의 구세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봐서 상클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당신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도울 일이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피터 크룩

다른 사람들도 상클리가 그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잭 모란이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 의회를 설득해서 사람들의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팬들의 가족들에게 발생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도와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잭은 다른 많은 이들처럼 아직도 거실에 빌 상클리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

상클리는 아이들에게 키스를 했고 수천 명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것은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 선거 유세에서 하는 식의 악수가 아니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으며 어린이들의 이마에다 해주는 부드러운 키스는 사랑의 제스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자신과 네스 그리고 가족들을 환영해준 리버풀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글렌벡 출신의 청년은 리버풀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손자들이 제대로 된 리버풀 역양을 구사하면서 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였다.

상클리가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광산 노동자였기에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계를 이끄는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는 오래된 남부 에이셔의 전통 속에서 뿔속까지 사회주의자였다. 상클리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는 기독교 신앙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사회주의자다!' 그의 정치적인 색깔은 연민과 정직, 동료들을 보살피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었다. 글렌벡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상클리의 사회주의는 케어 하디와 제니 리의 옛 노동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비록 그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평생 동안 금융에 있어서의 수완가들이나 기업가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상클리는 일반 서민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편안함을 느꼈다 - '그의 사람들'. 상클리에게 있어서 축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회주의', 훈련, 노동,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었으며 - 생을 다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보상이었다. 그의 선수들도 팬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었다. 정치가들에 대한 상클리의 공공연한 불신, 왕실 사람들과 관계를

맷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점,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으로 인해 리버풀 사람들은 그가 기사 작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조크 스테인 경이나 맷 버스비 경과는 달리 상클리는 유러피언 컵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버풀 사람들은 그가 리버풀에서 거둔 업적이 그의 두 스코틀랜드 동료들이 셀틱 파크나 올드 트레포드에서 거둔 업적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인이 이끌던 셀틱 팀은 10년 연속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지만 만약 그들이 잉글랜드 프로 리그에 있었다면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 만약 유럽 컵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사 작위를 수여하도록 만드는 업적이라면 왜 최근에 그런 업적을 달성한 영국의 감독들에게는 그런 작위가 수여되지 않고 있나? 사람들은 그들의 산업에 끼친 공로로 인해 기사 작위를 수여받는다. 컵의 열성 팬들은 묻는다. 리버풀은 산업이 아니었나?

지금 영국은 과거의 업적들을 기리는 많은 행사들과 함께 새로운 천 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한 행사들 가운데 이 글렌벡 출신의 젊은이, 천재이자 전설이었던 그가 평생 동안 평범한 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것을 기리는 행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클리와 리버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찬사이지 않겠는가?

상클리는 영원히 기억되리!

샹클리의 명언들

샹클리의 순간적인 위트, 에이셔 식 유머 그리고 그의 순박함은 그 자신처럼 전설로 남아있다. 샹클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은 과장되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이 바뀌기도 했다. 만약 샹클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다소 기분을 우울하게 했다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샹클리의 어록은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에버턴에 대해서

1971년 컵 대회 준결승전에서 에버턴에게 지고 난 뒤 샹클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도 나를 축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 관을 경기장에 세우고 관 뚜껑에다가는 구멍을 내도록 할 것이다.'

'리버풀에는 오직 두 팀만이 존재한다 - 리버풀과 리버풀 리저브 팀이다!'

에버턴의 전설적인 스타 딕시 던의 장례식에서 샹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일이 무척 슬픈 일이지만 내 생각에 딕시 본인도 자신이 죽은 다음 토요일 오후에 에버턴 팀이 끌어 모으는 관중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놀랄 것이다.'

안필드 에서 더비 시합을 위해 에버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샹클리는 화장지 한 박스를 리버풀 구장의 문지기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 친구들 도착하면 이걸 주게나 - 아마 이게 필요할 거야.'

'나는 항상 일요일마다 신문에서 에버턴이 리그 순위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찾는다 - 물론 순위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말이다.'

'에버턴과 퀸 마리호의 차이점은 에버턴이 더 많은 승객들을 나른다는 점이다.'

한 외국인 기자가 유러피언 컵 대회 취재차 안필드를 방문해서 샹클리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기자가 샹클리에게 리버풀 내에 어디로 가면 채식을 즐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샹클리는 즉석에서 그 기자에게 어떻게 하면 구디슨(에버턴 구장)으로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기서 가면 될 거요. 거기 선수들은 죄다 식물인간들이니까.

일번적인 어록들

선수들을 데리고 런던 팔라디움의 무대 뒤로 토미 쿠퍼를 만나러 갔을 때 샹클리는 그 희극 마술사가 13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럴 수가, 도대체 신발 사이즈가 몇입니까? 나는 그것보다 작은 보트로 아일랜드까지 항해해본 적이 있소이다!'

'안필드에 있는 잔디는 훌륭하다 - 바로 프로 잔디다.'

셀틱의 로우 마카리 선수의 영입이 실패로 끝난 뒤: '어쨌든 그는 뭘 수가 없었을 것이다 - 나는 그 선수를 리저브 팀에 넣으려고 했으니까.'

'자네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야, 자네의 모든 두뇌가 다 머리 안에만 있다는 점 일세.'

멜우드 훈련장에서 5 대 5로 축구 시합을 하고 있을 때 샹클리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프사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팀원들 가운데 가장 말이 없던 크리스 로울러에게 물어보았다: '골이었나, 오프사이드였나?'

'감독님, 오프사이드인데요,' 로울러가 긴장해서 대답했다.

'이런, 자네는 여기 4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말을 한 마디도 안하더니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거짓말부터 하는군.'

'론 예이츠가 수비수라면 우리는 아더 에스키를 골키퍼로 쓸 수도 있다.'

샹클리에 대한 언급들

샹클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캐년 아놀드 마이어스: '빌 샹클리는 그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팀과 많은 가족들과 리버풀 시와 이상을 위해서 살았다.'

1997년 모오트 하우스 호텔 머지 마블 어워드에 참석한 게리 마스덴이 필자에게: '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책을 쓰신 겁니다.'

툼 핀니: '샹클리는 남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글렌벡에서의 론 예이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케빈 키건: '나는 항상 그의 사진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대화를 자주 나눈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에게 많은 빛을 졌다.'

알렉스 영: 리버풀의 스코틀랜드 XI 팀과 리버풀 잉글랜드 XI 팀과의 경기 후 (이 경기에서 샹클리는 스코틀랜드 팀의 감독을 맡았다): '빌 샹클리는 위대한 감독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있으며 그의 밑에서 경기를 하기를 바랐다.'

브라이언 클로우프: '그는 어리석은 신화를 깨버렸다. 바로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말이다.'

잭 모란: '샹클리는 천재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축구계에 그 같은 인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브라이언 홀: '샹클리는 위대하다 - 이런 사람은 딱 한번 뿐이다.'

BBC 라디오 머지사이드의 스포츠 해설자인 앨런 잭슨은 그가 젊었을 때 안필드 구장에서 DJ와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었을 때의 일화를 얘기한다. 경기가 있던 어느 날 그가 아나운서실에서 장내 경기 중계를 하고 있을 때 샹클리가 아나운서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체기랄, 이봐 자네, 우리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을 때는 제발 말 좀 안할 수 없나? 자네가 우리 선수들을 방해하고 있어, 상대편 선수들보다 우리 팀에게 더한 피해를 주고 있다니까.'

샹클리에 대한 언급들은 아주 많다. 하지만 마지막은 토미 솔로몬의 다음 얘기로 장식하기로 하자: 'FA 컵에서 우승한 직후 샹클리와 두 명의 선수들은 안필드 구장 맞은편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섰다. 그들은 시청까지 시가행진을 하기 위해서 막 유니폼을 갈아입은 참이었다. 샹클리는 선수들을 위해 생선 요리를 주문했는데 주문을 받던 여자가 샹클리에게 물었다: '샹클리 씨, 오늘 같은 날은 스테이크 요리를 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아가씨,' 샹클리가 대답했다. '리그 우승까지 하면 근사한 스테이크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거요.'

상클리의 기록들

선수로서의 경력:

크론베리 주니어팀: 1930년 - 32년

칼라일 유나이티드 1932년 7월 - 1933년 7월

프레스턴 노스 앤드 1933년 7월 - 1949년 3월

초청 선수로서 전시 구단에서의 경력:

노리치, 프레스턴 노스 앤드, 리버풀, 아스날, 루턴 타운, 볼튼 원더러스, 이스트 파이프, 패트릭 시슬

스코틀랜드 대표 팀 주장:

1938년 대 잉글랜드

1939년 대 잉글랜드

1939년 대 웨일즈

1939년 대 북아일랜드

1939년 대 헝가리

그 외에도 전시 국가 대항 친선 경기들과 자선 경기들에서 주장을 맡았음

감독으로서의 성취:

칼라일

1949년 3월에 부임하여 4월 9일 첫 경기를 치름

시즌 경기수 승 무 패 최종순위 해당리그

1948-49 7 1 4 2 15위 북부 디비전 3

1949-50 42 16 15 11 9위 북부 디비전 3

시즌	경기수	승	무	패	최종순위	해당리그
1950-51	46	25	12	9	3위	북부 디비전 3

그림스비

1951년 7월 합류

시즌	경기수	승	무	패	최종순위	해당리그
1951-52	46	29	8	9	2위	북부 디비전 3
1952-53	46	22	9	15	5위	북부 디비전 3
1953-54*	26	11	4	11	17위	북부 디비전 3

* 상클리는 1954년 1월 2일 감독직을 사퇴함

워킹턴

1954년 1월 6일 감독으로 부임

시즌	경기수	승	무	패	최종순위	해당리그
1953-54	20	8	6	6	18위	북부 디비전 3
1954-55	46	18	14	1	8위	북부 디비전 3
1955-56*	19	9	3	7		

* 상클리는 1955년 11월 15일 감독직을 사퇴함

허더즈필드

1955년 12월 10일 팀에 합류하여 1956년 11월 5일 감독이 됨

시즌	경기수	승	무	패	최종순위	해당리그
1956-57	26	11	4	11	12위	디비전 2
1957-58	42	14	16	12	9위	디비전 2
1958-59	42	16	8	18	14위	디비전 2
1959-60*	19	8	5	5	6위	디비전 2

* 상클리는 1959년 12월 1일 감독직을 사퇴함

리버풀

1959년 12월에 팀에 합류, 12월 9일 첫 경기를 치름

시즌	경기수	승	무	패	최종순위	해당리그
1959-60	21	11	5	5	3위	디비전 2
1960-61	42	21	10	11	3위	디비전 2
1961-62	42	27	8	7	1위	디비전 2
1962-63	42	17	10	15	8위	디비전 1
1963-64	42	26	5	11	1위	디비전 1
1964-65	42	17	10	15	7위	디비전 1
1965-66	42	26	9	7	1위	디비전 1
1966-67	42	19	13	10	5위	디비전 1
1967-68	42	22	11	9	3위	디비전 1
1968-69	42	25	11	6	2위	디비전 1
1969-70	42	20	11	11	5위	디비전 1
1970-71	42	17	17	8	5위	디비전 1
1971-72	42	24	9	9	3위	디비전 1
1972-73	42	25	10	7	1위	디비전 1
1973-74	42	22	13	7	2위	디비전 1

리버풀 감독으로서의 영광들

1961-62 우승 디비전 2

1962-63 FA 컵 4강

1963-64 우승 디비전 1

1964-65 FA 컵 우승, 유러피언 컵 4강

1965-66 우승 디비전 1, 유러피언 컵 위너스 컵 결승 진출

1970-71 FA 컵 결승 진출, 유러피언 컵 위너스 컵 4강

1972-73 우승 디비전 1, UEFA 컵 우승, 올해의 감독상

1973-74 FA 컵 우승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다: 상클리 동상

1997년 12월 4일, 빌 상클리에게 바치는 영원히 남을 기념물의 제막식을 지켜 보기 위해 수 백 명의 리버풀 팬들이 안필드 경기장의 콥 앤드 입구에 모였다. 그날 리버풀 구단과 스폰서인 칼스버그는 새롭게 지어진 안필드 축구 박물관의 개관식을 거행하였는데 박물관에는 구단의 109년 역사를 보여주는 많은 기념품들이 전시되었고 다시 한 번 상클리의 공헌에 대한 구단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위대한 인물의 특유한 몸짓을 형상화 한 놀랄 만치 실물과 흡사한 상클리 청동상의 제막식도 같이 거행하였다.

그 동상은 칼스버그의 의뢰로 리버풀 출신 조각가인 톰 머피가 만들었다. 톰은 칼스버그의 디자인 컨설턴트인 러슨 마샬 콜과 공동 작업을 하였다. 콜은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상클리 동상의 스타일과 의미를 확립하는 일을 맡았다. 상클리의 동상은 무게가 0.75톤이나 나갔으며 사각 형태의 스코틀랜드 화강암으로 만들어 진 대좌위에 올려 졌는데 이는 상클리가 에이셔에서 석탄 광부로 일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필드 구장의 방문객 센터와 콥 아래에 새롭게 조성된 박물관의 외곽에 세워진 동상은 야간에는 직접 조명을 받고 있으며 상클리가 리버풀 FC에 기여한 성취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조각가 톰은 상클리의 역동성과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필름자료, 사진자료, 그에 대한 전기등을 참조했으며 정말로 뛰어나고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며 실제의 모습과 흡사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상클리의 동상은 전설적인 인물의 전형적인 자세 즉, 팔을 앞으로 뻗고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팀의 스카프를 목에 두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콥을 향해 자랑스럽게 인사를 보내고 있다.

동상은 단순한 전설을 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제막식에는 그의 아내인 네스와 예전 리버풀 선수들 그리고 축구계의 초청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수백 명의 팬들도 모여 이 제막식을 같이 지켜보았다. 동상 아래에는 꽃들이 놓여 졌고 많은 사람들의 '상클리 옆에서' 사진을 찍었으며 그를 향한 헌사를 바쳤다. 지금도 경기가 있는 날이면 곶을 향에 입장하는 수 천 명의 축구 팬들이 동상을 향해 나직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안녕하세요, 빌. 다시 보게 돼서 반갑네요.'



걷고 또 걷고...

글렌벡까지 걸어간 잭 모란

1997년 4월 19일, 론 에이셔의 파이프 연주자인 윌리엄 그레이엄이 안필드 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그 경기를 위해 경기장을 찾은 시끌벅적한 리버풀 팬들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전반전이 끝나고 중간 휴식 시간, 킷트를 입은 스코틀랜드 파이프 연주자가 연금 수령자인 잭 모란을 안내해서 안필드 구장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오후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약 오만의 관중들은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잭 모란은 리버풀에서 빌의 태어난 장소인 글렌벡까지 약 이백삼십 마일의 마라톤을 시작하기에 앞서 콥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은 것이었다.

크로스비 앤드벗 가 출신의 잭은 67 세로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단독 도보 여정을 시작한 뒤 일주일 만인 4월 26일에 글렌벡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그때에는 일단의 리버풀 팬들도 상클리 추모 대좌의 제막을 위해 그곳 황량한 에이셔의 황무지로 모일 예정이었다.

파이프가 상클리가 좋아했던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동안 리버풀과 유나이티드 사이의 격렬한 라이벌 의식도 잠시 멈추었으며 양쪽의 팬들은 존경심을 품은 채 조용히 이 의식을 지켜보았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거예요'가 연주되는 가운데 잭이 출발을 하자 팬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잭의 이번 도보 여정은 리버풀에 있는 프렌시스 오리어리 신부의 성 조셉 암호스피스를 위해서 만 이천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글렌벡까지의 여정동안 잭은 프레스턴 노스 앤드 그리고 칼라일 유나이티드 구단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 두 팀은 상클리가 선수와 감독으로서 몸담았던 곳이었다 - 그 이후로는 덤프리스와 겔로웨이, 남 에이셔 고원 지대를 거쳐 글렌벡까지 갈 예정이었다.

일주일간의 도보 여정은 이제는 황폐해져 버린 옛 상클리의 출생지에서 마무

리가 되었고 거기에서는 수백 명의 리버풀 팬들과 손님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그를 맞아 주었는데 그들은 스코티시 코울사와 리버풀 원정 팬들 모임이 남부 에이셔 의회에 기증한 샹클리 추모 대좌를 제막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객은 팬들과 함께 합류하였으며 그들은 기념물 주위로 모여들었다. 큰 장방형 모양의 대좌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검은색은 윤기가 나는 에이셔의 석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황금색으로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스포츠 역사상 글렌벡 정도 크기의 마을이 그들의 선택한 스포츠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그토록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조형물은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빌 샹클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 그는 전설이자, 천재였고 진정한 남자였다.'

출처: 대좌

론 에이즈와 남 에이셔 의회의 의장의 헌사가 있는 후 버스나 자동차로 이곳 글렌벡의 에이셔 황무지까지 온 리버풀의 팬들은 다시 한 번 그레이엄의 연주에 맞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복받쳐 오른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부르도록 만들었고 나중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락에 맞춰 '샹클리! - 샹클리! - 샹클리!'하고 외치는 소리가 그 곳 황무지에 가득 넘쳐나도록 했다.

제막식이 끝난 후 리버풀 팬들은 전에 마을이 있었던 그곳의 흙을 떠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몇 년 전 스코틀랜드 응원단들이 웹블리에서 그들의 국가 대표팀이 잉글랜드 대표 팀을 물리쳤을 때 했던 일을 본뜬 것이었다.

팬들은 글렌벡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들의 작은 정원에 식물을 가꾸기 위해서 쓴다든가 리버풀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었다.

그날의 행사를 마감하는 자리로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렸다. 샹클리의 리버풀 유소년들과 체리픽커스 팀의 유소년들이 시합을 가졌다. 그들은 빌 샹클리 컵을 놓고 경기를 펼쳤는데 그 컵은 특별히 리버풀 원정 응원단 모임이 마련한 것이었다.

샹클리를 추억하기 위해 참석했던 리버풀 팬들이 기억에 남을 그날의 행사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할 때 잭 모란이 말했다. '저는 이 먼 여정을 상클리에 대한 존경과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빌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점을 높이 샀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리버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빌을 위해서라면 백만 마일이라도 걸을 겁니다.'

'그래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거요, 친구!' 부틀에서 온 케빈이 자랑스럽게 글렌벽의 흙을 움켜쥐면서 말했다. '이 흙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내 집 뒤쪽 정원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작은 장소와 리버풀과의 영원히 계속될 관계를 추억하게 하는 상징이 될 겁니다.'

글렌벽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남부 에이셔의 노천 광산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새 천년을 맞이해서 그곳에서의 노천 광산업이 중단되자 스코티시 코울사는 그 곳을 새로 꾸미기로 하였고 상클리 대좌도 그 곳으로 옮겨 오기로 하였다. 이제 그 대좌는 한 때 글렌벽이라는 마을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에 영원이 서 있게 될 것이다.

잭 모란을 말했다. '그 일이 있게 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걸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시오, 빌!"

에필로그

글렌벙을 기억하며

이제 글렌벙은 조용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다
가시금작화와 영경퀴가 자라고 있는 이곳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을이 다할 때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사실을

자작나무 숲이 있는 곳에 가게가 있었고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학교는 마을 이곳저곳에 퍼져 있었다
이제는 돌무더기들만 남아있는 황무지가 되었다
하지만 저기 풀들이 자라고 있는 황무지를 보라
실개천 옆으로 양들이 풀을 뜯는 저곳에
야생의 한 꺼풀을 벗기고 보면
당신은 그곳에 있는 축구 경기장을 보게 될 것이다

내려가서 그 땅을 걸어보라
그곳은 한 때 신성했던 관중석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서민들의 경기가 행해졌었다
꿈이 실현되는 장소이자 명성이 쌓이는 곳 이었다

그들은 어두운 지하에서 걸어 나와
휘슬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위험과 어둠은 떨쳐 버린 채
경기장을 비추는 밝은 햇살 아래서 뛰었다

그들의 팀은 근성과 석탄 속에서 탄생했으며
그렌벽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다
광부들은 마을의 영광을 위해 싸웠으며
체리피커스의 이야기를 썼다

그들은 멋진 경기를 했으며 상대팀을 압도했다
그때의 체리피커스는 최고였고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으며
글렌벽의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는 법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이면 떠나게 되리니
운명은 그녀의 카드를 꺼냈고 - 이야기는 끝이 났다
부서진 꿈은 다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윤을 낳지 못하는 광산은 폐쇄되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그 하나의 결정이
글렌벽을 죽였다고 말해진다

무너져 내린 글렌벽과 물이 차버린 광산
소년은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나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다
언젠가는 체리피커스에 영광을 가져다주리라

그의 이름은 빌 상클리, 그는 최고였다
그에 대한 기억은 다른 이들을 압도하고
그는 모든 팬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지켰노라

그는 리버풀로 와서 팀을 만들었다
그의 글렌벡의 꿈을 실현시켰다
그가 고향으로 받아들인 안필드는
결코 그를 혼자 견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돈 길레스피



속삭임

오, 글렌벙은 사라졌지만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들려지지 않았던 옛날이야기를
그러나 들어보라! 나는 속삭임을 듣는다
깨끗하고 차가운 강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 그들의 속삭임을 들어보라
졸졸거리며 돌 위를 흐를 때;
그것은 축구를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녹스와 타예이츠 그리로 베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바스 빌딩의 청년
그래스힐 원숭이가의
가장 뛰어났던 예전의 선수들의 이야기이다
축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속삭임은 가버린 시대의 선수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둑에서 행해지던 경기들
명성과 영광을 가져다주었던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였던

그리고 그 속삭임은 조용하고 부드럽다
목청을 높여 싸우지도 않고 언쟁하지도 않는다
이 속삭임은 그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글렌벙과 체리피커스에 대한 얘기들을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인쇄할 수만 있다면

글렌벡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을 것을
체리피커스에 대한 기억들은
흘러가는 시간들과 함께 잊혀 버리고 말았다

우리의 미약하나마 노력으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인생의 길에 있는 믿음 속에
그들의 영광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윌리엄 트위디



감사의 말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넨시와 그녀의 조카 바버라, 리버풀 구단, 에버턴 구단, 잭 모란, 브라이언 홀, 론 에이즈, 지미 플라워스, 토미 솔로몬, 출판사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 존 모란, 게리 마스텐, 마틴, 시빌 그리고 테일러 가족들, 레이 오브라이언, 앨런 잭슨, 로저 필립스 그리고 BBC 라디오 머지사이드의 모든 관계자들, 토니 마틴, 짐 버트람, 블리스 미첼, 칼, 루스 그리고 폴의 가족들, 내 딸 히더 더비와 그녀의 가족들인 메건, 딜런 그리고 미키, 리버풀 시 도서관들, 톰과 자넷, 폭시, 콜린, 앨리스 그리고 세이블, 특히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할 때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준 비비안에게 감사를 전한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다음의 자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빌 상클리 - 축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F. 켈리; **상크스**, 데이브 보올러; **상클리 전설**, 버나드 헤일; **상클리**, 필립 톰슨; **토시**, 존 토샤; **체리피커스**, H.M. 파울 목사와 W. 트위디 주니어; **리버풀의 역사: 완벽한 기록**. 다음의 신문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리버풀 에코 지**, **헤럴드** 와 **콧**.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해준 메인스트림 출판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에게 전화로, 편지로 상클리에 대해 얘기해 주고 의견을 나누어 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1997년에 나와 만남의 기회를 가졌던 리버풀 사람들 모두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책에 내용이 실린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언젠가 다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신들의 위대한 도시를 방문할 것이다.

'상클리는 영원히 기억되리.'